

飛行



1981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히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끈끈한 품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와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뢰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 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주가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즐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慶

建軍 第 33 週年
國軍의 날

祝





공 군 제 177 호

卷頭言

社会淨化運動과 国民意識 改革.....

特 輯 / 生存과 繁榮

레이건 行政府의 軍事力 增強方向

世界經濟의 變化와 韓國經濟.....

市民意識과 公共秩序

北韓의 對外政策

마르크스主義 理論批判

北韓主体哲學의 官學的 性格.....

南北 聯邦制論 批判<Ⅲ>.....



姜容求 (2)
 ...金忠男 (4)

李善浩 (14)
 李滿基 (25)
 池龍雨 (35)
 全得柱 (45)

金永台 (54)
 申一澈 (115)
 編輯室 (105)

成功的인 指揮官의 길..... 이 기관 (97)

航空 · 軍事 · 科學	
挑 戰.....	최재구 (67)
韓國戰에서의 空中作戰	심경식 (76)

空軍漫像..... 鄭雲變 (74)

丙子胡亂과 金尚憲

軍 歌	하늘의 행진곡	(129)
	숫아라 보라매	(130)
	멋쟁이 용사	(131)
	용사의 충정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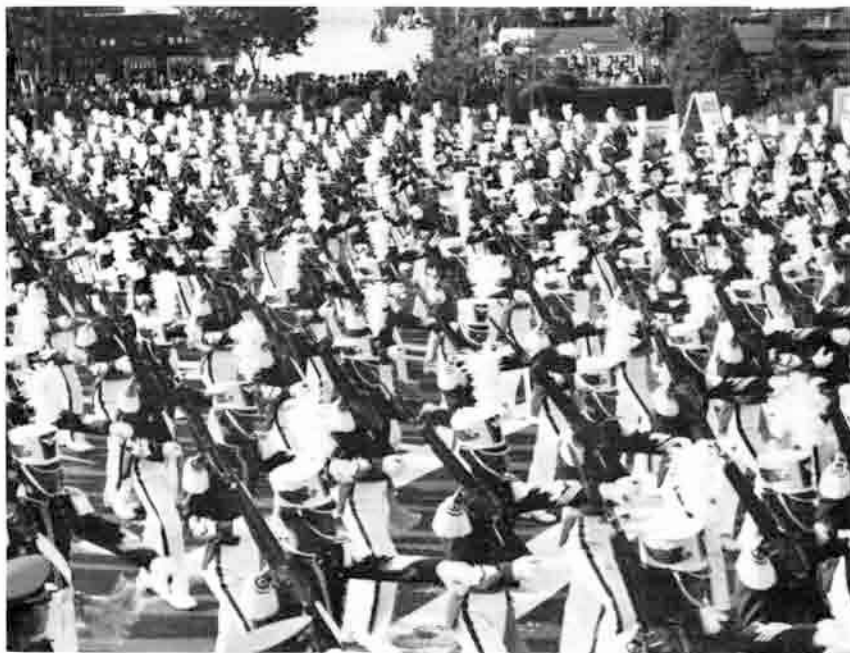
불고기 냄새(短 篇)..... 안수길 (138)



步武도 堂堂한 보라매의 威容



제 3 회 참 모 총 장 배



공군

제 177 호

1981년 제 4 호



參謀總長 統率方針

完璧한 領空防衛態勢 確立

恒 時 戰 場

精 兵 強 軍

節 用 增 強

成年空軍의 威容

政 訓 監 大 領 姜 容 求

마하(Mach)의 時代를 누비는 高速의 사나이, 푸른 制服의 空軍은 이제 成年으로서의 威容을 갖추었다. 成年空軍의 威容은 空軍將兵 各자의 內的 成熟이 前提로 되어야만 完璧한 戰備態勢確立의 根幹이 되지 않겠는가?

江山도 10年이면 變한다는데, 建軍 33週年을 지내면서 創軍 當時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 슬한 感懷에 젖지 않을 수 없다.

1949年 陸軍에서 分離·獨立되어 正式 發足한 空軍은 輕飛行機(L-4, L-5) 20대와 兵力 1,600명으로 出發했던 것이다.

그 후 온 국민의 뜨거운 聲援과 空軍의 研究努力으로 1950년에는 建國機(T-6)와 무스탕(F-51)을 도입했고, 55년에는 F-86전폭기를 도입하여 제트화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65년에 自由의 鬪士(F-5)를 도입하여 亞音速에서 超音速으로의 發展을 보였고, 69년에는 하늘의 도깨비 팬텀전폭기(F-4)를 도입하여 미국·영국·이스라엘에 이어 네번째의 팬텀보유국으로 부상하기에 이르렀고, F-16 최신에 전폭기도 그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편, 군수산업의 발달로 우리 손으로 항공기를 제작할 날이 멀지 않았으며, 특히 하늘의 눈으로 통하는 防空管制가 저공침투까지도 완벽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보강되어 물샐틈없는 방공태세를 갖추었으며 우수한 조종술, 뛰어난 정비기술, 장병들의 필승의 신념과 實戰과 같은 戰術戰技研磨로 莫強한 戰力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時點에서 우리는 空軍의 發展相에만 감탄하고 있어서는 안 되며, 더욱 더 現存戰力을 極大化하고 發展의 研究業務에 정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 가장 기본적인 課題는 精神戰力 強化이다. 장병 개개인이 確固



모형 항공기 대회 개최 (81. 9. 20)





제 28 회 3 군 사 관 학 교 체 육 대 회 < 81. 10. 2 >



不動한 價値觀을 正립하여 透徹한 國家觀을 確立하고, 護國의 反共思想을 昂揚하며 必勝의 軍人精神을 涵養해야 한다.

그리고 航空機를 비롯한 高價의 裝備를 가장 經濟的으로 運用해야 한다. 한 방울의 기름이나 하나의 부품도 결코 소홀히 다름이 없이 나의 물건이나 나의 신체를 아끼고 보살피듯이 最大의 관심과 애호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 分野別로 現存기량 및 숙련도를 더욱 높이기 爲해 不斷한 研究·檢討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우리가 바라는 第2의 跳躍을 통한 福祉社會의 建設은 바로 온 국민의 힘을 합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제는 우리도 被援助國의 위치에서 탈피하여 援助國으로 부상해 가고 있으며, 先進國 隊列에 加擔하고 있는 것이다. 오는 88년에 세계 Olympic을 서울에서 開催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 國民들의 피땀어린 努力의 결실이요, 신장된 國力の 표현인 것이다.

우리는 선진국민으로서의 긍지를 견지해 나가야 하는 바, 가장 먼저 要請되는 것이 信義의 確立이다. 孔子의 「無信不立」의 哲理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국민의 단결은 信義를 바탕으로 할 때 굳건하며, 단결을 토대로 國력이 신장되고, 그 후에야야 國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信義란 진실하고 정직한 것을 말하며 모두가 진실한 마음과 행동을 보여준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어려움이겠는가?

10월은 상달!

일년 중 으뜸이며, 국군의 달이기도 한 것이다. 천하 제1의 우리 강산에는 오품백과가 풍성하고, 복지에로의 氣運이 가득한 수확의 계절이다.

성년공군은 榮光된 祖國의 내일을 위해 필승 보라매들은 오늘도 푸른 蒼空을 向해 힘차게 활주로를 솟구치고 있다.

社会净化運動과 國民意識改革



社會淨化運動은 否定的
要素의 物理的 剔抉보다는
肯定的 要素의 伸張活動이
바람직하며, 각 學校, 직장,
社會團體들이 自然스럽게
자율적 淨化를 추진해 나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 時代 새 理念

새 時代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새
理念은 「正義社會의 具現」이다. 빛나는
歷史는 內外的 試鍊에 대해 창조적인 적
응을 통해서 이룩되는 것이며, 따라서
새 理念이란 당면한 民族의 課題를 풀어
나가는데 있어서 精神의 指標이다. 開港
이래 100년간에 걸친 역사적 經驗들을 되
돌아보고 나아가서 統一된 先進福祉社會
의 건설이라는 민족적 소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倫理와 規範과 合理性이 지배

金
忠
男

〈政博·陸士教授
社會淨化委研究室長〉

하는正義로운社會氣風을 이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또 先行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10·26事態 이후에 밀어닥친 일련의 國家的 危機는 日帝統治의 殘滓를 씻어 버리지도 못하고, 확고한 윤리적 기반도 없이 구분별하게 西歐文物을 도입하고 60년대 이래의 成長爲主의 近代化過程에서 누적되어 온 슬픈 문제점들이 동시에 노출된 것에 불과하다. 즉 權力濫用, 權謀術數, 極限對立으로 특징지어졌던 지난날의 政治, 社會的 倫理와 責任을 망각한 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利益追求에만 급급했던 經濟, 그리고 公共倫理와 秩序意識의 不在 속에서 賸배된 不信과 불만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政治, 經濟, 社會 등 모든 면에서 「惡貨가 良貨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이 지배적이었으며, 「정직한 사람은 못산다」든가 「법대로 살면 손해다」라는 그릇된 사고방식이 賸배하여, 요령있고 치세술이 좋은 사람이 정직·성실한 사람보다 인정받는 현상마저 없지 않았다.

이러한 부패된 요인을 그대로 두고 온 국민의 바람인 民主福祉國家를 건설하기 어려운 것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비능률을 방지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할 수 없음은 물론 격변하는 내외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고 본다. 부정부패가 그대로 온존된 사회에서 국민이 사치와 낭비, 나태와 안일에 젖어 있고, 사회기강이 무너져 있을 때, 그 나라는 멸망하고 만다는 것은 최근 월남의 패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 민족이 漸增하는 국제적 긴장 속에서 온갖 시련과 대결하면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國民的 團結과 건전한 國民精神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危機 狀況에서 國運을 바로잡기 위하여 80年 5월 발족된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를 중심으로 그 동안 누적되어 온 政治, 經濟, 社會的인 非理와 폐습을 제거하기 위한 미증유의 社會改革을 단행하였다. 즉, 그동안 國家發展과 國民奉仕라는 기본적 責務를 도외시한 채 不正腐敗 행위를 일삼던 사이비 정치인을 제거함으로써 政治風土 刷新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정부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不正非違 公務員 숙정을 단행하여 行政刷新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선량한 국민을 괴롭혀 온 폭력, 공갈, 사기, 마약사범 등 각종 社會惡을 제거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취하였고 正常的인 교육이 무색할 정도로 과열되었던 과외수업의 금지조치 등 각종 社會改革 조치를 단행하여 社會風土 刷新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러한 改革意志는 第5共和國의 출범과 함께 法規

의 제정과 制度改革 등 실천적 차원으로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정신적 부패와 社會風土에서 오는 非理弊習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改革措置와 制度改善만으로는 쉽게 제거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며, 社會淨化運動은 바로 그러한 脈絡에서 시작된 것이다.

社會淨化運動의 當爲性

지금까지 社會淨化는 주로 否定的 要素를 척결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따라서 일부 사람들은 不條理는 特權層에 관련된 것이며 자신들과는 無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조리 척결은 작년도 的 危機狀況 속에서 國保衛가 취한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조치였다. 사람들이 자신들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기 쉬운 非理弊習도 깊이 생각해 보면 일상생활과 意識構造 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意識革命이 없이는 正義社會가 이룩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전국 방방곡곡,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는 社會淨化運動은 새 時代 新歷史建設의 國民的 支持와 參與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物質的, 環境的 近代化는 성공적으로 이룩되어 경제적으로는 農業中心의 社會에서 2,3차 產業이 지배적인 產業社會로, 사회적으로는 血緣中心의 村落社會에서 都市社會로, 국제적으로는 대의교류가 거의 없는 閉鎖社會에서 세계와 긴밀한 交流를 하는 開放社會로 변모되었으나 우리의 意識構造와 社會制度는 前近代의인 면이 상당할 정도로 남아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부적절한 價値觀과 행동양식의 근원을 좋지 못한 民族性으로 돌리는 경우가 허다하나 이것은 民族性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지난 100년간 日帝統治, 南北 分斷과 戰爭 등으로 인한 限界狀況 속에서 물질적으로는 극단적인 궁핍상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극단적이고, 무질서한 生存競爭은 아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지 모른다. 다행히 60年代 이래 성공적인 近代化를 이룩했지만 이것은 너무나 物質中心의 노력이었으므로 精神 및 文化制度的인 면은 등한시되었고, 그것의 결과로 倫理와 規範不在의 社會相을 초래한 것이다.

우리가 民主制度를 도입한지 30년이 지났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조건인 國民 하나하나가 國家社會問題에 關心을 가지고 責任있는 행동을 하는 「主人意識」을

제대로 갖춘 사람은 별로 없다. 그 결과로 選舉時에도 地緣 血緣과 物質의인 것으로 代表者를 선출하는 등 前近代의인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兵役義務나 納稅를 가능하면 기피하려 한다. 따라서 이 땅에 民主主義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民主市民倫理가 확립되는 것이 절실한 문제이다.

經濟的으로는 그 동안에 경제의 기적을 이룩했다고 하지만 産業社會에서 요청되는 職業倫理, 生産者倫理, 消費者倫理, 서비스倫理 등과 같은 經濟倫理가 미약하다고 본다. 막스뉘베거가 西歐의 資本主義 發達の 근원을 기독교정신의 실천에서 찾듯이, 우리 역시 자신이 하는 일에는 貴賤이 없으며, 神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맡은 바를 다할 것이며 그 所得 역시 소중히 써야 한다는 의식을 內面化해야 할 것이다. 資本主義社會에서 돈의 重要性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불량품 제조, 利權請託, 매점매석, 탈세, 피폐업소운영 등 不當한 方法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現代經濟秩序는 「信用있는 交換秩序」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량품제조나 과대포장, 허위과대광고 등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처사이며, 이와같은 流通秩序의 문란은 社會的不信을 빠르게 하는 것이다.

社會的으로는 現代的 都市의 다량건설 자동차, 텔레비전, 냉장고 등과 같은 文化生活기구의 증대로 우리의 生活環境은 현대적인 것으로 급속히 변모해 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에 적합한 社會倫理와 社會秩序는 존재하는가?

우리 조상들은 村落單位 血緣中心社會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간에는 깊은 人情을 쏟으나 都市化된 사회에서 접촉하게 되는 수많은 낯선 사람들 간에 요구되는 人間關係規範은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의 意識構造에는 儒教的이고 封建的인 것에서 오는 官尊民卑, 權威主義, 엘리트意識, 特權意識 등 現代 民主産業社會에 부적합한 思考方式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社會나 組織體에도 血緣, 地緣 또는 個人關係에 의한 人脈이 支配하는 분위기이며 조직의 책임자가 바뀌면 간부가 대거 교체되고 취직, 승진, 보직 등 人事管理에 있어서 「맥」이나 「눈치」 또는 요령있는 사람이 유리한, 不公正과 不平等이 만연하고 있다. 좋은 인적 배경을 악용하여 쉽게 出世하는 사람은 좋을지 모르나 能力있고 誠實한 사람이 밀려나가 이러한 사람들은 社會에 대해 결코 만족할 수 없으며 國民和合이란 하나의 구호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政治, 經濟, 社會的으로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物質的인 環境은 많이 近代化되었고 90年代에 이르면 先進化되었지만 非物質的인 측면, 즉 現代大衆社會에 맞는 公共倫理나 秩序意識은 배양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렇게 볼 때 前近代的인 意識構造와 社會生活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90年代에 이르러서도 近代化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前近代的인 諸問題를 바로 잡고 非物質的인 측면을 近代化하려는 것이 社會淨化의 궁극적 목적인 것이다.

社會淨化運動의 理念과 推進手段

正義社會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사회로부터 존경과 대우를 받으며, 정당한 노력에 상응하는 代價를 받으며 서로 믿고 和合團結하여 發展할 수 있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不正, 不義, 不實 그리고 각종 非理弊習을 제거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法과 規範의 秩序 속에서 公平한 競爭이 이루어져야 한다.

運動競技가 제대로 되려면 競技規則이 合理的이고, 審判者가 公正하게 심판해야 하며, 또 평소에 충실히 實力을 연마한 選手들이 경기장에서 정정당당하게

實力對決을 해야 하는 것이다. 社會生活도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 간에 경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競技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우선 法令과 規範이 합리적으로 마련되고, 그것을 運用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審判者的 자세로 公平無私하게 처리하며, 그러한 여건 속에서 개인의 성실과 능력이 「社會生活競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정의사회구현을 위한 社會淨化運動은 正直, 秩序, 創造를 三大理念으로 한다. 우선 正直은 信賴할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하는 기본가치이다. 정직은 서로가 믿고 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要素이며 社會的 倫理形成의 일차적 요건이다. 사회에 정직의 윤리가 충만할 때 신뢰하는 社會風土가 조성된다.

秩序란 調和로운 社會를 이룩하기 위한 核心價值이다. 질서란 개인들의 정직만으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생활의 복합적인 人間關係에 필수적인 法과 규범의 준수로서 달성되는 것이다.

創造는 進歩하고 發展하는 사회의 기본이념이다. 어떤 사회든지 正直性을 토대로 한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고 秩序가 존중되어 調和를 이룰 수 있는 사회가 되면 創意性和 合理性이 존중되어 個人과 社會가 정체되지 않고 계속 발전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三大理念을 실천하기 위한 手段의 이념으로 四大原則을 제시한다. 그 첫째는 「道德性的 原則」으로 이 운동은 人間을 중요시하고 良心과 理想을 추구하는 가치있는 삶을 권장한다. 둘째로 극단적 個人主義와 利己主義를 탈피하고 자신의 言行이 「公害」가 안 되도록 하며 公益을 존중하면 자신에게 利益이 돌아온다는 「公益性的 原則」을 존중한다. 셋째로 사회생활의 모든 면에서 原理原則 앞에 예외가 없고 公平한 「公正性的 原則」을 지켜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만연된 非合理的 形式主義와 官僚的 權威主義를 지양하고 個人의 창의성이 존중되고 組織이 合理的으로 운영되어 個人, 集團, 社會 全體가 向上發展될 수 있도록 合理性의 原則을 존중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社會淨化는 범위도 넓고 또 것처럼 광범한 분야에 걸친 社會改革과 精神革命을 이룩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업이다. 따라서 이 과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體系的이고 종합적인 推進戰略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운동의 推進主體와 선정된 活動課題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次元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첫째는, 物理的 剔抉이다. 이는 外面的으로 나타난 고질화된 違法과 非理, 弊習 등 否定的 要素의 제거를 말한다. 전통적 美風良俗에서 볼 때 주위사람들의 비리폐습행위를 고발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한 경우, 가까운 사람들이 진지한 충고를 통해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이 안 될 때, 淨化推進委員會가 권고하며 고질적인 不義, 不法에 대해서는 司法機關이 法的 措置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非理, 弊習 또는 社會倫리의 결여는 그 사회의 文化風土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社會制度 및 環境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政府는 政治·經濟·社會의 주요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改革과 改善을 도모하고 있거나와 가정, 학교, 직장을 중심으로 한 地域 社會에서도 環境 및 制度改善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척결과 制度·環境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社會적으로 기대되는 行動規範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意識改革은 이룩될 수 없다. 따라서 社會淨化運動은 남녀노소 또는 각계각층의 정신개혁을 위한 教育革新運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家庭教育, 學校教育 그리고 社會教育이 유기적으로 연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社會淨化運動을 否定的 要素의 제거를 위주로 한 운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으나 初期段階에서는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물리적 척결을 위한 노력이 다소 지배적일 가능성이 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정적 요소의 제거활동은 점차 적어지고 肯定的 要素의 伸張活動이 점차 증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社會 全般的으로 또는 地域社會 單位로 淨化雰圍氣가 무르익게 되면 各 學校, 職場, 社會團體들도 자연스럽게 自律的 淨化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社會淨化運動이 과거의 國民運動들과 다른 점은 과거의 운동들이 短期的 課題를 중심으로 캠페인에 중점을 두었다면 淨化運動은 三大淨化手段을 유기적으로 活用하고 中長期事業에 중점을 두어 처음부터 合理的 理論體系를 수립하고 계속적인 研究發展을 통해서 궁극적인 精神革命을 성공시키려는데 있다.

參與와 實踐의 民主指導運動

과거에도 社會發展을 위한 國民運動이 있어 왔다. 가장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것이 새마을運動이라고 본다. 그러나 새마을運動은, 60年代의 都市中心의 近

代化 과정에서 낙후된 農村을 부흥시키기 위하여 환경개선과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社會淨化運動은 國家發展段階에서 近代化하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近代化된 후에 오는 社會病理를 극복하고 나아가서 「祖國現代化」 또는 「祖國先進化」를 위한 노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社會淨化는 近代化가 앞선 都市에서부터, 그리고 都市民들 중에서도 보다 近代化된 階層이며 指導的 계층인 宗教指導者, 政治人, 公務員, 지식인, 언론 문화인 등이 앞장서야 할 운동인 것이다. 사실상 精神運動이란 지도적 계층이 이끌어가지 않고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다.

社會淨化運動의 意義를 정리한다면 첫째로, 우리 社會의 부조리를 제거하여 사회적 불만을 해소함으로써 國民和合을 도모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곧 복귀 위협을 이겨내는 民族生存運動이라고도 볼 수 있다. 둘째로, 우리의 經濟가 계속 발전하려면 기술과 실력을 갖춘 성실한 사람들이 産業社會를 이끌어감으로써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것은 또한 民族發展運動인 것이다. 셋째로, 우리의 意識構造에는 미신을 신봉하고 前近代의이며 非合理的인 면이 많은 바 이를 청산하고 近代産業社會에 적합한 것으로 전환하는 意識의 現代化

運動이다. 이제로 우리의 社會制度和 構造는 封建的이고 前近代의인 農業社會에서 적합한 地緣爲主中心의, 또는 차별적이고 不合理한 면들이 많은 바 이를 民主産業社會의 여건에 맞게 改革하는 社會制度의 現代化運動이다. 마지막으로 이 운동은 不平等이나 特權을 배제하고 法規앞에 모든 사람이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淨化推進委員會 活動을 통해 民主的인 訓練을 하는 民主化運動인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 운동은 先進韓國이 되기 위한 韓國的 르네상스運動인 것이다.

社會淨化運動이 民間主導로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政府主導의 운동으로 생각하고, 政府에서 活動課題와 方法 그리고 이를 위한 모든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운동을 政治와 관련된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지난 해 社會改革과 精神革命의 필요성을 국민 다수가 요망하고 있을 때,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서 주장되었을 뿐이며 이것은 어디까지나 國家的 또는 民族的 次元의 國民運動인 것이다.

우리는 지난날 政府主導에 의한 社會改革運動의 종말을 잘 알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는 운동은 單期間에 외형적인

효과는 있지만 그것은 형식화되고 획일화되어 精神革命을 이룩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精神改革이란 個人良心에서 출발되는 문제로 國家權力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며 또한 現代社會의 복잡성과 다양성 때문에 官僚들에 의한 획일적 운동은 그 부작용 또한 적지 않은 것이다. 나아가서 그러한 接近方法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參與할 動機를 부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政府는 政治人이나 公務員을 중심으로 출신수범하며 社會의 靖화분위기를 조성하고 民間運動을 적극 지원하겠지만 근본적으로 社會淨化運動은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地域社會에서 자발적 자율적으로 바르게 잘 살아보자는 운동인 것이다. 또한 우리 社會의 비리와 폐습은 공해현상과 같아서 몇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社會 各階各層의 同時的이고 協同的인 노력이 요망되는 것이다. 그러한 點에서 社會淨化運動은 진정한 의미의 參與民主主義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하겠다.

그러나 왜곡된 社會風土나 올바르지 못한 個人的 價値觀과 行動樣式은 歷史的, 社會的 環境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되었으므로 그것을 바로 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켜가는데는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

을 필요로 한다.

國民意識革命과 社會制度改革이라는 민족적 과업은 그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가 없이는 큰 결실을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지식인, 언론인, 종교지도자, 지역사회유지, 그리고 뜻있는 젊은이들이 이 운동의 참 뜻을 인식하고 개척자적 헌신으로 이 운동을 이끌어 나가야 하며, 지역사회의 각급 학교, 종교집단,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社會淨化運動은 역사적 변혁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운동이 아니고 祖國의 先進化와 영원한 번영을 위해 항구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合理的인 운동이며 따라서 국민 모두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 궁극적 목적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努力을 통하여 이룩될 正義로운 社會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주위로부터 존경과 대우를 받으며, 정당한 노력에 대하여 합당한 補償을 받으며 따라서 서로 믿고 和合團結하여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사회인 것이다. 이러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주변으로부터 不正, 不義, 不實 그리고 弊習을 추방함으로써 누구나 法規秩序 속에서 公平한 경쟁이 보장되고 각

자의 自我實現과 幸福追求가 가능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따라서 正義社會는 모든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公正하게 보호받는 法治社會이며, 모든 國民이 스스로 法을 지키는 遵法社會이다. 이러한 사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기회가 주어진 開放社會이며, 合理性과 公益性을 존중하는 民主社會이다.

우리는 20年 以內에 2千年代를 맞이하게 된다. 現代科學技術에 힘입어 社會變動의 속도는 加速化 되어가고 있으며, 증대되는 資源難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對內的으로는 南北對決에서 우리가 主導權을 잡고 平和統一의 길로 매진해야 할 역사적 요청을 안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나 자신이 잘 되고 내 가족과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라는 공동의 광장이 마련되고, 우리들 서로 간의 약속인 법과 규범을 지키면서 각자의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나 자신 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명량한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국민들의 오도된 윤리의식을 바로잡고 사회와 국가의 紀綱을 확립하며, 民族正氣를 회복하는 일은 나라의 興亡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正義社會具現은 쉽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이 과업을 시작한 단계에 불과하며 조국을 社會正義의 든든한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요청되는 것이다.

政府는 金斗煥大統領의 指導理念에 따라 正義社會를 기필코 이룩하겠다는 意志의 상징으로 80年 10月末에 社會淨化委員會를 설치하여 社會改革과 國民意識革命을 목표로 하는 社會淨化運動을 적

극 추진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가 이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밀고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社會淨化運動은 어디까지나 國民運動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운동의 主體가 되어 淨化의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닌 「나와 내 주변의 문제」로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社會淨化運動은 祖國先進化에 가장 크게 기여한 역사적 과업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名將名言>

- ◎ 指揮官은 戰鬥을 이끌어 나가는 原動力이 되어야 한다. 部隊들이 第一線에 나타난 그 모습을 보고 確固不動한 指揮官의 統制下에 모 든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認識시켜야 한다.

— 룬 엘 —

- ◎ 피를 흘릴 覺悟가 없이 勝利를 얻고자 하는 자는, 피흘릴 것을 不辭하는 자에 의해서 반드시 征服되고 말 것이다.

— 클라우제비츠 —

『레이건』 行政府의 軍事力 增強 方向

李 善 浩

△ 國防大學院 教授 △

레이건 行政府는 「힘의 美國」 政策을 뒷받침하기 위해 有史 以來 最大規模의 國防費를 議會에 要求 할 것으로 알려졌다.

1. 問題의 提起

最近 「카터」 行政府 當時의 跛行的 軍事政策에 대한 批判의 소리가 高潮되고 있다. 特히 우리는 今般 「레이건」 大統領의 被擊事件이 준 衝擊과 더불어, 지난 4年間 「카터」의 駐韓美地上軍 撤收政策에 따른 是非로 말미암아 惹起된 갖가지 不安要因이 美國의 새로운 行政府가 出帆함과 同時 解消되고, 韓美頂上會談을 계기로 兩國間의 關係가 크게 改善되고 撤軍問題가 白紙化된 이때, 「레이건」 行政府의 防衛力 增強計劃이 報道됨에 따라 現在 일고 있는 「카터」에 대한 美議會와 軍部의 甚한 批判의 소리를 肯定的으로 받아들일게 된다.

上院軍事委員長 「타워」(John Tower) 議員은 지난 1月 28日 「와인버그」(Casper Weinberg) 國防長官과 「존스」(David C. Jones) 合參議長이 同參院 議會證言席上에서 1981年 및 1982年の 國防豫算을 320億「달러」以上 增額한 것

을 주장하면서 「카터」行政府의 國防費는 절름발이 豫算(Lame Duck Defense Budget) 編成이었다고 그 不合理性을 지적하였다. 이와 關聯하여 「존스」 合參議長은 「카터」의 (國防政策을 戰略·戰力不容納(Strategy-Force Mismatch)의 失敗作이었다고 前提하면서, 美國의 現軍事力은 美國의 戰略的 公約을 지키는데 尙급하지만, 增大되어가는 蘇聯의 軍事力은 美國의 戰略計劃을 拒否하고도 남음이 있을 程度로 兩者間에는 큰 격차가 벌어졌으니, 國防費增額만으로 이 兪청

난 「겉」을 是正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強調하였다. 「레이건」은 「힘의 美國」 政策을 뒷받침하기 위해 對內的으로 經濟問題의 어려움-속에서도 蘇聯의 威脅에 대처하기 위해 1982會計年度 國防費를 平時 豫算으로서는 有史 以來 最大規模인 2,220억 「달러」를 議會에 要求할 것으로 알려졌으니, 다음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1년에 比해 向後 5年間 연방 예산은 57%가 증액되는데 反해 國防費는 158%를 증액하려는 획기적인 防禦力 增強 努力인 것이다.

國防費 增額 5個年計劃

	1981~82	1982~83	1983~84	1984~85	1985~86	基準年度 對比增加率
國防費	25% (2,220억 「달러」)	56%	79%	103%	130% (3,675억 「달러」)	158%
聯邦 豫算	13%	20%	26%	33%	46%	57%

(Time, March 16, 1981, p.32.)

이같은 莫大한 軍事費增額은, 蘇聯과 그 背後勢力의 陰謀(Machination)가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엘살바돌」에 이르기까지 激化되고 있는 가운데 戰略核戰力의 對蘇均衡이 惡化一路에 있을 뿐만 아니라, 第3世界地域에 계속 긴장을 高潮 시키고 있으며 自由陣營産業化 諸國의 쪼들음이 되고 있는 「에르자」構이 不遠將來에

美·蘇對決場으로 化할 可能性이 濃厚해 지고 있는 現時點에서 볼 때, 美國의 議會와 여론이 當然한 것으로 받아들일지 모른다.

軍事力의 增強은 一朝一夕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美國의 增大되어가는 對蘇脆弱性的 응급치유(Quick Fix)도 重要하지만, 美國이 새로운 戰略的 主導

權(New Strategic Initiative)을 確保 維持하기 위해서는 長期的으로 一貫性 있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美國의 2大 當面問題는 첫째로 美國과 對抗할 것으로 예상되는 地域에 더 많은 軍事力을 配備하는 것이고, 둘째는 美蘇間의 힘의 不均衡이 存在하는 곳에 空白을 메우는 것 일 것이다.

2. 現存 軍事力과 軍事戰略의 不調化

가. NATO와 WTO의 戰力 隔差 深化

NATO는 1971年 以前까지만 해도 WTO보다 軍事費投資額이 31%나 앞서

있었다. 그러나 이 額數는 美國이 越南 戰을 치루기 爲한 戰費에 絶대액이 投入 됐기 때문에 蘇聯처럼 主要裝備의 生産 設備에 集中 投資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1976年을 기하여 NATO의 軍事費 1,774億「달러」는 WTO의 1,772億「달러」와 거의 같은 線으로 接近하게 되었고, 그 後 逆轉된 것이다.

결국 지난 10年 동안 蘇聯은 美國보다 2,200億「달러」나 新裝備生産에 더 投資할 수 있게 됨으로써 主要裝備의 年間 生産量이 美國보다 75%나 앞서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NATO와 WTO間의 「유럽」 中部戰線에서의 主要裝備의 不均衡은 다음과 같이 엄청난 隔差(Chasm)로 차단 게 되었다.

「유럽」中部戰線의 NATO 및 WTO 主要裝備比較

年度 主要裝備	1970		1980	
	NATO	WTO	NATO	WTO
戰 車	5,745	13,550	6,200	18,000
裝 甲 車	1,300	14,400	14,400	18,000
野 砲	2,000	5,150	2,300	6,500
對戰車火器	3,300	3,400	5,000	7,400
防 空 武 器	1,900	4,400	2,300	5,000
航 空 機	1,550	2,850	1,420	3,200

(Armed Forces Journal International March 1981, p.43.)

따라서 「레이건」行政府의 前項에서 提示한 바 있는 國防費增額計劃이 議會에서 承認된다 해도 蘇聯과의 根源的인 戰力の 隔差는 해소하기 어려운 것인 바, 단지 應急處置(Bond-aids)의 効果만 느리지 말고 對蘇均衡을 達成키 위해서는 NATO 同盟 諸國이 現在의 GNP의 3% 線을 維持하고 있는 國防費를 最小限 5%線으로 引上지킴으로써, NATO 加盟 國들이 共同步調를 취하도록 促求해야 할 것이다.

나. 戰略과 能力的 不調化

美國은 越南戰이 끝날 때까지는 이른 바 2.5戰爭(Two-and-a-half-war) 戰略을 갖고 있었는데, 이는 「유럽」과 太平洋地域의 2個의 主戰爭에 對處함과 同時 1個의 他地域 小規模戰爭에 對處하려는 戰略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美國이 8年半에 걸친 越南戰 期間中 지나친 戰費負擔과 國力消耗 뿐만 아니라 「유럽」과 太平洋에 同時에 2個의 主戰爭을 치룰 수 있는 能力이 없음을 認識한 나머지, 「멕시코」 國防長官은 1960年代末에 와서 東南亞에서 美國이 主戰爭을 擔當할 資源도 意志도 없음을 表明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래서 「닉슨·독트린」이 선포됨으로써 美國은 越南에서 撤軍을 斷行하게 되

었고 「레이드」(Melvin Laird) 國防長官은 美國의 軍事力이 軍事戰略과 調和를 잃고 있어 再編成이 不可避하므로 1.5戰爭(One-and-a-half-war) 戰略을 採用하게 된 것이다. 즉 1個의 主戰爭을 「유럽」 戰區에서 遂行하고, 1個의 小規模戰爭을 世界 到處의 우발사태지역에서 치룬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最近에 와서 前 國防長官 「브라운」(Harlord Brown)은 公式적으로 發表하거나 豫算上 反映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戰略으로 $1 + \frac{1}{2} + \frac{1}{2}$ 戰爭(One-and-a-half and one-half-war) 戰略概念을 提示한 바 있다. 이는 增大되어 가는 蘇聯의 威脅에 對처하기 爲해 「유럽」에서 계속 主戰爭을 치루고 中東과 太平洋地域에서 다른 2個의 小規模戰爭을 치루려는 것으로, 결국 2個의 主戰爭을 치루는 셈이 된다($1 + \frac{1}{2} + \frac{1}{2} = 2$ 이므로). 이는 美國의 軍事力의 大型化가 不可避한 現實的 要請에 따라 戰略·戰力 不調和를 正하려는 努力의 表現으로서 1960年代의 2.5戰爭戰略에 接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美國의 軍事力은 지나치게 伸張配備되어 있어, 만일 前示한 $1 + \frac{1}{2} + \frac{1}{2}$ 戰爭戰略에 따라 現存勢力을 3個戰線에 投入使用한다면, 그 어느 한 戰線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弱體가 되고 말 것이니, 이와같은 戰略 · 戰力 不容納狀況下에서 「레이진」行政府의 國防費 大幅 增額措置는 상당히 설득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아진다.

이와 관련하여 「카터」行政府에서 심각한 예산삭감으로 苦役을 치룬 海軍當局은 議會의 證言을 통해 다음과 같은 意

味 있는 發言을 하였다.

「우리는 3個大洋(太平洋, 大西洋 및 印度洋)을 統制할 公約을 이행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海上勢力은 1個半 밖에 갖고 있지 못하다.」

1979年度의 日本防衛白書에 依하면 美 · 蘇 太平洋海上勢力을 다음 圖表와 같이 比較提示하고 있는데 美國의 量的인

美 · 蘇의 西太平洋 艦艇勢力 比較

		1965		1978	
		美	蘇	美	蘇
總排水「톤」數 (單位 1萬톤)		85	65	50	125
潛水艦	在來式	8	80	2	75
	核推進	2	13	4	40
大型 水上艦		35	35	25	48
勢力比率(美 · 蘇)		1 : 28		1 : 4.9	

(News Week, March 16, 1981, p.30.)

劣勢가 뚜렷하다.

그런데 大西洋地域의 海上勢力도 이와 비슷한 現狀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특히 「페르샤」灣의 最近事態로 말미암아 狀況은 더욱 惡化되어 NATO의 艦艇勢

力은 蘇聯보다 23%가 劣勢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海上航空勢力과 對潛航空機의 勢力에 있어서도 NATO側이 70% 以上 優勢한 것으로 判斷되었으나, 이제는 蘇聯의 「백라이어」機와 長距離對

艦巡航誘導彈의 增加配置 뿐만 아니라 水上艦艇과 潛水艦의 常駐配置로 勢力이 逆轉된 狀況에 놓여 있다.

美海軍參謀總長 「헤이우드」(Haywood) 제독은 이와 關聯하여, 「海軍은 10年前에 比하여 절반의 勢力 밖에 갖고 있지 않으나, 그 當時에 比해 擔當海域은 2倍 以上으로 늘어났다. 海軍에 關心을 가진 그 누구도 짐작하겠지만 現在로서는 對蘇戰爭은 말할 것도 없고 平時公約 조차 履行하기 어려운 實態이다.」고 主張했다. 이 程度로 美海上 勢力이 劣勢한 것이 事實이라면, 「브라운」長官이 提示한 $1 + \frac{1}{2} + \frac{1}{2}$ 戰爭戰略 역시 戰力の 뒷받침이 없는 實現不可한 口頭演에 不過한 것을 알 수 있다.

다. 緊急配置軍(RDF)의 虛實

「카터」行政府에서 「페르샤」灣의 非常事態에 對備하여 1980年 中반에 創設한 20萬名 規模의 緊急配置軍(Rapid Deployment Force)은 美國의 5個 統合軍(Unified Command) 中의 하나인 戰備司令部(Readiness Command) 에 하부대인데 美海兵第2師團, 美海兵 第3師團, 美陸軍第82空挺師團 및 美陸軍 第101空中機動師團을 中心으로 機動編成된 合同機

動部隊(Joint Task Force)이나, 輕裝備만 갖춘 轉換配置軍(Swing Force)로서 「페르샤」灣地域에 投入命을 받게 되면 「오만」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美軍이 使用토록 許可된 基地까지 空輸投入된 다음 印度洋의 英領「디에고·갈샤」(Diego Garcia)에 重裝備과 補給品을 搭載하고 事前 待機하고 있는 大型貨物輸送艦과 合流·再編成하여 作戰地域에 投入되도록 計劃되어 있다. 美國의 統合軍은 戰區司令部의 役割을 맡고 있으므로 緊急配置軍은 平時에는 戰備司令部의 作戰統制를 받지만 作戰地域에 投入될 때까지는 太平洋과 印度洋上에서의 作戰行動은 太平洋司令部의 統제를 받아야 하고, 一旦 作戰地域에 投入되면 「페르샤」灣 同地域의 作戰責任을 맡고 있는 「유립」司令部의 統제를 받아야 한다. 또한 緊急配置軍을 輸送하는 諸 航空機는 모두 美國의 3個 特殊軍(Specified Command) 中의 하나인 戰略空輸司令部(Military Air Lift Command) 所屬이므로 緊急配置軍의 作戰指揮는 복잡한 指揮權關係에 얽혀 있다.

Armed Forces Journal誌 3月號에 依하면 緊急配置軍의 統制와 協調를 전달하는 連絡將校도 准將 1名이 合參에 固定配置되어 있을 程度로 作戰節次가 복잡하다고 한다. 그래서 「레이건」行政府

에서는 이를 일컬어 「카터」·「브라운」合作的 「바렌드」의 惡夢(Bartender's Nightmare)이라고 꼬집고 있는 것이다. 事實 「바렌드」가 調理法이 너무 複雜하면 「라테일」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法이다.

美海兵隊는 緊急配置軍으로서 뿐만 아니라 事前 配置軍(Preposition Force)으로서의 任務도 要求받고 있다. 現在 3個 師團 中 第2師團은 東海岸(「노스 캘로니아」州)에, 第1師團은 西海岸(「캘리포니아」州)에 配置되어 있고, 第3師團은 海外(「오끼나와」)에 駐屯하고 있는데, 특히 第3師團은 駐韓美陸第2師團의 增援部隊로서 뿐만 아니라 有事時에는 NATO 戰區와 「페르샤」灣으로 轉換配置된다는 것을 前提로 하고 있다. 駐韓美地上軍의 撤收問題가 當분간은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보나, 이제 美海兵 第3師團이 事前 配置軍의 役割을 遂行토록 하기 위한 印度洋으로 移轉하는 問題가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現 位置에서 「페르샤」灣에 轉換配置하려면 7,000「마일」 이상이나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디에고, 갈사」보다도 「페르샤」灣에 300~700「마일」이나 더 가까운 곳에 있는 「말디브스」(Maldives) 島를 開發하여 여기에 第3師團을 옮기게 되면 복잡한 緊急配置軍의 指揮權關係도 해소되고 「페르샤」灣

에 대한 安保公約을 確固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 점은 한 때 英國이 飛行基地로 使用된 적이 있는데 現在 國民所得 135「달러」의 이 未開發 섬나라는 蘇聯에게 基地를 대여해 줌으로써 經濟的인 利益을 疎略하는 속셈이 보이고 있으므로 美國으로서는 蘇聯에게 機先을 制壓當하지 않게 서둘러야 할 것 같다.

그러나 美國은 이곳으로 美海兵第3師團을 移轉시키는데는 最小限度 20億「달러」 以上の 費用이 所要될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友邦들에 대한 安保公約의 信賴性에 逆機能을 주게 되는 政治的 考慮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一部 論者들은 美海兵隊의 役割을 日本 陸上自衛隊가 有事時 擔當하도록 하는 代案을 提示하고 있으나, 日本은 憲法에 海外派兵이 禁止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韓日間의 해묵은 民族感情이 이를 容納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와인버그」 國防長官은 이러한 當面問題들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62億「달러」를 投資하여 緊急配置軍을 위한 海上 및 空中輸送手段確保와 「페르샤」灣 隣近에 海外基地를 획득, 擴充補強할 計劃을 提示하고 있다.

이들 海外基地는 「오만」(Oman)의 「롬바사」(Mombasa), 英領 「디에고갈사」島, 「소마리아」의 「바바라」(Barbra) 등에

建設 또는 擴張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다에고잔사」에 B-52爆擊機를 收容할 수 있는 활주로의 建設이 英國政府와 合意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라. 戰略空輸(Strategic air Lift) 및 持久力(Staying Power)問題

「닉슨, 푸트린」發表 以後 美國의 海外展開兵力이 大學 本國으로 撤收하게 될과 同時 美國은 有事時 盟邦에 대한 防衛公約을 지키기 爲해서는 戰略空輸能力을 획기적으로 補強하여 適期에 戰場에 美國의 支援勢力이 投入될 수 있도록 對備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하여 「카터」行政府에서는 大型民用「제트」機를 軍用으로 改造하여 給油 및 貨物航空機(Tanker/Cargo Aircraft)로 「使用코자 Kc-10 (DC-10의 變型) 60臺를 臺當 1,000萬「달러」로 發注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미 그 중에 12대를 1981會計年度에 導入하였는데, 지난해 年末에 특별한 理由없이 이 計劃을 갑자기 취소하고 新型 超大型輸送機 C-X를 開發토록 計劃을 바꿔 110억「달러」의 豫算을 策定하였다. Kc-10機는 發注後 17個月 만에 導入이 可能하나, C-X機는 7年 後에야 開發이 끝나는데, 當面한 中東事態가 언제 惡化될

지 모르는 차체에 7年 後까지 戰略空輸能力補強에 능장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批判이 높다. 勿論 C-X는 Kc-10이 탑재할 수 없는 重戰車와 155「밀리」砲를 포함한 師團의 全裝備를 탑재할 수 있는 利點은 있으나, Kc-10도 現在의 Kc-135에 比한다면 越等한 能力을 갖고 있다. 1979年에 美國이 12臺의 非武装 F-15機와 205名의 兵力 그리고 115「톤」의 裝備를 「사우더 아라비아」로 2일에 걸쳐 移動시킨바 있는데, 그 當時 C-141輸送機 3臺, C-5輸送機 2대 그리고 16臺의 Kc-135 給油機가 動員됐고, 「스페인」에 中間基地(Staging Base)를 必要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程度의 戰略空輸移動은 6대의 Kc-10으로 하루만에 海外基地가 없어도 充分히 可能하고, C-141이나 C-5 등 輸送機의 支援없이도 60萬「갈런」의 航空油를 節約하면서 遂行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戰略空輸手段이 갖춰질 때, 空抵師團의 경우 受命後 48時間內 1個大隊(約 800名)가, 72時間內에 1個旅團(約 3,000名)이 「페르샤」灣에 投入될 수 있으며, 地中海上에 떠있는 海兵大隊 上陸團(BLT 約 1,500名)은 2~3日內에 海上投入이 可能하고, 「오케나와」의 美海兵第3師團은 3週內에 海上移動하여 現地에 到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들 緊急配置軍이 早期에 「페

르사(灣)에 投入上陸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持久力이 지극히 의심스럽다. 空挺師團이나 空中機動師團 共히 輕裝備로 武裝되어 있으므로 戰車와 重野砲로 裝備된 機械화된 蘇聯地上軍과 比하면 火力이나 兵力面에서 10:1로 劣勢한 立場이다. 단지 이들은 對蘇 攻堅戰을 遂行할 수 있을 程度이다. 美海兵師團 역시 2次大戰 以後 계속하여 太平洋戰區에서 機械化되지 않은 輕步兵部隊들과 戰鬪하였으며 陸軍步兵師團이나 機械化師團에 比해 엄청나게 劣勢한 裝備로 編成되어 있기 때문에, 中東地域에 投入 예상되는 蘇聯의 機械化部隊와 匹敵할 수 있는 程度는 못된다. 따라서 이들의 持久力은 상당히 制限當하게 될 것으로 본다.

3. 海 · 空軍力 重點 增強努力

가. 海軍力

「레이건」行政府의 軍事力 發展計劃에 있어 가장 關切할 만한 것은 465隻의 現存艦艇勢力에서 600隻規模의 艦艇勢力으로 擴張하는 大役事이다. 當年 38歲의 「레만」(John F. Lehman) 新任 海軍長官은 海軍의 野望에 찬 新戰略을 提示하였다.

그는 12隻의 現有 航母를 15隻 水準으로 增強함으로써 蘇聯艦艇을 沿岸에 다 固着시키도록 할 수 있다고 強調한다. 1982년까지 新造, 改造, 再就役等 合해 모두 33隻의 艦艇을 進水시킬 所要 豫算을 要求한 바 있는데, 이 속에는 20億「달러」가 所要되는 이미 着工한 「니미츠」(Nimitz)級 核航母의 追加費用에 7,500萬「달러」, 韓國戰爭 後 退役한 航母 「오리스켄이」(Oriskany)號의 再就役을 爲한 修理費 5억 1천만「달러」, 第2次大戰 時 威容을 떨친 戰艦 「뉴저지」(New Jersey)號 및 「아이오와」號를 再就役시키는데 必要한 3억 4천만「달러」, 그리고 15隻의 超大型 輸送船(Roll on/Roll off) 建造를 비롯한 向後 2年間의 建艦豫算 追加所要에 42억「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같은 要求가 어느 程度로 反映될 것인지는 未知數이나 600隻 規模의 艦艇勢力은 美國이 이미 印度洋에 상당규모의 艦艇을 常駐시키고 있는 以上, 平時에 兩大洋을 統制하는 任務로 바뀌고 있으므로 戰略과 戰力の 容納性을 保障하기 爲해서도 必須不可缺한 것이다.

現在 3大洋에 配備된 主要 艦艇勢力은 다음과 같다. 西太平洋의 7艦隊 勢力의 大部分이 印度洋으로 轉換配置된데 대하여 우리는 注意를 환기시키게 된다.

3大洋의 艦艇勢力 現況

太 平 洋	大 西 洋	印 度 洋
第 7 艦 隊	第 6 艦 隊	印度洋 艦隊(臨時)
航 母 : 1 大型水上艦 : 6	航 母 : 1 大型水上艦 : 13	航 母 : 2 大型水上艦 : 14
第 3 艦 隊	第 2 艦 隊	
航 母 : 4 大型水上艦 : 65 潛水艦 : 46	航 母 : 4 大型水上艦 : 42 潛水艦 : 87	

(News Week, March 10, 1981, p.30.)

그리고 새로이 就役하게 될 이들 戰艦에 巡航誘導彈을 裝着하여 太平洋과 大西洋의 2個 前方 航母機動打擊部隊에 호위하므로 配置할 計劃으로 있다.

그러나 그동안 海軍力을 지나치게 위축시킨 結果, 造船業界의 建艦能力이 감소되어 이와 같은 大量發注를 감당할 能力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戰略潛水艦體制로서의 「트라이던트」(Trident) 潛水艦도 이미 計劃보다 2年以上 進水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因해 예산이 2億 2천만「달러」나 追加 支出되어야 할 立場이다.

또한 이들 600隻規模의 艦艇을 運用하

려면 2만명의 技術下士官이 더 必要한데 그 確保策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中역지책의 하나로 平時에는 交通省에 속해 있는 海岸警備隊(Coast Guard)를 戰力化하여 戰時에 第5軍으로서 海軍作戰을 補助하도록 하는 計劃도 推進되고 있다. 事實 美海岸警備隊는 世界 第9位의 막강한 艦艇勢力을 가진 海軍力의 位置를 占하고 있기 때문에 平時에는 가까운 「가리브」海의 海上統制를 海岸警備隊에게 맡기고 그 海上勢力을 危機地域近海로 轉換配置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나. 空軍力

空軍의 當面問題는 緊急配置軍을 위한 戰略空輸能力의 擴大에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카터」行政府에서는 超大型輸送機 C-X를 開發하여 師團級의 重裝備을 全量 空輸할 前提下에 이를 開發하는데만 무려 2억5천만「달러」를 策定했으며, 220대를 導入하는데 1,100억「달러」가 所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緊急配置軍의 空輸移動을 保障할 수는 없기 때문에 一部 重裝備의 事前 配置가 不可避한 것이다. 緊急配置軍을 위한 輸送能力을 增大시키고자 美空軍은 C-X의 開發과 더불어 Kc-10機의 追加導入, C-141機를 C-141B型으로 改造, 그리고 Kc-135機의 「엔진」 交替 등을 爲해 8억 8천만「달러」를 要求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의 主要事業은 MX彈道彈體制 開發이다. 增大되어 가는 蘇聯의 戰略核戰力에 依한 地上基地彈道彈의 脆弱性을

改善코자 1980年代 中盤에 配備하게 될 移動式 大陸間彈道彈體制인 MX는 「유타」(Utha)州와 「네바다」(Nevada)州 一帶에 廣範圍하게 地下坑道를 設置해야 하는데, 이는 곧 核標的이 되기 때문에 이 地域住民들의 심각한 反對에 부딪치고 있다. 그래서 大陸間彈道彈의 海上基地化로 生存性을 高揚하고 地上에서 核標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代案으로 M-X代身에 320基의 「토마호크」(Tomahawk) 巡航誘導彈(Cruise Missile)을 再就航하게 될 戰艦에 탑재하여 1,500「마일」 射程圈內에 配備하려는 計劃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카터」行政府에서 生産이 留保된 B-1 爆擊機와 FB-111爆擊機의 生産再開과 더불어 隱密침투항공기(Stealth Aircraft)의 研究開發이 進行되고 있다. 또한 空中警報統制體制(AWACS)를 위한 E-3A航空機 39대를 追加導入하는 것을 포함하여 1982년까지 212대의 航空機를 新規 調達할 計劃을 推進하고 있다.



기. 崔

特輯 · 生存과 繁榮의 길

世界經濟의 變化와 韓國經濟

오늘의 不況은 景氣변동의 일시적
인 현상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不均
衡된 경제 構造의 變化에서 발생한
상황이다.

1. 어려워진 經濟事情

62년부터 78년까지 우리는 10% 이상의
높은 經濟成長을 기록하여 開發途上國에
서 모범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로
꼽혔으나 80년에는 5.7%나 負의 成長을
했다. 또한 物價는 79년에 18.8%, 80년
에 38.9%나 올랐고 經常國際收支는 79
년에 42억 달러, 80년에는 57억 달러의 赤
字를 기록했다.

이와같은 경제사정은 크게 세계경제사
정의 변화와 국내경제사정의 변화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79년
의 제2차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가 低成
長과 高物價에 시달리게 되었고 우리나라
라는 經濟構造의 전환기에 있으면서, 한
편 10·26사태 이후의 政治·社會의 불안
과 농작물의 凶作 등 여러 요인이 겹쳤
던 것이다.

이 같은 먼저 石油波動 이후 세계경제
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살피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를 생각하겠다.

李 滿 基

△漢陽大 經營大學院長▽

이에 앞서 현재의 국내의 경제사정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이라는 점을 설명해야 할 것 같다. 일시적인 것은 어떤 豫期치 못한 일이나 다른 사정 때문에 景氣가 침체된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經濟의 흐름이 순조롭게 이루어 지도록 막힌 것을 터 놓으면 해결된다. 보통 景氣浮揚策이란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에 비하여 經濟의 構造가 근본적으로 不均衡되어 모든 경제활동이 순조롭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더 큰 노력이 따라야 한다.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石油波動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변화와 우리나라 경제 자체의 변화는 모두 經濟構造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일시적인 景氣對策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작년의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해 보자. 작년에는 輸出이 잘 안 되고 生産도 위축되고 돈이 잘 들지 않고, 위적이 힘들고 物價가 크게 올라서 모든 국민생활과 企業活動이 어려웠다. 경제활동의 종합지표인 경기예고지표가 80년 5월부터 10월까지 0.4로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11월에 0.5, 12월에 0.6으로 약간 고개를 들었으나 아직도 깊은 不況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보통 때 같으면 이 지표가 1.0 이하로

내려가면 경기부양책을 실시해야 하는데 0.4까지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지 못했고 아직도 마음껏 경기부양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경기도 나쁘지만 한편 物價가 무려 38.9%나 올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높은 物價上昇을 보인 까닭이다. 다시 말하면 景氣는 최저수준인데 物價上昇은 최고 수준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경기부양책을 쓰기가 곤란하다. 경기부양책이란 돈을 뿌리는 방법 밖에 없는데 돈을 뿌리면 物價는 더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실시해야 하는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긴축을 계속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어렵다. 말하자면 긴축과 완화의 相反된 政策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고심만 할 뿐이고, 이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다.

더욱이 어려운 것은, 설사 긴축을 해도 物價가 쉽게 安定되지 않으며, 경기부양을 시키려 해도 경기는 잘 회복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경기변동의 현상이 아니고 경제구조의 변화에서 발생된 현상이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와 不況이 겹친 것은 石油波動 이후 세계 각국의 공통된 현상인데 이는 석유波動이 각국의 경제구조를 뒤흔들어 놓은 까닭

이다.

또한 나라에 따라 인플레이와不況의 크기가 다른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심한 편이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經濟構造가 한층 더 不均衡에 ick면한 까닭이라고 볼 수 있다.

2. 石油波動이 가져 온 것

石油波動은 앞서 말한대로 세계경제의 構造를 變化시켰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수지와 경제사정의 불균형을 확대시켰다. 개발도상국은 말할 것 없고 과거 자본이 풍족했던 先進國(OECD 加盟國)들도 막대한 국제수지적자로 인해 자본부족상태에 직면하고 오직 產油國만 자금여유국이 되었다. OECD는 61년에 經濟協力, 즉 돈을 꾸어주기 위한 기구로 생긴 것이며 여기에 가맹한 나라는 국제수지흑자가 계속되고 돈이 많은 나라들이다. 그런데 이들도 석유파동이후 국제수지의 막대한 적자로 인해 돈이 부족해진 것이다. 1차 파동 때도 그러했지만 79년 파동 이후 78년에는 90억 달러의 흑자를 보였던 OECD그룹이 79년에는 3백 55억 달러의 赤字로 바뀌고 80년에는 7백35억 달러로 더욱 커졌다. 개발

도상국은 78년 2백25억 달러로 적자가 커졌다.

이와같이 產油國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국제수지적자로 인해 資本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긴축정책을 쓰게 되고 이는 세계무역의 위축과 세계경제 전반적인 不況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었다.

둘째, 석유소비국은 높은 원가상승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었다. 79년과 80년에 OECD그룹은 소비자물가가 9.9%와 13.1%로 오르고, 개발도상국은 32.1%와 41.1%로 크게 상승되어 경제불안을 일으켰다. OECD그룹은 과거 60년부터 73년까지에는 연평균 3.8% 밖에 오르지 않았던 物價가 10%를 넘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고, 開發國도 30~40%를 넘긴 일은 없었다.

세째로 앞에서 잠깐 말했듯이 세계 각국은 국제수지가 악화되자 輸入을 억제하기 위한 保護貿易정책을 쓰게 되고 서로 輸出하기가 어려워져서 세계무역량이 감소되었다.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쓰게 되므로 국내 경기도 나빠질 수 밖에 없다. 더우기 경기는 나쁜데 物價는 크게 올라 국민들의 실질구매력이 감소되어 생산물을 살 수 없으므로 불경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리

하여 79년과 80년에 경제성장률은 OECD 그룹은 3.3%, 1.0%로 저하되고 개발도상국은 4.7%, 4.1%로 低速成長을 했다. 또한 OECD그룹의 실업률은 5.1%와 5.7%로 늘어났다.

우리나라도 앞서 지적한 대로 높은 인플레이와 깊은 不況을 보였는데 閉途國의 평균수준보다 物價는 약간 낮으나 成長은 훨씬 더 위축되었다. 우리나라는 成長이 輸出에 크게 의존되는데 수출이 크게 위축되었고, 한편 농사가 잘 안 되는 등의 원인 때문이다.

우리나라 원유도입액은 73년에는 3억 달러도 못되던 것이 79년에는 31억 달러, 80년에는 60억 달러로 늘어났다. 이는 物量이 그만큼 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원유가격이 높아진 까닭이다. 80년에 치른 60억 달러의 原油導入代金は 그 해의 국민총생산율 약 6백억 달러로 보면 그 10%에 해당되는 막대한 돈이며 수출총액 1백75억 달러의 3분의 1이 넘는 돈이다.

또한 석유파동 후 각국의 자금사정이 나빠져서 국제금리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외자도입 의존이 많은 우리나라는 금리의 부담도 커졌다. 80년 4월 3일 美國의 대출우대금리(프라임 레이트)는 史上 최고수준인 20%를 기록했고, 英國의 最低貸出金利도 79년 11월에 사상 최고인 17%를 기록했으며 국제금융시장의

유도 달리는 80년 4월초 사상 최고인 20.25%를 기록한 후 12월 11일에 21.94%로 다시 기록을 경신했다.

이처럼 국제금리가 높아지는데 우리는 경상수지적자가 커지므로 높은 利子를 주고 점점 더 많은 外資를 빌어야 하며 이것이 또한 經常收支에 압박을 주는 것이다.

그동안 1차 파동 후에는 中東건설 진출로 용역수입이 크게 늘어 77, 78년까지는 무역의 수지가 2~3억 달러의 黑字를 기록하여 무역적자를 보완했으나 79, 80년에는 무역의 수지도 2억, 14억 달러의 赤字로 전환되었다. 이는 높은 金利負擔 때문에 貿易外支出이 커진 까닭이다.

이와같이 石油波動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성장의 정체, 國際收支적자의 확대 등 어려움을 가져왔고 이는 동시에 해결할 수 없는 과제여서 점차 長期化되고 있다. 과거에는 경기가 나쁘면 浮揚策으로 해결하고 인플레이션이나 국제수지적자는 긴축정책으로 타개하였는데 이제는 서로가 상반된 정책수단을 요구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조절하기도 어렵고 각각 어느 하나만을 타개하려 해도 좀처럼 극복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3. 供給의 經濟學

이제는 개발도상국은 말할 것도 없게

니와 선진국에 있어서도 자원부족분 만큼 源泉이 빈약해졌으므로 원천의 개발 또는 저수지의 보수공사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73년 석유파동 전에 원유가격이 배럴당 3달러였던 것이 1차파동 후 74년 초까지 10달러 이상이나 되었고 그 후에도 매년 10~20%씩 올라오다가 79년에 다시 2배 이상 올려서 81년 현재 OPEC 告示價格이 32달러나 되고 現物市場價格은 40달러 이상으로 뛰어 결국 1차파동 전에 비해 불과 7~8년만에 10배 이상이 되었고, 60년대초의 1달러 20센트에 비하면 30배 이상으로 오른 것이다.

이처럼 油價가 오른 것을 보충하려는 生産活動에 있어서 자본과 노동과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기술을 더욱 향상시켜서 생산요소의 총 投入에 대한 產出量, 즉 생산성을 높여야만 하는 것이다. 「레이진」행정부가 「供給의 經濟學」이란 말을 하게 된 것은 이와같은 배경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표현하면 「源泉의 經濟學」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石油波動 후 세계 각국에 있어 어느 나라가 生産性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경제의 안정을 좌우하고 있다. 석유파동 전인 60년부터 73년까지 물가상승률이 3.1%에 불과했던 美國에 있어 79년과 80년에는 11.3%와

13.5%나 크게 오르고 英國, 「프랑스」, 「이탈리아」 등도 美國 못지 않게 올랐는데 이에 비하여 西獨은 79년에 4.1%, 80년에 5.5% 밖에 오르지 않았으며 日本도 3.6%와 8.2% 밖에 오르지 않았다.

이들 두 나라는 한편 消費의 절약이 더욱 큰데에도 원인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生産성이 크게 향상된 까닭이다.

日本의 경우 79년에 勞動生産性이 13.5%나 상승되어 석유가 인상에 의한 原價上昇 요인을 相計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日本은 노동생산성이 13.5% 상승되었으나 임금상승률은 7.4%로서 그 격차인 6.1% 포인트만큼 物價하락요인을 조성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生産性이 賃金を 상회하지 못한 다른 나라에 비해 그만큼 物價를 싸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企業은 1인당 생산량이 13.5% 늘었는데 1인당 賃金は 7.4% 올랐으므로 6.1%만큼 더 싸게 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원가가 오르면 싸게 팔지는 못하며라도 그만큼 덜 비싸게 팔 수 있는 것이다.

만일 生産性이 임금을 상회하지 못했으면 日本도 3.6%의 소비자 물가상승보다 적어도 6.1% 포인트만큼 더 높은 9.7%의 상승률을 기록했을 것이다.

貯水池의 물은 생산물을 생산할 밀컨

인 資源과 資本(機械設備)과 勞動을 의미한다. 資源값이 오른만큼 단위비용당 생산량이 감소되므로 資本과 勞動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技術을 개발하여 단위비용당 생산량, 즉 생산성을 높여서 이를 보충해야 하는데 日本이 이를 實證한 셈이다.

그러므로 日本經濟는 80년대에 들어 세계 각국으로부터 再照明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2차 석유파동 후 OECD 각국이 모두 고전하는데 資源不足國인 日本은 어떻게 해서 번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美國·英國·「프랑스」등의 선진공업국들의 시찰단이 日本의 중소기업에게까지 줄을 잇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는 물론이며 컬러 TV, VTR, 전자계산기 등의 각종 電子産業에서 日本에게 추월을 당하고 있는 미국이 80년 6월 24일 밤 NBC방송에서 「日本이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하는가」(If Japanese Can Why Cannot We)라는 1시간 반짜리 프로그램을 끝드아워에 방영했다(우리나라에서도 10월 8일 TBC에서 번역 방영).

콜롬비아 왕복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운항하고 모든 면에서 세계 제1을 자랑하는 美國이 世界商品市場에서 日本 商品에게 밀려나게 되었음은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美國이 日本에게 뒤진 이들 부문은 주로 生産性 向上에 있어 뒤떨어진 까닭이었다. 低油價時代에는 자본 풍부한 美國이 무엇이든 튼튼하고 모양있게 잘 만들면 되었으나 高油價時代에는 자동차나 전자제품에 있어 資源을 절약하고 값싸게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生産性 向上이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이다.

美國이 日本에게 생산성 향상에 뒤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日本人만이 生産性을 올리는 비결을 알기 때문인가. 그 放映內容에 의하면 생산성 향상의 비결은 日本人이 아니라 미국의 경영학자 「테밍」이 제시한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통계학자인 동시에 경영학을 연구하였고 生産管理面에서 不良品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통계적으로 연구하여 이를 적용시키도록 제안하였던 것이다. 그에 의하면 「不合格品을 사후에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보다는 사전에 불량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美國은 지난날 資源 풍부하고 資本이 많아 모든 면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생각하여 자기 나라 學者의 이러한 제안에 무관심하였으나 資源 부족한 日本은 항상 외국의 동향을 살피고 무엇

이든 필요하면 제빨리 도입하여 실천하는 까닭에 이번에도 美國 經濟학자의 이론을 도입하여 생산증업원에게까지 교육시켜서 生産性을 높일 수 있었다는 것이 그 放映의 내용이었다.

4. 貯蓄의 美德

1930년 세계 대공황 이후 60년대까지 美國에서는 消費가 美德이라는 「케인즈」 經濟學(Keynesian Economics)이 지배해 왔다.

앞서 말한 대로 資源이 풍부하고 돈이 많아 저수지에 물이 차고 넘치는 美國에서는 需要의 부족이 이를 가로막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다.

어떤 物件이든 팔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생산해 낼 수 있었다. 그러므로 企業은 生産物을 팔기 위해 長期月賦로 판매하였으며 따라서 美國의 勤勞者들은 정년퇴직할 때까지 월부금을 내다가 봉급생활을 끝마친다고 했다. 住宅월부·自動車월부·TV월부.....무엇이든지 월부로 살 수 있다. 봉급생활자가 월부로 사는 것은 장래의 수입까지 미리 써버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만큼 所得에 대한 消費의 비율, 즉 消費性向을 높게 만든다.

그들은 풍부한 자원과 돈으로 좋은 物件을 많이 만들고 많이 소비하여 풍요한

사회를 구가했던 것이다. 은행에서도 평소에 대출보다 예금이 많기 때문에 대출권유를 해야 했으며 총 대출의 3분의 1가량을 소비자금으로 대출하였다.

이것은 소비를 조장하는데 기여했으며 그만큼 소비가 생산을 유발시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美國에서도 70년대 石油波動이후는 사정이 바뀌었다. 기름값이 비싸지고 賃금이 오르게 되었으므로 기업의 생산자금이 더 필요해진 것이다. 그리하여 은행에 대출을 요구하는 금액이 급격히 늘어났다. 또한 종래의 예금자들은 경기는 좋지 않는데 물가가 오르면 생활비가 더 들게 되어 자금여유가 적어졌으므로 예금이 감소되었다. 그리하여 美國의 은행들도 이제는 예금이 부족하고 대출수요가 커졌기 때문에 예금권유에 부심하게 되었다.

79년 5월 타임誌에는 美國의 은행들이 일일액 이상의 고액예금자들에게는 고급승용차를 보너스로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그만큼의 예금을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 일반 소액예금자들을 위해 점포마다 그랜드 피아노를 갖다 놓고 연주를 하였는데 사람들은 피아노 연주만 듣다가 그대로 가버렸다는 기사가 실렸었다.

消費를 권장했던 사회에서 갑자기 貯蓄을 권장하는 것은 그만큼 힘든 것이라

고 생각된다.

하물며 언제나 자본이 부족했던 우리 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저축이 더욱 더 강조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평소에 돈이 많은 나라인 OECD國家들 중에서 석유파동 후에도 계속 물가가 안정된 나라는 저축률이 높은 나라이며 그렇지 않은 나라는 경제가 불안정한 것이 나타나고 있다. 79년과 80년에 美國은 物價가 11.3%, 13.5% 상승되었고 실업률은 5.8%, 7.2%나 되었으며 英國은 物價가 13.4%, 18.2% 상승되었고 실업률은 5.8%, 6.5%를 기록하였는데, 이에 비해 西獨은 物價가 4.1%, 5.5% 상승되고 실업률은 3.2%, 3.5%였으며, 日本은 物價가 3.6%, 8.2% 상승되었고 실업률은 2.1%와 2.0%에 불과하였다. 이와같이 美國과 英國은 인플레이션율과 失業率이 높는데 비해 西獨과 日本은 다 같이 低率이다. 그런데 이들 각국의 71~77년 평균 저축률을 보면 美國은 18.5%, 英國은 19.1%로 低率이고 西獨은 26.4%, 日本은 36.0%로 高率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평소에 저축률이 높은 나라는 石油價格 상승 후에도 경제안정을 지속할 수 있었고, 평소에 貯蓄率이 낮은 나라는 石油波動 후 경제가 불안정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石油波動으로 저수지의 물이 빠진만큼

높은 貯蓄率에 의해 보충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원가상승을 보완할 수 있으나 消費가 많으면 흐름을 확대시켜서 물은 더 빠지게 하므로 物價가 더 오른다고 보아야 한다.

거듭 말하거니와 美國의 경우 60년대까지만 해도 消費가 美總이었고 71~77년에도 貯蓄率에 비해 투자율이 약간 低率이므로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나 79년 2차 파동 이후부터 資金의 부족함이 느껴지고 貯蓄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생각된다. 美國은 과거 소비를 권장했기 때문에 他國보다 貯蓄率이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英國은 과거에 지나친 社會保障 때문에 저축률이 낮다고 생각한다. 自由主義國家 중에서 사회보장이 가장 발달된 나라가 英國이다. 이들은 실업과 질병과 노후의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주기 때문에 개인이 별도로 저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과도한 사회보장을 위한 부담 때문에 철도, 도로, 항만,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에 차질을 빚고 그만큼 企業의 직접 생산비율 높게 하고 전체적인 경제발전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비하여 西獨은 평소에 김소하고 절약하여 높은 貯蓄率을 실현시켰고 日

본도 역시 그러했다.

5. X·Y理論과 Z理論

81년 3월 12일 字 조선일보는 日本의 生産性 向上에 관한 선진국들의 관심사를 소개하면서 日本 經營의 특징을 토대로 한 새로운 經營理論에 대해 언급했다.

美 「캘리포니아」州立大(UCLA)의 경영학교수인 「오우찌」(日本系美國人)는 종래 피고용자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科學的 經營方式인 Y理論이 지배적이었으나 피고용자를 企業에 종속시켜야 한다는 Z理論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勞使 관계는 여러 각도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生産에 있어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해 X理論·Y理論의 두 개의 입장이 있었던 것 같다.

전자는 企業主가 勞動者를 불신하고 生産效率를 위해 감시와 강요를 하는데 비해 후자는 합리적인 分業體系와 과학적 관리방법을 도입하고 자율적인 작업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능률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日本企業은 ① 終身고용제 ② 느린 昇進制 ③ 非分業化 ④ 集團意思決定 등의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企業모델이 生産性을 더 높이고 있다는 것이 Z理論의 입장이다. 生産을 지시하

고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는 경우는 後進國이나 공산권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共產圈은 市場經濟가 아니고 命令經濟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영방식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蘇聯에서도 65년 제5차 全黨大會 때 소수의 少壯數理經濟學者들이 인센티브(誘因)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 후 열심히 일하면 보너스를 주는 등 부분적인 제도변화가 있었다.

경쟁원리에 의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分業과 교환을 통해 효율적인 生産을 할 수 있고 과학적인 경영관리와 자율적인 작업이 더 능률적이라고 믿고 있다. 인센티브란 열심히 일하고 능력이 있으면 빠른 승진이 이루어지고 勞動組合과 사용자는 계약에 의해 작업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日本은 家父長的인 企業主와 勞動者 간에 가족과 같은 유대가 형성되며 유기적인 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다. 한편 西獨의 경우는 共同決定法에 의해 勞使가 같이 경영에 참가하고 서로 의논하는 것이므로 勞使는 다같이 企業에 있어 同伴者(파트너)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 두 나라의 生産性이 높은 것은 이러한 유기적인 勞使關係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기업주가 勞動者를 지배하는, 특히 공

산국가에 있어 企業主는 정부당국자이므로 中央當局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體制는 魚(다이너스)의 인센티브體制라 할 수 있다. 이는 「네가 나에게 내가 바라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내가 바라지 않는 일(페널티)을 하겠다」라는 말로 표현된다.

국민은 바라지 않는 일을 면하기 위해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계약에 의한 노사관계는 서로가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노동자는 그가 원하는 임금을 요구하고, 기업은 그가 원하는 勞動生産性을 요구한다. 이는 「네가 나에게 내가 바라는 일을 하면 나도 너에게 내가 바라는 일을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다. 바라는 일을 얻는 것이. 正의 인센티브인 것이다.

그러나 유기적 관계는 「너와 나는 같은 목적의 관계이므로 너는 나를 위해 나는 너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같은 家族 같은 同伴者의 관계인 것이다. 勞動者와 企業主는 모두 企業에 참여하고 다 같이 企業과 운명을 같이 해야 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명령이나 보너스보다도 적극적인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Z理論이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有機的關係는 기업뿐 아니라 모든 社會組織과 국가에 있어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많은 일을 필요로 하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으므로 정부와 국민이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며 企業도 그러했으면 좋겠다.

현실에 있어서 우리의 기업들은 어떤 모델에 속할 것인가. 女子從業員을 밀지 못해 몸수색까지 하는 일부 업체는 Z理論이 아니라 X이론의 사례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

젊은 사장과 젊은 重役들이 지배하는 빠른 승진제도는 Y이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생산종사자나 기술직보다 사무종사자나 관리직이 빠른 승진을 하는 二元의 인사제도는 어느 사례라고 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유기적 관계의 형성에는 아직도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Y이론인 모델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이 많지 않은가 걱정된다.

승진이 성실한 노력의 댓가(Y理論)보다도 승진한 뒤에 남을 지배(X理論)하는 매력 때문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진하려 함으로써 오히려 人和를 해치고 생산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된다.

최근 청탁배제운동이 생기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나쁜 것의 배제가 반드시 합리적이고 유기적인 좋은 것을 가져온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는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유기적인 좋은 제도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실현될 것으로 본다.

特輯 · 生存과 繁榮의 길

市民意識과 公共秩序



池
龍
雨

△京鄉新聞論說委員▽

라인강의 奇蹟을 이룩한 西獨 국민이 戰後 焦土化된 폐허 속에서도 糧배급의 차례를 기다리는 긴 줄서기의 질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참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I. 새 時代의 條件

남은 思考, 문란한 秩序의 추방이 先行되지 않은 새 時代의 전개란 사실상 無意味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게 된 가장 보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價値觀이 뒤바뀌었던 舊시대적 思考와 무질서의 痼疾로부터 헤어나 正直과 질서가 존중되는 정의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도 있듯이 정의로운 새 시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새로운 작오 아래 意識의 革命, 意識構造의 大改革을 단행하는 수 밖에 없다고 믿는다. 그 중에서도 질서의식의 확립, 질서의 존중은 으뜸가는 새 시대의 조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질서가 어지러운 사회치고 번영된 사회는 일찌기 없었다. 로마·바빌론·중국의 秦나라 등 歷史上 화려한 榮華를

누렸던 대국들이 끝내는 무질서와 향락·방종이 극에 달해 멸망을 자초했다. 반대로 오늘날 잘 사는 先進國치고 질서가 어지러운 나라는 없다.

한 나라의 文化水準의 尺度는 질서의 식수준과 비례한다는 말이 있다. 그것은 多衆이 붐비는 자리일수록 아무리 바쁘더라도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릴 줄 아는 조그마한 행동에서부터 판가름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 視角에서 볼 때 우리 국민은 솔직히 말해서 질서의식이 크게 빈약한 국민이라는 점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을 다녀간 한 英國의 학자가 한 국민을 몰아서 지칭하기를 「러싱 피플」(突進型국민)이라는 표현을 그의 紀行文 속에 썼던 일이 생각난다. 그가 서울의 변화가에서 보니 버스를 탈 때나 택시를 잡을 때나 거의 예외없이 단거리 선수나 럭비·축구선수들 마냥 맹렬히 돌진하더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도시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습관화 되다시피 한 이같은 乘車중경이 異國人들의 눈에 것처럼 비쳤다면 결코 예사로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 異邦人이 구청의 民願窓口·連休·歸省시존의 고속버스터미널, 人氣프로를 상영하는 劇場街의 새치기 및 暗票행위 등을 목격했다면 또 어떻게 묘사했을까. 물론 질서를

지키는 일에 남을 의식할 필요는 없다. 道德적으로 성숙한 文化시민이라면 누구 한 사람 보느이가 없는 곳에서도 스스로 교통신호를 규정대로 지키고, 대로상에 담배꽂초를 버리는 일을 삼가고, 침을 뱉는 일 따위는 더더구나 삼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기초적인 질서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시민적 良識을 의심케 할 무질서가 아직도 예사로 횡행하고 있으니 딱한 일이다.

러시아워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한낮에도 정류장에 사람이 좀 많다 싶으면 저마다 먼저 타려고 밀치고 떠미는 혼란과 무질서가 판을 친다. 陸橋는 놔두고 위험한 차도로 무단횡단을 일삼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남이 잠은 택시에 먼저 올라타고 태어난 표정을 짓는 낮두꺼운 非文化人들도 수두룩한 판이다. 어디 그 뿐인가. 허술한 단속의 눈을 피해 사람들이 잠든 한 밤중에 시민들의 食水源인 강물로 有毒한 산업폐수를 마구 쏟아버리는 惡德기업주들도 허다하다. G·워르단은 社會革新의 필수적 조건으로서 국민의 勤勉性, 무철한 秩序意識, 正直性 등을 내세웠다. 슈펩글러도 「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의 발전 속도를 좌우하는 것은 物質的 여건이 아니라 국민의 意志力, 즉 人的 요소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이러한 論理의 타당성을 인정한다면 진정한 새 시대의 조건이 무엇인가는 너무도 自明한 일이다. 그것은 우리 마음 속에 모르는 사이에 자리잡은 일체의 舊時代的 思考 및 惰性, 惡習 등을 말끔히 몰아내고 대신 合理的인 思考로의 回歸를 뜻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시대의 특징이던 要領主義·適當主義·便宜主義에는 철퇴를 내리고 그 대신 지금까지 不義의 그늘에 가려 빛을 못보던 原理原則주의·公正無私·合理主義가 脚光받는 사회로 개조되어야 할 것이다.

II. 公共秩序의 참 概念

우리가 귀가 아프게 들먹이는 公共秩序란 반드시 법률조문처럼 명문화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집단생활을 하면서 서로간의 충돌·마찰을 피하고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 관습을 통해 정해 놓은 不文律같은 것이다.

그것은 「지키지 않는 소수」가 있을 경우, 「잘 지키는 다수」가 불쾌감을 느끼고 불편을 겪게 마련인 일종의 道德律이다. 질서가 잘 잡힌 사회나 국가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번영을 누리게 마련이다. 반대로 무질서한 사회나 국가

는 흥망이 무상하고 편안할 날이 없다. 그것은 비단 인간사회만이 아니라 하다 못해 微物인 벌레들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다. 질서정연한 群棲생활을 하는 벌들은 여왕蜂을 중심으로 一絲不亂하게 일함으로써 아무리 수효가 많아도 굶는 벌이 없고 公益을 즐긴다. 그리고 질서와 근면의 댓가로 꿀을 생산, 비축한다. 벌을 하찮은 微物이라고 알잡아 볼 수는 없다. 그처럼 열심히 일만 하다가도 그들 세계가 일단 침해당했을 때는 대단한 단결력과 鬪魂을 발휘, 공동의 敵에 대항하기 때문이다. 질서의 본능이 투철한 벌들의 생태를 통해 만물의 靈長임을 자처하는 우리 인간들은 배울 점이 많다.

따지고 보면 宇宙만물, 森羅萬象이 모두 질서를 떠나서는 한시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수억광년을 두고 떠돌고 있는 天體系는 어떤 不可思議한 힘에 의해 충돌없이 질서정연하게 운행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무한대한 세월을 그렇게 운행되어 갈 것이다. 만일 어느날 갑자기 우주의 운행질서가 흐트러져 천체들이 제멋대로 궤도를 벗어나고 逆行하고 지구가 다른 行星과 충돌한다면 그것은 역사의 영원한 종말을 뜻하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理致로 만일 우리 인간 사회에도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多數가 되는 顛倒된 사회를 한 번

상상해 보자. 거기에는 어김없이 걸잡을 수 없는 혼란과 파괴만이 존재할 것이며 마침내는 테러리스트들이 지배하는 무법 천지가 될 것이 뻔하다.

만일 도시의 자동차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고, 비행기가 관제탑의 통제를 무시하고 멋대로 이·착륙을 감행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 결과는 구내여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사실 그 술한 질서를 일일이 지켜야 한다는 것은 조금은 귀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것을 무시함으로써 초래될 엄청난 위험과 공동의 불이익을 생각한다면 서로가 인간적 양심에 따라 지키는 것이 至善인 것이다. 질서는 그 자체가 바로 순리요, 무질서는 逆理인 것이다. 逆理가 順理를 누르는 사회치고 잘되는 사회란 드물다. 설혹 일시적으로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손 치더라도 결코 오래 갈리는 만무하다. 그것은 마치 법을 어기고 저지른 범죄행위로 한때는 잘살지 몰라도 결국엔 법망에 걸려들어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나 비슷한 이치이다.

일찍기 後漢의 대학자 荀悅은 나라를 망치는 네 가지 병(四患)을 僞(거짓), 私(이기), 放(방종, 무질서), 奢(사치)로 꼽았다. 荀悅은 그 중에서도 특히「放」의 해독을 重視, 통치자나 백성들의 방종과

무질서가 國運을 기울게 하는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라고 했다. 이 가르침의 진리는 천수백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그릇됨이 없다.

사실 우리 韓國사회만 해도 해방 후 지금까지 36년이 넘도록 기회있을 때마다 질서준수의 當爲性만 입버릇처럼 강조되어 왔을 뿐, 단 한 번도 공공질서가 행동으로 존중되는 합리적인 사회를 享有해 본 일이 없다. 아니할 말로「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요령주의만이 발달, 약삭빠르고 수단좋은 사람들만이 줄곧 설치는 시술에 질서와 良心과 原理 原則 따위는 그늘 속에 가리워 햇빛을 볼 틈이 없었던게 부인 못할 사실이다. 가령 교통법규 위반을 밥먹듯 하며, 승객의 안전보다 수입을 올리는데만 血眼이 된 운전수, 위반차량을 적발하고도 몇 푼 賂物에 이를 눈감아주는 부패 경찰관, 육교는 아랑곳없이 차도로만 무단횡단하는 몰지각한 보행자 이른바「急行料」만 있어주면 차를 정직하게 기다리는 선량한 시민들을 제쳐놓고 먼저 민원서류를 꾸며주는 관공서 민원창구의 공무원 등등 열거하자면 한이 없다. 이처럼 뒤집힌 가치관 속에서 원리 원칙대로만 지키려는 시민들만 도리어 바보취급을 받기 일췌였다. 대체 무엇이 우리 한국인들로 하여금 그런 惡習과 弊風에 질게 물들게

하였던가. 흔히 한국인들은 질서의식이 쇠박하고 自律性이 약한 민족이라고 외국사람들에게 지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강제로 植民統治한 경험을 가진 日本人들은 우리의 國民性을 들먹여가며 自律性이 부족한 민족으로 惡意的으로 힐끗어 왔음은 우리가 다 뼈저리게 겪어 온 바와 같다.

Ⅲ. 東方의 禮儀 바른 나라

그러나 그런 論議는 적어도 긴 歷史的 眼目으로 볼 때 전혀 근거없는 오해요 暴論일 뿐이다. 우리 한 민족은 멀리 찬란한 文化를 꽃피운 新羅時代엔 花郎道의 정신기초이던 世俗五戒의 고결한 道德律이 숭상되었으며, 가까이 李朝시대만 하더라도 우리 선배나 官憲들은 부정부패를 치욕으로 알고 오히려 가난은 부끄럽지 않게 아는 安貧樂道의 사상이 투철했던 것이다. 물론 中央集權의 영향력이 오늘날처럼 나라의 구석구석까지 끌고루 미치지 어려웠던 시대라 양민을 등치는 貪官汚吏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수요가 국가 전체의 기강을 뒤 흔들만한 것은 못되었다. 사회의 位階질서만 해도 班·中·常 등 儒敎의 계통의 식에 따라 오히려 지나칠만큼 엄격하고

까다로운 것이었다. 같은 차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어른이 먼저하고 같은 어른일지라도 老人에게 먼저 양보해야 하는 長幼有序의 개념이 엄격하게 확립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따져볼 때 우리 민족이야말로 지구상 그 어느 민족보다도 예로부터 사회 도덕 규범과 질서에 잘 순응한 어진 민족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토록 질서의식과 倫理觀이 투철했던 민족이 어찌해서 오늘에 와서 그 반대의 측면으로 否定的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인가. 사회 도처에서 흔히 눈에 띄는 그 염치 모르는 反社會的 群衆들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들도 韓國人들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질서의식과는 거리가 먼 그 屈折의 한국인像은 전혀 生來의 인 것이 아니며 어두웠던 日帝治下로부터 해방 후의 혼란기와 6·25동란기를 거쳐 急激한 産業化 과정에 이르는 환경의 변화를 겪는 동안 不知不識간에 형성된 「제2의 국민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모든 惡習과 음에 뉘 惰性을 腦裡에서 뽑아 버리고 傳來의 소박한 민족성과 전통적인 윤리·도덕적 德目을 다시 발굴해 이를 새로운 價値觀과 조화시켜 밝고 맑고 바른 새 사회를 건설하는데 정신적 원동력으로 삼아야 하리라 믿는다.

새로운 사회는 새로운 질서를 요구한

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다. 가령 舊時代에는 돈있는 사람은 자녀교육을 위한 달에 몇십만원씩 하는 가정교사를 두거나 課外를 시켜도 무방했지만 세시대에는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다. 구시대에는 「물가인상이 없다」는 물가당국자의 담화가 나오면 소비자들은 이를 거꾸로 해석해 「곧 오르겠구나」하는 의심과 不信에서 買占을 일삼는 경향이 혼했으나 세시대에는 당국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국민이 信賴할 수 있는 정직하고 신용있는 정치를 해주어야 할 것임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學問의 전당인 美國 하버드대학 본판에는 「국민에게 法을 지키라고 강요하기에 앞서 그 법을 만든 사람 그리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먼저 이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명구가 쓰여 있다. 정치지도자나 관리나 국민이나를 막론하고 모두 정해진 법률과 질서 규범을 잘 지키고 어찌다 이를 어긴 사람들이 制裁받을 때 그 사회는 참으로 안정되고 평온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사회지도층이나 정치권력자들이 特權意識을 갖고 脫法을 일삼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자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무사할 수 있는 사회라면 그 사회의 前途란 뻔한 것일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70년대

의 高度成長과 西歐文明의 무비판 無選別한 수용으로 物質萬能의 그릇된 사회 환경이 만들어져 우리의 人間性을 파괴해 왔던게 사실이다. 모든 것은 정신적인 가치보다 物質爲主의 가치로만 따져서는 打算的 가치관이 팽배했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과된 새 時代의 課題는 物質萬能主義로 타락하고 때묻은 오늘의 사회환경을 다시 인정이 혼돈한 人本社會로 복귀시키는 일이어야 할 것이다. 正義社會는 휴머니티가 존중되는 人本社會이어야 한다. 人本社會는 동시에 倫理社會이어야 한다. 正義 자체가 倫理的인 개념을 밑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윤리사회는 그 강조점이 생활양식에 있어서 淸教徒의 사회를 뜻한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지난날의 封建的 倫理觀의 강요이다. 어디까지나 現代的 개념의 倫理觀이 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Ⅳ. 줄서기의 작은 秩序부터

秩序의 哲學에는 忍耐와 기다림이라는 두 요소가 절대적으로 중요시된다. 개인의 便宜보다 多衆의 公益이 優位에 있기 때문이다. 규칙대로 차례를 지키면 반드시 자신의 차례도 돌아온다는 평범

한 眞理를 국민 모두의 意識 속에 심어야 한다고 본다. 「나만 먼저 가면 그만」, 「나만 먼저 사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禁物이다. 교통질서 한 가지만 하더라도 해방 후 우리는 거의 해마다 年中행사처럼 「교통질서 강조기간」이니 「거리질서 확립기간」이다 혹은 「보행질서 단속기간」이다 등등을 설정하고 질서 확립운동을 벌여 왔다. 그러나 효과는 그때 잠시 뿐, 그 기간이 지나면 거리는 다시 無秩序로 되돌아 갔다. 그리하여 「團束과 違反」의 끝없는 슴바꼭질이 되풀이됐던 것이다. 자주국민으로서, 文化民族임을 자처하면서 아직까지 사회기강의 초보라 할 거리질서 하나 스스로 지킬 힘이 없대서야 부끄럽기 이룰데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거창한 질서는 그만 두고라도 「출서기」와 같은 작은 질서만 해도 그렇다. 출서기가 말로 모든 질서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출서기는 遵法精神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이다. 출을 잘 서는 사람들은 대체로 참을성이 있다. 따라서 출서기가 생활화되어 있는 선진국 국민들은 미래에 대해 안정된 기대감을 갖게 마련이다. 기다리면 언젠가는 자신의 차례가 반드시 온다는 확신같은 것이다. 새치기는 後進國에서만 성행하는 악습이다. 새치기는 세상을 기민하게 살아가는 생활

의 수단이자 요령으로 아는 사람들은 어찌다 자신들이 출을 선 경우 마음이 불안하게 마련이다. 누가 또 자신처럼 앞에서 새치기를 해 자신들의 순서가 계속 밀릴지도 모른다는 의구심 때문이다.

출을 설출 모르는 민족은 성미가 급한 것이 흠이다. 성미가 급한 민족의 공통적 결함은 당장 현재만을 생각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생활설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한 短見은 생활의 모든 부면으로 波及되어 국가적 不利益으로 나타난다. 橋梁, 아파트, 高速道路를 건설하는 데도 耐久性보다는 눈가림 날림공사로 몇년을 지탱하기 어렵게 짓는다. 요즘 경제학에서 유행하는 「合理的 期待論」에 따르면 그와 같은 刹那主義와 不確實性이 고조되면 국가경제가 불안해지고 인플레이션 심화되며 失業문제도 악화된다고 한다. 정책당국이나 일반국민이 다같이 참을성있게 기다리지 못하고 일관성없는 정책을 남발하거나 短期的의 기대에만 급급한다면 결국 옹대한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는 立論이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걸쳐 合理的인 期待值을 높이고 함께 共存共榮하는 안정된 福祉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라도 秩序의 象徴인 출서기를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反秩序의 상징인 새치기는 우리 사회에서 철저히 뿌리뽑혀야 하리라 본다.

한 마디로 새치기란 不當利得을 가리킨다. 지난날 民願窓口 공무원들이 공공연히 받았던 소위 「急行料」도 일종의 부당이득이다. 급행료란 새치기를 돈으로 사는 배각 행위이기 때문이다.

라인江의 奇蹟을 이룩한 西獨國민이 戰後 焦土化된 폐허 속에서도 빵배급의 차례를 기다리는 긴 줄서기의 질서로부터 시작, 눈부신 경제부흥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참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秩序意識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또한 질서무시를 보고 참지 못하는 국민의 왕성한 告發精神이 중요하다. 독일인의 질서의식은 인간개발에 크게 공헌했다. 불법을 보고 묵인하지 않고 이를 곧 「사회적 癌으로」 생각하게 된다. 형사적인 측면은 말한 것도 없고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독일사람들의 준법정신과 고발정신은 철저하다. 심지어 셋방을 얻어들 때도 계약 당사자 간의 가옥 내에서의 限界까지 명시하는 판이다. 이처럼 독일인의 의식구조는 지나칠 정도로 법률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융통성 없는 국민」이라는 평을 듣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도 독일 사회처럼 조그마한 부정, 조그마한 질서 위배행위라도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묵인하지 않고 叱咤하고 鈇박鈇박 고발한다면 秩序事犯은 발붙일 곳이 없어질 것이고 따라서

사회는 밝아질 것이다.

V. 맺는 말

우리는 이제 낡은 시대의 낡은 思考를 과거 속에 묻어버리고 새로운 意識革命을 통해 새시대가 요구하는 正義·福祉사회를 구현하려는 마당에 서 있다. 지난 한世紀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우리는 民族自決權의 상실로 엄청난 비극을 체험해야 했다. 國際秩序의 항배에 눈이 어두웠던 鎖國政策으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亡國의 백성으로 갖은 受侮를 겪었다. 그리고 光復 후에는 민족분열로 국토가 동강나고 6·25 同族相殘의 비극을 당해야 했다. 오늘에도 우리는 그러한 민족적 悲願을 짊어지며 새로운 국가 건설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 있다.

우리가 과거와 같은 뼈아픈 역사의 처욕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민족적 大悟각성 위에서 국민 개개인의 意識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속에 자리잡은 일그러진 殘滓思想부터 내쫓는 일이 중요하다. 의식의 혁신을 통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적 座標를 올바르게 直視하고 미래의 비전을 꾸며나가야 하겠기 때문이다. 「비전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이 鐵의 宰相 비스마르크는 말했거니와 이 말을 뒤

집이면 「비전을 가진 민족만이 흥성한 다」는 뜻도 된다. 비전은 보다 낡은 미래에의 眺望이자 설계이며, 비전의 大敵은 내일없는 刹那主義와 無秩序·혼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그늘지게 하고 내일에 희망을 걸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인 無秩序 反秩序 脫法행위에 어떤일이 있더라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쉽게 法과 질서를 만들어 냈으며, 또 너무나 쉽게 그것을 어겨왔다.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 풍토 속에서 그 권위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法秩序의 존엄과 법에 복종하는 마음은 반드시 엄한 처벌만으로도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공평한 法の 집행과 必罰의 실행에서 조성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새 시대에는 과연 法の 존엄성이 존중되고 엄정한 집행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제5공화국의 憲法에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幸福追求權, 連坐制의 폐지, 拘束適否審의 부활 등 人本主義的인 법정신과 의지가 뚜렷이 서려 있다. 이러한 개정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우리는 不義와 부정, 부패가 없는 정의사회를 건설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민족의 앞날은 얼마든지 밝아질 수도 있다고 확신한다. 불행한 미래를 맞을 것인가 아니면 행복한

내일을 기약할 것인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쟁취할 국민적 選擇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韓國人은 지금 모든 분야에서 민족적 자신과 自矜을 가져도 좋을 만큼 성장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70年代에 이룩된 고도의 경제성장과 産業化로써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中東을 비롯해 海外로 뻗은 우리의 기술신장은 세계의 先進技術과 겨루어 손색이 없음을 인정받았다. 비록 資源貧國이라는 핸디캡은 안고 있지만 민족의 潛在力量만큼은 어느 국민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찌 하찮은 秩序意識 하나 제대로 심는 일이 그처럼 어렵다는 말인가. 질서는 모든 존재의 기본원칙이며 사회발전의 관건이며 文化市民의 생활척도이다. 人間은 社會的 동물이기에 질서를 逆流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질서가 지배하는 民主市民 사회에서는 「나」라는 小我보다 「우리」라는 大我를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만일 사회의 成員인 시민 각자가 저마다 「나의 利益」만을 취하느라 급급할 경우 그 사회의 崩壞는 시간문제일 것이다. 실사 「나」의 이익의 일부가 침해받더라도 남의 이익과, 전체로서의 「우리의 이익」에 보탬이 된다면 이를 甘受해야 하는게 바람직한 市民的 자세이자 當爲인 것이다.

社會學에 모레스(Mores)라는 道德的 規範이 있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든가 혹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등의 감정적 規範이다. 韓國社會의 초기적 질서는 이 모레스의 規範에 의해 다스려졌다고 볼 수 있다. 가령 어느 悖倫兒가 부모에게 불효를 저지르면 법률을 어긴 것도 아닌데 동리 사람들은 共忿을 금치 못해 함께 버릇을 고치는 일에 발벗고 나선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도 온 국민의 머리 속에 질서의식을 뿌리깊이 潤着하기 위

해서는 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개개인의 自省的 覺醒과 함께 이 모레스的 規範을 다시 현대에 되살려 사회를 어지럽히는 무질서, 反질서가 싹튼 素地를 미리 봉쇄하는데 따끔한 刺戟劑 구실을 해야 하리라 믿는다.

秩序는 정신의 健全이며 육체의 건강이며 都市의 平和이며 더 나아가서는 國家의 安全이다」라고 한 英國의 詩人 로버트 사우디의 名言은 새삼 흥미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名將名言>

◎ 임무수행에 있어서 창조적 主導性을 발휘하지 못하고 上部의 지지만을 의존하는 자는 우수한 指揮官이 될 수 없다.

— 쥬코프 —

◎ 戰鬥은 人間들의 意志의 싸움이다. 意志없는 精神은 무가치하며 精神없는 의지는 危險하다.

— 젝트 —

◎ 勝利를 가져오는 것은 士氣이며 士氣가 있으면 戰鬥은 가능하다.

— 마아살 —

特輯 · 生存과 繁榮의 길

北韓의 對外政策

— 평양의 非同盟關係를 中心으로 —

全 得 柱

△政博·外交安保研究院 教授▽

— 目 次 —

1. 序論과 問題의 提起
2. 北韓의 對外政策에 對한 「오리엔테이션」
 - 가. 北韓의 資本主義와 世界情勢에 對한 視角
 - 나. 北韓의 對外政策目標과 諸原則
3. 평양의 對非同盟外交政策
 - 가. 非同盟運動의 性格
 - 나. 평양의 對非同盟外交政策
4. 結 論

1. 序論과 問題의 提起

北韓의 共產政權은 現在 約 100個國家로부터 外交的 承認을 받고 있고 特別히 北韓은 1973年과 1975年에 UN의 옵저버資格 획득 및 非同盟의 正會國에 加入함으로써 그네들의 國際的 地位를 向上시켰다. 1)

北韓의 非同盟運動에의 加入은 實로 평양의 世界政治(Global Politics)에의 出發의 길을 열어 놓았다.

本論文의 目標은

첫째 : 北韓의 對外政策目標

둘째 : 그들의 對外政策의 諸原則

세째 : 이와 關聯된 平壤의 非同盟運動

과의 關係等을 分析 검토하는데 있다.

이러한 틀 속에서 다음과 같은 問題들에 對한 答을 求할 수 있기를 試圖해 보았다.

첫째 : 北韓의 對外政策決定者들이 資本主義와 變化하는 世界情勢를 어떻게 보는가?

둘째 : 北韓의 對外政策 目標은 무엇인가?

셋째 : 北韓은 이러한 對外政策目標 達成을 爲하여 어떠한 對外政策的인 原則들을 가지고 있는가?

넷째 : 各 原則들 間의 關係는 어떠한가?

다섯째 : 평양의 非同盟外交의 主要目標과 戰略들은 무엇이며, 그들의 目標들은 어느 정도 成功的이었는가?

2. 北韓의 對外政策 에 대한 「오리엔 테이션」

가. 北韓 勞動黨이 對外政策 樹立時 資本主義와 世界情 勢에 對해 보는 視角

北韓의 對外政策決定者 및 그 核心은 金日成과 그의 勞動黨 政治局이라는 것

은 널리 알려져 있는 事實이다. 2)

金日成은 相異한 體制와 이데올로기를 가진 國家間의 關係의 原則으로 其地 東歐 共產諸國과 같이 平和共存을 主張하고 있지만 兩體制 즉 「共產主義體制와 資本主義體制가 地球上 서로 竝存하는 限 兩體制間의 계급鬭爭은 不可避하다」는 見解를 갖고 있다. 3)

金은 「社會主義(共產主義)가 平和와 民主主義와 同一한 反面 帝國主義(西歐 資本主義 지칭)는 그 本質에 있어서 侵略的이기 때문에 社會主義와 資本主義의 關係는 元來부터 그 모순을 內在하고 있다」고 說明하고 있다.

둘째로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國際勢力 關係가 社會主義에 有利하게 그리고 資本主義에 不利하게 계속 變化되어 가고 있다」고 判斷하고 있다. 4)

마지막으로 1970年代의 미·소, 美·中 接近을 「共產主義에 有利하게 展開되는 勢力關係에 對한 帝國主義의 적용」에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5)

나. 北韓의 對外政策 目標와 諸原則

北韓이 1972年 12月 改定한 北韓社會主義憲法 第 5條에서 잘 시사하고 있듯이 6) 北韓의 基本目標은 北韓自體에서

社會主義 建設과 南韓에서의 共產革命의 促進이라는 두 가지이다.

때문에 平壤의 對外政策目標은 北韓自體에서 社會主義 建設 뿐만 아니라 南韓에서의 共產革命을 통한 조국의 統一을 爲한 有利한 外的 條件들을 確保하는데 있다.

이러한 對外政策目標을 達成하기 爲하여 北韓은 그들의 對外政策의 原則으로 다음과 같은 諸原則을 들고 있다. 主體思想,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國際民主主義運動(非同盟運動) 및 平和共存, 金日成의 一人獨裁의 道具로 使用되어 왔던 主體思想은 對外政策的인 側面에서 볼 때 北韓과 모든 다른 國家들 間的 關係를 維持하는데 重要的 原則으로 利用하고 있다.

金日成은 對外關係에 있어서 北韓이 協商의 對象이 아니라 모든 國家間的 協商의 主體로써 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主體思想은 自主獨立의 原則을 통하여 對外政策에서 具現되며 自主獨立의 原則은 國家間的 完全한 同等權과 相互尊重을 要求한다고 말하고 있다. 7)

北韓이 들고 있는 두번째의 原則은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이다.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의 內容은 世界反資本主義 運動과의 유대 및 그 支援이다. 때문에 그 手段은 反帝國主義 同盟

이다.

本原則의 適用對象國이나 對象者는 모든 社會主義 및 共產主義政黨들과 非共產國家 內의 上記 政黨 및 帝國主義에 對抗하는 모든 國家나 前衛組織들이다. 때문에 이 범주 내에서 北韓勞動黨은 所謂「社會主義 형제국」들과 모든 分野에서 協力하고 기타 非共產國家 內의 社會主義 및 共產主義政黨과 協力하며 帝國主義와 對抗하는 모든 나라들을 支援하고 있다.

다음의 原則인 「國際民主主義 運動」8)은 평양이 非同盟에 加入된 以來 對外政策原則의 하나로 強調되고 있다. 本原則이 適用되는 對象은 아시아, 아프리카, 中南美 아메리카에 있는 非同盟國家이다.

本原則은 民族의 獨立, 反帝國主義 社會的 進歩를 爲하여 鬭爭하는 모든 人民의 支援을 그 內容으로 하고 있다. 9) 이러한 原則에 따라 평양은 非同盟運動에 積極적으로 現在 參與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北韓은 資本主義 國家와의 關係樹立 및 그 改善을 爲하여 「相異한 體制와 이데올로기를 가진 國家間에 平和共存」은 그들의 對外政策原則으로 삼고 있다. 特記할 事項은 같은 分斷共產國家인 東獨은 本原則의 適用對象國으로 西獨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反해10) 北韓

은 그들의 暴力革命이라는 最高目標 때문에 韓國을 그들의 原則適用對象國에서 除外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11) 이와같은 韓國의 除外야 말로 韓半島의 政治軍事的 긴장과 위기의 가장 重要要因들 中의 하나이다.

3. 平壤의 對非同盟 外交政策

가. 非同盟運動의 性格

非同盟運動의 理念的 淵源은 1955年 「반동會議」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具體的 組織의 根源은 1961年の 「벨그라드」에서의 第1次 非同盟頂上會談에서 始作되었다.

1955年 「반동會議」의 모임의 基本動機로는 물론 冷戰下의 美·蘇의 兩陣營에서 어디까지나 中立을 지키는데 있었다. 이러한 非同盟運動은 1955年 「반동會議」에서 29個國(아시아 15, 中東 7, 아프리카 6, 라틴 아메리카 0, 기타 1個國)으로 始作, 1979年 第6次 「하바나」 非同盟會議에서는 무려 92個國(아시아 16, 中東 13, 아프리카 49, 라틴 아메리카 11, 기타 3)으로 확대되어 그 期間동안 63個國이 새로이 加入되었고 그들의 勢力은 또한 UN에서 과반수를 훨씬 넘게 되

었다.

非同盟運動은 美·蘇의 冷戰격화 속에 그 初期에는 美·蘇의 어느 진영에도 가담하지 않겠다는 非同盟運動과 西歐 諸國의 植民地에 反對하는 運動이 結合되어 始作되었지만 時間이 흐름에 따라 이러한 政治의 性格에 경제적 性格을 더 附加시키게 되었는데 대략 다음의 4개의 경향을 내포하고 있다. 12)

첫째: 非同盟運動

둘째: 反植民地運動

셋째: 對開發國 즉 先進國에 對한 關守

네째: 對資源保有國에 對한 關守

나. 北韓의 對非同盟 外交政策

1955年 「반동」 非同盟會議에서 非同盟原則이 宣言된 後 北韓은 中共의 「中間地帶」 外交에 편승한 意圖로 1956年 4月 第3次 朝鮮勞動黨大會에서 非同盟原則을 支持한 바 있다.

그러나 北韓은 1950年代 후반과 1960年代까지 非同盟會議에 직접 加入되었지 아니하므로 그의 非同盟에 對한 外交政策을 具體化할 수는 없었다. 1970年初 非同盟運動이 變化하는 國際體制에서 하나의 主導的 勢力으로 登場한 것을 보고 서야 非同盟運動에 對한 具體的 外交政

策을 樹立한 것 같다. 평양은 그 당시의 中·蘇紛爭을 最大限 利用 非同盟原則과 主體思想을 結付시키었다.

北韓의 非同盟外交의 目標은 北韓의 武力南侵政策에 對한 直接的인 支援을 기대하기보다는 김일성이 거듭 強調해온 「3大革命力量 中國際的革命力量」(13)의 強化를 通해 南韓赤化를 爲한 外的 條件들을 有利하게 만드는데 있다.

즉 UN에서의 北韓측 決議案 채택과 駐韓美軍 철수의 實現을 爲한 國際的 壓力 手段으로 非同盟運動을 最大限 利用해 보자는데 있다.

이러한 目標達成을 爲하여 北韓은 1960年代와 1970年代 中盤까지 對非同盟 諸國에 對해서 초청 및 訪問외교를 集中的으로 展開했으며 對象國과 各各의 경우에 따라 약간씩의 差異가 있었겠지만 經濟, 技術, 軍事援助 提供의 約束까지도 서슴치 않았다.

또한 非同盟運動과의 關係로 強化한다는 意味에서 그들은 所謂 「國際的 民主主義」를 그들의 對外政策原則으로 삼고 反帝國主義, 反植民主義, 反支配主義, 反人種主義라는 非同盟原則에 부응시키었다.

北韓은 中·蘇로부터 그의 行動半徑이 넓어진 틈을 타서 北韓의 對非同盟外交 目標達成에 有利하다고 判斷하여 1975年

非同盟運動에 加入함으로써 北韓은 最初로 世界政治的 廣장에 參與케 되었다.

北韓의 이와같은 參與를 通한 戰略的 目標은 非同盟會員國들에 依하여 北韓의 外交의 承認과 그 어서로 國際機構 등에서 北韓을 韓半島의 唯一한 合法政府로서 的 단독대표권 획득이라는 두 가지의 集團的인 合法化 즉, 世界的 組織體나 國際機構에 依해 北韓의 合法化와 同時에 韓國政府의 不法化에 있다.

그러나 北韓이 非同盟運動의 政治무대에 公式 데뷔한 것은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1976年 8月 16~19日間 開催되었던 第五次 非同盟頂上會談으로서 北韓社會의 폐쇄성과 경직성으로 보아 이러한 國際무대에서 北韓의 Image를 부각시키고 그들의 成果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처음부터 없었다.

本 頂上會談은 판문점 도끼事件(美將校 사망)으로 北韓에 좋지 않은 印象을 주는 가운데 韓國問題에 對한 親北韓決議案을 중국에 가서는 채택은 했었지만 24개 國이나 되는 會員國이 韓國問題에 對한 親北韓決議案에 反對했을 때 本 會談의 團合과 統一性은 이미 깨어져 버렸다.

더군다나 本 頂上會談의 리더格인 유고의 티토故大統領은 평양이 世界的 次元에서 經濟的 및 에너지問題에 대한 討議時間을 줄이고 政治 및 軍事的 懸案問

題를 더 많이 다루어야 한다고 強調하는 北韓의 경직성 때문에 불쾌감을 주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主權國인 斯里랑카는 또한 北韓代表團이 숙박하는 斯里랑카에 정박하고 있던 北韓선박을 엄중 감시함으로써 北韓 代表에 對해 애매한 態度를 取했다는 報道도 있었다. 14)

北韓에게 不利한 이러한 國際狀況이 北韓으로 하여금 1976年 9月の UN總會의 의사 일정에서 그의 決議案을 自引 撤回하게 한 것 같다. 이와 反對로 1979年 「하바나」에서 開催된 第16次 非同盟 頂上會談에서는 그들의 主要目標을 非同盟 運動의 團結에 기여하는데 돌으로써 매우 慎重을 기해서 이의 준비를 한 듯한 인상이다.

1979年 7月 18日 김일성政權은 朝鮮勞動黨中央委의 政治委員會와 中央人民委員會의 合同會議에 對해 發表하면서 이 會議內容이 「하바나」 非同盟 頂上會談을 위한 政策을 다루었다고 언급했다. 이 會議은 김일성이 직접 主裁했다. 때문에 本 合同會議의 직접적인 目的 때문에 非同盟에 對한 평양의 諸原則들과 戰略을 세우는데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15) 本 合同會議의 政策書는 國際體制內에서의 非同盟 運動과 평양의 對外政策을 體系의 으로 連結한데 그 特徵이 있다.

1979年 「하바나」 非同盟會議의 開催는 非同盟 運動 18年에 그의 生存에 가장 큰 威脅을 주었던 會議이었다. 즉 冷戰의 불럭 政治에서 脫皮, 中立을 提唱하고 創立되었던 非同盟會議가 이번 「하바나」會議에서 다시 冷戰의 불럭 政治 속으로 취 말려 들어간 것이다. 이러한 事實이 本大會에서 다루어 진 問題, 즉 紛爭에 있는 캄보디아에서의 「헝사림」 政權과 「폴 포트」 政權間의 正統性 鬭爭問題와 아랍 國들의 利害를 無視하고 이스라엘과 和親을 하고 있는 이집트 除名問題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非同盟 運動을 分裂시킨 더 큰 이유는 쿠바首相 「피델·카스트로」(Habana 會議議長)의 親蘇發言과 美·中共을 非同盟 運動의 主要敵國으로 간주하는 發言이었다. 이러한 「카스트로」의 發言은 本大會 會員國들을 兩派로 즉, 쿠바, 共產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이디오피아, 남예멘으로 構成된 親蘇派와 유고, 인도, 말라시아와 싱가포르 된 中道獨立派로 分裂시켰다.

그 分裂의 結果, 이집트는 除名도 誹辭도 받지 않게 되었고, 캄보디아 代表權 問題는 妥協案으로 적어도 1981년까지는 캄보디아의 會員國資格을 停止시켰다 이는 「폴·포트」政權의 不法化와 親蘇派의 승리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카스트로」의 非同盟 定議에 對한 親蘇性向

化는 실패하였다. 「카스트로」의 기대와는 反對로 合議된 決議文은 「非同盟政治의 진수는 그의, 本來의 諸原則과 固有한 性格에 依據, 帝國主義, 植民主義, 人種差別, 시오니즘을 포함한 人種主義와 外國의 侵略, 征服, 支配, 干涉, 레게모니 및 強大勢力, 분력政治에 對抗하는 투쟁을 포함한다. 16)

非同盟內의 이러한 派閥造成에 反對하여 北韓의 外相 許談은 1979年 6月 8日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開催되었던 非同盟調停國外相會議에서의 演說에서 非同盟의 元來의 原則과 理念 및 獨立을 방어하고 同運動의 團結을 호소했다. 17) 이러한 北韓의 對非同盟政策으로 보아 北韓은 蘇聯派에 가담치 않고 中道獨立派에 가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北韓은 1979年 中·蘇의 葛藤을 利用, 非同盟運動에서의 指導的 역할을 할 것을 決定했기 때문에 中共과 蘇聯을 직접 지칭하지는 안 했지만 蘇聯을 支配主義 勢力으로 中共을 레게모니 主義者라고 稱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北韓이 完全 獨立國이라는 것을 非同盟에서 역설했다.

北韓은 1976年 「콜롬보」會議에서의 外交的 실수를 「하바나」會議에서 「非同盟 團結」戰略을 使用함으로써 상쇄시켰다.

첫째, 北韓은 1982년까지 非同盟會議議長인 「카스트로」의 영향력을 統制하기 위하여 조정국의 會員數를 擴大하기로 決定한 中道獨立派의 提案의 관철로 그 조정국의 會員國이 되었다.

둘째, 韓國問題에 있어서 어떠한 異議도 없이 北韓이 원하는 決議案을 採擇했다. 즉 韓國問題 決議文의 골자를 본다면 :

가) 韓國分斷의 反對

나) 平和的 統一에 對한 韓國國民의 權利 尊重

다. 韓半島에서의 모든 外國軍隊의 撤收

라. UN사령부의 해체

마) 外國軍事基地 및 軍事施設의 撤去

바) 休戰協定の 平和協定으로의 代置

1981年 인도의 뉴델리에서 非同盟外相會議가 開催되었으나, 韓國問題는 거론되지 않았다. 明年 이락에서의 非同盟頂上會議에서 分明히 北韓은 韓國問題를 거론할 것으로 전망되나 最近 그들의 親蘇의 경향으로 보아 北韓側의 決議案 採擇은 더욱 힘들 것으로 展望된다.

4. 結 論

北韓은 最小限 非同盟內에서는 1980年 까지 모스크바와 북경으로부터 벗어나서

非同盟의 原則에 부합하도록 努力한 點이 보인다. 이러한 北韓의 外交戰略은 1970年代에서 特記할만한 事項이다. 北韓의 第三世界에 對한 1960年代의 外交 基盤造成은 1970年代의 世界外交에 北韓의 參與를 가능케 했다. 主體思想과 「國際的 民主主義」를 非同盟外交의 基本原則으로 세운 反面 마르크스·레닌主義의 理念的 후퇴가 그들의 非同盟外交에서 역력히 보인다. 그러나 外交의 實際面에서 볼 때 北韓의 第三世界外交는 김일성의 正統性 危機에 對한 北韓의 國內 國外的 制 조치들의 일부로서 간주될 수 있다.

첫째, 國內 모든 派閥을 그가 除去함으로써 正統性을 찾는 過程에 對한 모든 威脅要因을 없앴음.

둘째, 김일성은 中·蘇의 紛爭을 最大한 利用하여 그들의 統制나 F涉을 中化시키는데 成功하였음.

「主體」는 中·蘇에 對한 等距離外交를 확립하는데 合法화된 原則으로 利用되었으며, 北韓의 對外政策에 있어서의 外交路線을 보다 自主化시킬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 第三世界外交를 展開함으로써 한반도의 다른 正統性을 가진 韓國의 威脅에 強力히 대처했다.

北韓의 非同盟外交의 最高目標은 非同盟國家들이 正統性을 認定하는데 있다. 1970年代 北韓은 그들의 目標을 어느 정

도 達成했다고 보는 것은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北韓은 第3世界國家들이 韓國을 진혀 認定하지 못하게 하고 北韓만을 絶對적으로 認定하는 單獨承認을 얻기에는 실패하였다. 北韓이 南韓과 함께 同時修交國의 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北韓만을 單獨으로 認定하는 問題는 더욱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1975年の UN總會에서 韓國側 決議案과 北韓側案이 同時에 採擇되었다는 事實만으로도 유일代表權을 얻기 위한 努力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를 잘 알 수 있게 해 준다. 물론 獨裁者 김일성은 그러한 現實을 認定하려고 하지도 않지만 인정할 여유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한편으로 武力赤化統一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北韓의 一部 非同盟國家에 對한 經濟援助 약속이 北韓의 經濟사정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여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것 등으로 보아 北韓의 對非同盟外交戰略은 이제 限界點에 도달한 것 같다.

1980年代 後半부터 北韓은 中·蘇等距離外交에서 蘇에 너무나 밀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1982年 非同盟頂上會談에서 中道獨立派에 그대로 머무르지 그렇지 않으면 親蘇派로 전향할지 매우 궁금하다. 만약 親蘇派로 전향 時 그들은 앞에는 보다 큰 시련이 놓일 것이다.

< 註 >

- (1) 韓國은 現在 103個國에 依해서 外交的 承認을 받고 있음.
北韓의 非同盟關係에 對해서 高병철, 북한 外交論, (서울 1977), 161 페이지 參照.
- (2) 本研究에 對해서 Lee, Chong S-hik, "The North Korean Policy and its strategies to ward South Korea", in: Kim Young C and Halperin, A. M.,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New York, 1977) 96페이지 參照.
- (3) 金日成은 이 문제를 1962年 10月의 최고 人民會議 第1차 會議에서 다루었음. 金日成, 김일성 선집 第4卷(평양, 1968), 419 페이지 參照.
- (4) Kim Il Sung, Selected Works Vol.5(English Version) 15페이지 參照.
- (5) 上同 12페이지 參照.
- (6) 조선 민주주의 사회주의 헌법, 평양, 1972, 1페이지 參照.
- (7) 主體思想에 對한 보다 精確한 자료, 김일성 "On Juche in our revolution, 2 Vols, (Pyongyang, 1975).
- (8) 本原則은 北韓 社會主義 憲法에 있지 않으나 理論적으로 보아 北韓 憲法 第16條의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에서 特別히 도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9) Kim Il Sung, Ausgewählte Werke(金日成 選集) 6卷 291페이지 參照.
- (10) 東獨統一社會黨首「호넉카」의 1971年 6月 15日의 제8차 全黨大會연설 參照.
- (11) 東亞日報(발행인), 안보통일문제 기본자료집, (서울 1974), 183페이지 參照.
- (12) 朴尙植, 非同盟運動과 韓國, 外交安保研究院論文, 1979, 12.
- (13) 三大革命力量이란 1964年 2月 27日 金日成이 인도네시아訪問時 對南戰略으로서 ① 北朝鮮의 革命力量, ② 南朝鮮의 革命力量과 ③ 國際的 革命力量의 強化를 強調했다.
- (14) B. C. Koh, "North Korea 1976 ; Under Stress", America Survey 17, (January, 1977, p.65.)
- (15) 合同會議의 發表全文에 對해서는 Foreign Broadcast Information Service : Asia and Pacific : Daily Report, July 18, 1979, pp.D1~D13, 앞으로 FBIS : A. P로 약칭을 씀.
- (16) 本決議文 全文에 對하여,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Belgrade) No. (Sept, 26, 1979) : 19, pp. 18~67 參照.
- (17) FBIS-APA, June 11, 1979, pp. D2.

『마르크스』主義 理論批判

하겠다
 想的 透徹한 理論的 武裝을 해야
 打倒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反共思
 人類的 最大의 敵인 共產主義를

少領 金 永 台
 △空軍本部政訓監室▽

現代의 危機는 「共產主義」와 「民主主義」라는 理念對立의 葛藤에서 비롯되어지고 있다.

歷史上 수 많은 思想과 理念이 生滅있었지만, 共產主義만큼 끈질기고 악랄하게 人類를 欺騙과 混亂을 시킨 思想은 일찍이 없었던 것이다.

18世紀 産業革命으로 인한 近代資本主義 形成過程에서 惹起되어진 各種 社會的 病弊로부터 「마르크스」主義가 誕生되었다는 事實에는 異論의 餘地가 없지만, 時代的 制約性과 洞察力에 限界性을 感知하지 못한 「마르크스」의 獨善的 主張은 스스로 엄청난 理論的 誤謬를 犯하게 되었고, 특히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마르크스」理論의 存在價値가 完全히 否認되고 있으며 共產主義者들까지도 修正이 불가피한 남은 理論으로 轉落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1848年 暴力에 의한 全世界의 共產化를 公功연히 선언한 「共產黨宣言」이 地球上에 등장한 이후 130여년 만에 全世界 人類의 3분의 1이 共產奴隸化되었고 地表의 거의 半에 달하는 地域이 共產地獄으로 變하고 말았다.

그러면 이렇게 矛盾과 誤謬 투성이인 「마르크스」主義가 어떻게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猛威를 떨치며 人類를 威脅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오직 共產主義者들의 宣傳에만 眩惑되어 正確하고 綿密한 分析과 判斷을 通하여 共產主

義의 理論의 矛盾을 看破할 수 있는 「理念의 힘」이 缺如되었는데 그 原因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主義를 批判하는 窮極的인 目的은 바로 「理念의 힘」을 길러 먼저 共產主義의 思想的 根據을 뿌리 뽑아 北傀 金日成集團을 打倒하여 高貴한 自由와 生命을 守護하며 民族의 正統性을 傳承시켜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達成하는 데 있는 것이다.

1. 「마르크스」主義의 出現 經緯

18, 19世紀 歐洲는 政治·經濟·文化·思想이 急激한 變化期를 맞게 되었다. 특히 産業革命으로 말미암아 既存秩序가 完全히 變革되고 새로운 經濟體制인 資本主義가 擡頭됨으로써 惹起되어진 混亂은 極에 到達하게 되었다. 더구나 政治的으로는 民族·民主運動이 高潮되고 戰爭과 革命이 끊임없이 發生되어 民衆의 憤怒와 不滿은 날이 갈수록 澎湃하였다. 이같은 激動期에 태어난 「마르크스」(Karl Marx : 1818~1883)는 獨逸의 猶太人으로서 比較的 富裕한 生活을 하고 있었으나 民族의 迫害과 蔑視에 대한 不滿은 青年 「마르크스」를 變化시켰다. 「마르크스」는 一般 猶太人이 그랬듯이 「메시아」(Messiah)가 降臨하여 이러한 民族差別 問題를 解決해 주리라 期待했

으나 結果는 달랐다. 결국 「마르크스」는 「宗教는 被壓迫民衆의 嘆息이며, 民衆의 鴉片」이라고 主張하고 오직 「革命的 實踐」에 의하여 宗教의 祈求를 대체시켜서 猶太人의 悲慘한 運命을 開拓하자는 것이 「마르크스」主義 根本的 動機이다.

특히 獨逸에서 追放당한 「마르크스」는 無國籍者로 歐洲를 流浪하다 英國에 定着하였으나 貧困과 病魔는 一生동안 그를 苦痛케 하였다. 더구나 「엔겔스」(Engels : 1820~1895)의 友情어린 經濟的 支援이 있었으나 「마르크스」는 3名의 子息을 貧困으로 잃게 되어 그가 資本主義 社會에 대해 가진 怨恨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러한 背景을 생각할 때 勞動者에게 는 祖國이 없다. 國家와 民族을 撤廢시키기 위해 全世界의 勞動者여 團結하라」2)고 외치며 暴力革命을 主張하는 「마르크스」에게 한 가닥의 同情조차 느끼게 한다.

한 마디로 「마르크스」主義는 「怨恨의 哲學」이며 「復讐의 絶叫」인 것이다.

「마르크스」主義에는 3個 根源이 있다. 첫째, 哲學理論은 「헤겔」(Friedrich Hegel : 1770~1831) 「辨證法」과 「포이에르바하」(Ludwig Feuerbach : 1804~1872)의 「唯物論」에 根據를 두었고,

둘째, 經濟理論은 「스미스」(Adam Smith : 1723~1790)와 「리카도」(David Ricardo : 1772~1823)의 「勞動價値學

說」에서 導出하였으며,

세째, 政治理論은 佛蘭西 社會主義思想과 1871年「파리人民公社」(Paris Commune)3)에서 「無產階級獨裁」와 「共產主義社會」의 形態를 이룩하게 되었다.

結論적으로 「마르크스」主義는 自身の 憤怒와 不滿 그리고 產業革命으로 인한 近代資本主義의 形成過程에서 發生되어진 部分的 問題性과 弊弊를 全般的 現象으로 規定하고 이러한 諸般 問題點을 解決하기 위하여서는 오직 暴力革命方法以外에는 없다는 偏見에서 起因되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主義는 資本家와 勞動者의 階級對立에만 焦點을 맞추고 革命의 手段으로 理論을 展開시킴으로써 必然的인 矛盾性과 偏狹性을 同時에 內包하게 되었다.

2 「마르크스」主義의 理論構造

「마르크스」主義의 語源을 살펴보면 「라틴」語에서 由來한다. 즉, 共有財産을 意味하는 「콤뮈네」(Commune)와 共同社會라는 뜻의 「코무니스」(Communis)에서 合成되어 「共產主義」(Communism)가 되었으며 이 말을 最初로 使用한 것은 1830年代 佛蘭西 革命團體들이었다. 그 후에 「마르크스」가 理論的 體系를 確立함으로써 共產主義를 「마르크스」主義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마르크스」는 共產主義를 哲學, 經濟, 政治的 側面에서 雜多한 理論을 展開하고 있으나 그 核心的 內容은 바로 暴力革命을 合理化하는데 焦點을 두고 있음을 明白히 알 수 있으며, 「理論적으로 大衆을 掌握하지 않고서는 革命을 成功시킬 수 없다」4)라는 「마르크스」自身の 말이 더욱 分明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면 「마르크스」主義 理論의 主要內容을 簡略하게 檢討해 보기로 한다.

(1) 共產主義 哲學理論

哲學은 모든 事物의 本質과 原理를 追求하는 人間中心의 學問이며 보다 次元 높은 人生的 意味를 探究하려는 反省의 學問이다.

그러나 共產主義, 哲學은 그들의 根本目的인 共產革命을 達成하기 위한 理論의 根據를 찾는에 있으며, 階級鬭爭의 妥當性을 研究하는데 있는 것이다.

「辨證唯物論」

唯物論은 古代 「그리스」에서 이미 出發한 思想이었다. 「탈레스」(Thales : B. C. 640~550)는 宇宙의 根本은 「물」이라고 主張하였으나 그의 觀點은 物質自體가 生命力이 있다는 「物話論」이었다. 그 후에도 「아낙시메네스」(Anaximenes : B. C. 588~524)는 「空氣」라고 하였고 또한 「헤라클레이토스」(Herakleitos : B. C. 535 : 475)는 「물」이라 하

여 「물」이 熱을 消失하면 「물」이 되고 反對로 熱을 얻으면 물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古代唯物論의 完成者는 「데모크리토스」(Demokritos : B. C. 460~371)이다. 그는 宇宙의 根源은 「原子」(Atom)로 不可分の 性質이며 不生不滅한다고 主張하고 萬物の 生成과 消成과 消滅은 이 原子의 結合과 離散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다.

이같은 「그리스」의 唯物論은 萬物の 根源을 物質로 보기는 했으나 그 物質自體가 精神이 있다는 것을 認定함으로써 「마르크스」唯物論과 區別된다. 「엥겔스」는 「自然辨證法」에서 「古代 唯物論은 完全히 原始的, 自生的 唯物思想이다」라고 신랄하게 批判하였다.

唯物思想은 中世紀의 宗教暗黒時期를 거쳐 「르네상스」와 함께 서서히 回復되기 始作했다. 그 후 英國의 經驗論哲學을 거쳐 佛蘭西에서 機械唯物論이 誕生하게 되었다. 佛蘭西의 唯物論은 「世界는 物質과 運動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그러므로 「自然은 嚴密한 機械的 法則에 支配되고 人間도 物質의 法則에 支配되고 있기 때문에 人間에게는 自由意思가 없다」고 主張하는 唯物論으로 代表의 思想家는 「라·메트리」(La Mettrie : 1709~1751)와 「홀바흐」(Dietrich Holbach : 1723~1789)이다.

近代에 이르러서 「마르크스」唯物論에 가장 影響力을 끼친 사람은 獨逸의 「프

이에르바흐」이다. 그는 「人間은 自然의 產物이며, 神은 人間自身的 幻想的 反映」이다 라고 하면서 精神을 物質의 所産임을 強調하였다. 그러나 그의 唯物論은 感性的 唯物論이었기 때문에 「마르크스」로부터 「下部는 唯物論이고 上部는 觀念論者」⁽⁶⁾이라는 非難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人間生活이나 社會發展에 있어서 物質的 條件이 土臺가 되고 政治·法律·宗教 등의 觀念形態는 物質的 土臺의 產物로 보았다는 點이 「마르크스」에게 至大한 影響을 끼친 것이다.

「마르크스」唯物論의 基本觀點은 「物質이 第一性的 現象이고 意識, 精神은 第二性的이며 派生的 現象」이란 것이다. 즉, 自然界의 存在는 人間의 意識 외에 客觀的으로 存在하는 現實이라는 것이다. 意識問題에 있어서도 意識이 存在를 決定하는 것이 아니고 物質이 精神을 決定하며 意識은 物質이 腦에 反映된 存在의 產物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唯物論이 가진 矛盾은 從來의 物質概念인 「質量不變의 法則」에 의하여 根源을 가지고 있었으나 科學이 發達된 오늘날에 와서는 物質의 屬性은 物質粒子가 100% Energy化하기도 하고 또 Energy가 100% 物質粒子化하기도 한다는 事實이 證明되어 物質性을 前提로 한 「마르크스」唯物論은 現代 科學에 의하여 完全히 崩壞되고 말았다. 즉, 太陽의 粒子說과 波動說로 論難이

되고 있던 理論이 1929년에 獨逸 物理學者인 「하이젠베르크」(Heisenberg : 1901~1978)에 의하여 物質이나 輻射가 서로 二重性質을 가지고 있어서 粒子的 性質을 나타내기도 하고 波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으로 波·粒子라는 單一實體로서의 Energy임을 證明하게 된 것이다. 「아인슈타인」(Einstein : 1879~1955)도 物質은 Energy가 凝縮된 것으로 Energy는 無形態의 存在라고 하여 物質의 實體性을 破壞시켜 버렸던 것이다.

意識問題에 있어서도 「反映說」⁷⁾을主張하고 있으나, 그것도 完全히 矛盾理論임을 알 수 있다. 즉, 外部世界가 거울처럼 腦에 反射된 것이라고 하지만, 自動車나 飛行機 등의 物體가 存在하지도 않던 것이 어떻게 科學者나 發明家의 腦에만 反射되어 現實로 나타났다는 것인가?

한 마디로 辨證唯物論은 人間精神의 創造性을 完全히 無視한 獨斷論이며, 矛盾의임을 分明히 알 수 있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辨證唯物論에는 「마르크스」가 勞動者를 眩惑시켜 共產革命에 끌어들이기 위한 捏造된 理論인 것이다.

「唯物辨證法」

辨證法이라는 말은 「라틴」語의 「더알렉티케」(Dialektike)에서 由來된 것으로 「對話術」을 뜻한다. 이는 古代 希臘哲學

者들이 反對意見을 對話를 통하여 一致시키려는 方法에서 起因된 것을 獨逸哲學家인 「헤겔」에 의하여 體系화된 것이다.

「헤겔」의 辨證法은 宇宙萬物은 恒常變化하고 있다는 前提 아래 歷史發展은 「絕對理念」 또는 「宇宙精神」의 俱現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그 發展過程은 第一個 概念인 肯定—「正」(Thesis)이 있으면 同時에 「正」概念을 否定하는 第二個 概念인 否定—「反」(Anti-Thesis)이 發生되며, 이 두 概念이 相互 矛盾對立의 節次를 통하여 보다 한 段階 높은 第三個 概念인 統一—「合」(Synthesis)이 發生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反復過程을 거쳐 人間의 思想이나 歷史는 不斷하게 上向發展을 거듭하여 「絕對理念」(Absolute Idea)에 到達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辨證法의 目標을 絕對理念에 두고 있는 「헤겔」을 觀念論者라고 하고 그의 辨證法을 觀念 辨證法이라고 하고 倒立된 理論이라고 批判하였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헤겔」辨證法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共產革命의 必然性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엔겔스」의 말을 통하여 「헤겔」辨證法이 「마르크스」辨證法에 至大한 影響을 끼친 事實을 알 수 있다.

「마르크스」唯物辨證法은 物質의 第一性을 基調로 하여 「헤겔」의 觀念的 辨證法을 完全히 거꾸로 解釋하였고 「헤겔」의 3大法則을 社會現象에 適用하여 共產

革命의 妥當性을 導出시키고자 함으로써 本來의 辨證法內容과는 完全히 歪曲되고 있는 것이다.

① 矛盾·對立統一의 法則

物質은 元來부터 矛盾을 內包한 것으로부터 出發하여 그 矛盾이 相對的으로 鬭爭이란 對立性을 띠고 있어 끊임없는 內的 鬭爭으로 因하여 運動하고 發展되며 이 鬭爭은 永遠하고 絕對的인 데 反하여 統一은 條件的, 相對的이라고 했다.

「마르크스」는 이 法則을 社會現象에 導入하여 無產者와 有產者는 서로 理解關係에 의한 對立이 날로 커져 급기야는 不滿이 폭발되어 革命에 이른다는 論理로서 資本主義 社會는 必亡하고 共產主義 社會가 建設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人類歷史는 階級鬭爭에 의하여 이룩된 것이 아니고 協同과 調和에 의하여 찬란한 文化가 發展되었고 現代 先進 工業國家에서 共產革命이 發生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勞使間의 긴밀한 協力으로 復興된 產業國家를 이루고 있다. 더구나 共產革命은 近代 資本主義 社會에서 發生된 階級鬭爭이 아니고 先進國家에서 政變形態를 거쳐 共產化된 事實만을 보더라도 「마르크스」主義의 虛構性을 쉽게 알 수가 있다.

② 質量互變의 法則

物質內的 矛盾과 對立이 漸次的으로 增加하여 어느 限界點에 이르면 飛躍的 發展을 하여 舊質과는 根本的으로 다른

新質으로의 轉化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例로서 물에 熱을 加하면 水蒸氣가 되고 이것을 다시 冷却시키면 물로, 다시 얼음으로 變化한다는 自然現象을 辨證法에 適用하고 있다.

그러나 물이 아무리 變하더라도 그것은 現象의 變化이지 결코 물이란 質自體가 變換한 것이 아님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으로 이는 「마르크스」의 詭辨이다.

특히 物理的 現象을 人間社會에 機械的으로 適用하여 液體가 氣體로 突變하듯이 革命이 必然的으로 發生한다는 主張은 漸進的 社會發展을 度外視하고 오직 共產革命을 合理化하기에 血眼이 된 「마르크스」가 저지른 極斷的 誤謬인 것이다.

③ 否定的 否定 法則

이 法則은 共產社會의 到來를 說明하는 것으로 矛盾·對立·鬭爭을 基礎하여 否定的 否定을 거듭함으로써 以前까지의 모든 發展段階에서의 短點을 모두 버리고 보다 높은 價値와 長點을 占取·綜合·改作하여 全體로서의 發展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 單純한 것에서 複雜한 것으로 進歩·發展·向上한다는 法則을 말한다.

이러한 例로서 「엔겔스」는 보리알의 否定이 보리짚이며, 보리짚이 結實을 맺고 말라 죽는 보리짚은 보리씨의 否定인 것이라고 說明하면서 이러한 否定的 結

果로서 最初의 보리알은 10배 20배 30배의 보리알을 얻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例示도 역시 보리알이 量的 增加는 가져왔으나 보리알 自體의 變化는 없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人類歷史發展을 이러한 論理에 適用하여 共產主義社會가 必然的으로 到來한다는 것을 人爲的으로 造作한 矛盾理論인 것이다.

「唯物史觀」—歷史唯物論

「마르크스」는 唯物論과 辨證法을 人類歷史發展과 社會現象에 適用하여 共產革命을 合理化시킨 理論으로 共產主義의 歷史哲學이며 이를 「唯物史觀」 또는 「歷史唯物論」(Historical Materialism)이라고 한다.

「마르크스」가 「唯物史觀」에 주장하고 있는 主要한 論點은 :

① 社會 經濟 및 生産方式은 社會的 物質基礎인 下部構造이며, 政治·法律·道德·宗教 등은 理念形態로 上部構造이기 때문에 經濟 및 生産方式이 變하면 이에 따라 上部構造가 改變되고,

② 人間은 階級的 動物이기 때문에 階級地位와 環境이 人間の 思想意識을 決定시키며,

③ 社會內部 矛盾은 生産方式과 財產關係의 矛盾에서 發生되므로, 어떤 社會라도 반드시 階級간의 鬭爭이 존재하며 人類歷史는 바로 階級鬭爭史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階級鬭爭이 歷史發展과 變化

를 促進시킨다는 것이다.

經濟構造가 政治·法律 등 上部構造를 變化시킨다는 主張에는 妥當性이 있으나 經濟 및 生産方式을 變化시키는 것이 生産道具의 開發이다. 그러나 이러한 生産道具는 物質自體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직 人間の 精神에서 創造되어진다는 眞實을 歪曲한 論理가 「마르크스」가 저지른 致命的 誤謬인 것이다.

階級鬭爭의 觀點에 있어서도 人類社會 內部에는 階級 간의 葛藤이 全然 없는 것이 아니지만, 「마르크스」의 主張처럼 鬭爭과 革命으로 歷史가 變遷한 것이 아니고 階級 간의 相互 協力으로 찬란한 文化가 이룩되고 歷史는 發展되어 왔던 것이다.

요컨대 「마르크스」는 近代 資本主義社會의 一部 矛盾과 病弊를 人類歷史 全般에 適用하여 이같은 矛盾理論을 哲學이라 내놓은 것은 어디까지나 「마르크스」 자신이 哲學者이기보다는 革命家로서 共產革命을 合理化시키기 위해 造作한 理論임이 分明한 것이다.

(2) 經濟理論 構成內容

「마르크스」哲學理論은 大衆의 理性에 呼訴하여 共產革命의 必然性을 定着시키려는데 反하여 經濟理論은 勞働者들의 感情을 刺戟시켜 暴力革命을 誘發시키려는 行動理論인 것이다.

「마르크스」經濟理論의 主要內容은 勞

動價值說에 입각한 「剩餘價值說」과 「資本主義 沒落論」이다.

「勞動價值說」

勞動價值說은 英國 古典政治學者인 「로크」(John Locke ~ 1632~1704)와 古典經濟學者인 「스미스」(Adam Smith : 1723~1790)의 理論을 「리카도」(David-Ricardo : 1772~1823)가 體係化하며 主張한 「商品價値는 勞動의 投入量에 따라 決定된다」는 理論을 「마르크스」가 引用한 理論으로서 「勞動은 商品價値의 實質이며 價値測定의 尺度」라고 했다. 즉, 商品의 交換價値는 商品生産에 消費되어진 勞動量의 大小에 따라 決定된다는 것이다. 또한 「마르크스」는 勞動을 具體勞動과 抽象勞動으로 區分하여 交換價値는 抽象勞動만이 創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商品의 價値는 사람의 嗜好에 따라 增減하며 需要와 供給에 의하여 價値가 變動되는 것이다. 특히 천연 人間의 勞動이 所要되지 않는 天然資源, 油田, 土地 등도 需要의 大小에 따라 엄청난 價値를 創造하고 있는 것이다.

「剩餘價值說」

「마르크스」는 勞動만이 또한 剩餘價値(利潤)를 創造해 낸다는 억지 理論을 展開하고 있다. 그러므로 資本家は 勞動者가 生産하는 이러한 剩餘價値를 되돌려 주지 않고 獨占所有(擄取)함으로써 資本

主義社會는 날로 貧富의 差異가 커지므로 해서 勞動者의 不平不滿이 폭발하여 共產革命이 必然的으로 發生되어진다는 것이 剩餘價值說의 核心內容이다.

그러나 剩餘價値는 勞動·資本과 資源의 3要素에 의해서 이룩되는 것인데도 「마르크스」는 資本과 資源要素를 故意的으로 抹殺시키고 오직 勞動만이 剩餘價値를 創造한다고 主張하는 底意는 바로 勞動者로 하여금 資本家에게 反旗를 들고 「마르크스」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術策임이 分명한 것이다.

요컨대 機械文明이 발달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勞動者가 機械를 擄取(?)하는 現象에 이르렀다. 즉, 勞動者가 剩餘價値를 創造하는 것이 아니라 機械自體가 利潤을 生産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資本主義 沒落論」

「마르크스」는 이상과 같은 矛盾理論을 資本主義社會에 導入함으로써 資本家와 勞動者는 必然的 階級鬭爭을 일으키고 終局的으로 暴力革命이 발생하여 資本主義社會는 滅亡하고 共產主義社會가 到來한다는 것이 「資本主義 沒落論」의 骨子이다. 이러한 理論의 妥當性을 내세우는 根據로서: ① 資本著價의 法則, ② 資本集中의 法則, ③ 貧困増大의 法則 등 세 가지를 들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希望대로 資本主

義社會가 滅亡하기는 커녕 오히려 發展을 거듭하여 「搖籃에서 무덤까지」 참다운 人間生活을 保障받는 福祉社會로 발달음치고 있다. 이에 비하여 共產主義社會는 그들의 期待와는 반대로 生産性이 날로 減少하여 人民의 生活은 窮乏해지며 共產獨裁에 의한 새로운 支配階級の 搥頭로 인하여 以前의 資本主義社會 이상으로 矛盾과 病弊가 發生하고 있다.

結論的으로 資本主義社會가 漸進的 發展을 하게 된 動機는, ① 混合經濟實施, ② 資本의 大衆化, ③ 所有와 經營의 分離, ④ 各種 勞動條件 改善, ⑤ 技術革新, ⑥ 中産層의 擴大 등이라 할 수 있다.

(3) 「마르크스」의 政治理論

「마르크스」는 共產主義社會를 達成하기 위하여 主張하는 政治理論으로 세 가지를 提示하였는데 :

① 國家는 階級鬭爭의 産物이며 支配階級이 被支配階級을 壓迫하기 위한 道具에 불과하다고 主張하는 政治方法論으로서 「階級鬭爭論」이 있고,

② 獨裁體制는 共產主義社會를 成就하기 위하여 必然的으로 거쳐야 하는 政治的 過渡形態로서 「無産階級獨裁論」이 있으며,

③ 政治理念으로서 所謂 「能力에 따라 일하고, 必要에 따라 享有한다」⁸⁾는 共

産主義論」이 있다.

「階級鬭爭論」

「마르크스」는 原始共產社會가 무너지고 人類가 財産私有制를 實施하므로 해서 階級이 구성되었고, 이로 인하여 不斷한 階級鬭爭에 의하여 歷史가 發展되어 왔기 때문에 人類史는 곧 階級鬭爭史라 規定되고 國家는 支配階級이 被支配階級을 壓迫하는 工具라고 했다. 이러한 階級鬭爭은 資本主義社會에 이르러 有産者와 無産者의 對立으로 激化되어 無産者에게는 國家도 民族도 없으니 暴力으로 이를 打倒하고 共產主義社會를 建設함으로써 階級鬭爭은 消滅되고 安定된 勞動者의 祖國(共產主義國家)이 誕生된다는 것이 核心的 內容이다.

그러나 人類社會는 階級(Class)으로 構成된 것이 아니고 氏族(Clan)과 種族(Gens)인 生物的 因素로 인하여 家庭과 民族으로 構成되었으며, 특히 文化的 因素로 인한 각종 社會集團과 社會階層(Social Stratifications)이 形成되어 있기 때문에 階級이란 社會文化因素의 一部 現象에 불과한 것이다.

勿論 歷史 속에서 階級鬭爭은 存在한 것이 事實이나 「마르크스」의 主張대로 鬭爭에 의하여 歷史的 變遷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階級 간의 協力으로 人類文化는 발전되었다. 특히 現代社會는 階級은 어디까지나 流動的인 것으로 勞動者

도 資本家로 될 수 있고 資本家도 勞動者로 轉落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平等한 選舉制度, 勞動法制定 등으로 모든 社會矛盾을 스스로 改善한 民主政治의 結果라 할 수 있다.

要컨대 激動期의 一部 社會現象을 人類歷史 全體에 역지 適用시킨 「마르크스」의 獨斷論은 言及할 必要조차 없다.

「無產階級 獨裁論」

「마르크스」가 暴力革命에 의하여 樹立된 共產政權을 維持하기 위하여서는 무자비한 「無產階級獨裁」(Proletarian Dictatorship)를 實施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이러한 獨裁를 遂行해야 하는 理由로서:

① 資產階級の 再生과 復讐를 根絶하고, ② 私所有財產의 共有化에 의한 反抗을 鎮壓하며 ③ 完全한 共產社會에 이르는 過渡期의 無產階級國家 樹立을 돕고 있다.

다시 말해서 「無產階級」(Proletariat) 9)은 統治經驗이 全無한데 비하여 資產階級은 오랜 統治經驗이 있기 때문에 政權維持에 不安하고 또한 資產階級은 비록 敗北하고 財產을 收奪당하기는 했어도 多少의 經濟能力과 國外勢力과의 連帶關係로 인하여 再生할 可能性이 크다는 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無產階級獨裁를 實施해야 한다는 理論의 骨子이다.

그러나 無產階級獨裁란 어디까지나 勞動階級이 새로운 支配階級으로서 「資產階級」(Bourgeoisie)에 대한 獨裁를 말하는데, 오늘날 共產主義國家에서는 이미 資本家들이 存在하지 않는데도 무엇 때문에 獨裁政治를 施行하고 있는가?

그것은 말할 必要도 없이 無產階級에 대한 獨裁를 恣行함으로써 스스로 矛盾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獨裁는 共產社會가 완전히 達成될 때까지 過渡的으로 實施한다고 하면서도 地球上에 共產政權이 나타난지 半世紀가 훨씬 지났는데도 여전히 獨裁政治를 실시하고 있는 底意는 100年이나 200년도 一時的 過渡期라고 主張하는 共產主義式 言語魔術이다.

더구나 오늘날 共產主義者들은 이러한 自體矛盾의 突破口를 찾기 위하여 無產階級獨裁는 地球上에 資本主義國家가 存續하는 날까지 계속된다고 主張하게 됨으로써 過渡期라는 概念을 永久化시키고 있다.

요컨대 어떤 社會가 되든 어떤 階級이 誕生하든지 간에 人間의 根本欲求인 私的所有欲을 根絶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無產階級 獨裁論은 共產主義가 最惡의 專制政治社會임을 自認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共產主義論」

共產主義의 根本이 되는 思想은 人類

社會의 모든 不幸과 不義가 私有財產制度에 있으니 이것을 撤廢하면 自由와 幸福이 保障되는 地上樂園이 이룩된다는 저극히 素朴한 생각에서 始作된 것으로 社會主義라는 말보다는 그 淵源이 깊다. 希臘時代의 「플라토」(Plato : B. C. 427 : 347?)의 「理想國」(Republic)에서 出發하여 中世 基督教共產主義를 거쳐 近世의 「토마스·모어」(Thomas More : 1478~1535)의 「理想郷」(Utopia), 「갑파넬라」(Thomas Campanella : 1568~1639)의 「太陽의 都市」(Civitas Solis)로 이어지는데 모두가 私有財產 撤廢를 主張하였다.

그러나 現代的 意味의 共產主義思想은 19世紀에 이르러 나타났는데, 佛蘭西의 「상시몽」(St. Simon : 1675~1755) 「푸리에」(F. M. C. Fourier : 1772~1837), 英國의 「오웬」(Rebert Owen : 1771~1858)으로서 이들은 近代社會主義의 鼻祖라고 한다. 이러한 社會主義者들의 思想은 당시 「社會改造論」으로 세상에 알려졌고,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하여 이들은 「空想的 社會主義者」라고 불리어졌으며 自身들의 소위 「科學的 社會主義」와 區別을 하였던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1840年代에 그들의 政治組織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社會主義라는 말을 피하여 앞서 밝힌 古典的 共產主義와는 전혀 無關한 共產主義라는 말을 使用하게 되었다.

「마르크스」는 「共產黨宣言」(Communist Manifest : 1848)에서 「……社會主義(空想的 社會主義)는 有産階級(Bourgeoisie)의 運動이다」라고 함으로써 明白히 區分지었다.

그 후 「마르크스」는 「고타綱領批判」(10) (1875)에서 共產主義社會의 實現을 위해서는 두 段階를 거쳐야만 하는데 : ① 基礎段階로서 「能力에 따라 일하고 일한만큼 所有한다」(11)는 社會主義(Socialism)와 ② 高級段階로서 「能力에 따라 일하고 必要에 따라 享有한다」는 共產主義(Communism)의 段階로 區別하였다. 「마르크스」는 最後段階인 共產主義社會가 이룩되면 : ① 共同生産, 共同所有로 모든 經濟的 矛盾은 消滅되고, ② 일체의 階級이 사라져 階級鬭爭이 없으며, ③ 家庭과 婚姻制가 消滅되어 完全하고 公開的인 「共妻制度」가 실시되고, ④ 民族과 國家가 역시 消滅하며, ⑤ 모든 觀念形態의 差別이 없이 共產主義思想만이 唯一하게 存在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以上에서 「마르크스」理論을 綜合하여 보면 비록 그가 暴力革命을 主張하고 있으나 그가 目標로 하는 根本理念은 多분히 宗教的 色彩를 띤 共產主義式 地上天國을 建設하려 하고 있다는 것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이러한 「마르크스」理論이 空想的 內容임을 看破한 「마르크스」以後의 共產主義者(12)들은 人類의 自由意志를 無視한 채

前代未聞의 獨裁政治를 실시함으로써만이 共產政權을 維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므로 해서 「마르크스」理論의 虛構性을 代辯하고 있다.

結論의으로 「마르크스」의 共產主義論은 「러셀」(Bertrand Russell: 1872~1970)이 그의 「西洋哲學史」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마르크스」理論은 虛構와 矛盾에 찬 「新神學」의 教理(Dogma)에 不過하다면서 「마르크스」와 「基督教」(Christianity)를 아래와 같이 比較하고 있다.

「예수」(Jesus) — 「辨證唯物論」

「메시아」(Messiah) — 「마르크스」

「選民」 — 「無產階級」(Proletariat)

「教會」 — 「共產黨」

「復活」 — 「暴力革命」

「地獄」 — 「資產階級에 대한 獨裁」

「天堂」 — 「共產主義社會」

3. 結 論

「마르크스」主義의 批判에서 結論을 내리기 전에 提示되는 前提條件은 어떤 「主義」(Ism)가 좋고 나쁘다고 하기 이전에 人間이 올바른 理性的 判斷 아래 自由意志를 가지고 人間다운 生活을 維持할 수 있는 與件이 保障되는 社會라면 무슨 「主義」와 「思想」을 標榜해도 無關하다는 것을 과감히 主張할 수가 있다.

이러한 社會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自由民主主義 社會임은 두 말할 必要조차 없는 것이다.

「攻心爲上, 攻城次之」라는 孫子兵法의 말처럼, 우리는 人類的 最大의 敵인 共產主義를 打倒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反共思想의 透澈한 理論의 武裝을 하고 共產主義와 싸운다면 반드시 勝利할 것을 確信하며 나아가서 自由意志에서 發生하는 自發的 勇氣보다 강한 武器는 없으며 바로 이러한 武器는 우리들에게만 存在하기 때문에 더욱 더 共產主義의 必亡을 自身있게 主張할 수가 있다.

<註 解>

- 1) 「共產主義는 무엇인가」, (北京: 人民出版社, 1978), p. 14.
- 2) 마르크스, 엥겔스, 「共產黨宣言」, 마르크스, 엥겔스選集, 第1卷(北京: 人民出版社, 1972), p. 250.
- 3) 나폴레옹 III세가 프로이센軍에 포로가 되자 佛蘭西 파리에 設定되었던 革命的 勞動者 政權(1971. 3. 18~5. 28).
- 4) 마르크스, 「헤겔哲學批判」, 마르크스, 엥겔스 全集, 第1卷(北京: 人民出版社, 1971), p. 460.
- 5) 「마르크스 主義의 三個根源」(北京: 人民出版社, 1978), p. 64. 포이에르바하, 「基督教의 本質」
- 6) 엥겔스, 「포이에르바하와 獨逸古典

- 哲學의 終結」, 마르크스, 엥겔스選集, 第4卷(北京: 人民出版社, 1972), p. 237.
- 7) 레닌, 「唯物主義와 經驗批判主義」, 레닌全集, 第14卷(北京: 人民出版社, 1963), p. 116.
- 8) 佛蘭西 社會主義者인 「루이·브랑」(Louis Blanc: 1805~1881)의 말.
- 9) 「엥겔스」는 共產主義原理에서 「無產階級은 19世紀 都市勤勞者 階級을 意味한다」고 하여 全體 無產階級을 指稱하지 않았다. 共產主義原理은 共產黨宣言을 作成하기 위한 基礎綱領이다.
- 10) 「마르크스」가 獨逸 社會主義者인 「라살레」派(Lassalian Socialist)를 공격하기 위하여 1875년에 쓴 책.
- 11) 佛蘭西 社會主義者인 「상·시몽」(Saint Simon: 1760~1825)이 한 말.
- 12) 「마르크스」의 死後에 「칼·카우츠키」(Karl Kautsky: 1854~1938)를 中心으로 한 正統派와 「록셈부르크」(Losa Luxemburg: 1871~1919)와 「레닌」(Nikolai Lenin: 1870~1924)을 頂點으로 한 極左派 간의 理論의 分裂을 말함. 西獨 共產主義는 前者들, 소련 및 아시아 共產主義는 後者들 繼承하여 世界共產化에 대한 目標은 동일하지만, 그 遂行方法에 있어서 妥協할 수 없는 理論問題가 存在해 있다.

<名言名句>

◎ 運命은 우리들을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하지 않는다. 다만 그 재료와 종자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줄 뿐이다.

— 몽테뉴 —

◎ 士氣는 무엇보다도 指揮官에게 달려 있다. 왕성한 사기는 훌륭한 指揮官이 없이는 생겨 날 수 없다.

— 몽고메리 —

挑

戰

—— 增大하는 蘇聯의 威脅 ——

최 재 구 譯

최근 몇 달 동안에 발생한 사건들은 분명히 미국이 위험한 역사적 분기점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들이다.

1980년대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국제적인 변화와 도전이 계속되는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 세계 1, 2차대전 긴장으로 연속된 냉전, 많은 피를 흘렸던 한국과 월남전 등의 대변혁기를 경험하면서 발전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난무하는 폭력, 혼란 및 위기에 계속적으로 직면해 왔었다. 우리는 또 다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이익에 치명적인 분쟁과 교통과 접촉하는 직접적인 위협을 보게 되었다.

우리가 직면한 당면과제는 석유가 풍부한 페르시아에서 자유세계의 중대한 이익에 대하여 소련의 위협이 점차 증가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도처에서 서서히 폭발하려는 다른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1980년대는 자유세계가 직면했던 그 어느 때 보다도 위험한 연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바로 그 80년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 위협에 대처하며 우리의 국가적 이익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균형된 군사력, 정치적 및 경제적인 대응 조치가 요구된다. 미국과 소련의 국내 정치적인

차이가 극심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차이의 하나는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미국과 소련의 시민들이다. 미국에서는 국가적인 결정들은 시민들로부터 나온다. 소련의 체제는 그러한 결정에 대한 주도권을 시민들로부터 구하거나, 허락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정치적, 외교적 방향을 뒷받침하는 것은 다수의 뜻이요, 시민들의 단합이다.

시민들이 위로부터 통제를 받는 소련에서는 공개된 정치적 경쟁을 식별하기란 불가능하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8만 5천명 이상의 소련군이 소련인민의 대다수의 진정한 뜻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표면적으로나마 두 정치체제가 과거 35년간 어떻게 같이 지내왔는가?

소련은 앙골라, 쿠바, 에티오피아, 남예멘, 베트남 그리고 그 외 지역에서 약간의 주목할 만한 이익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들은 유고, 이집트, 소말리아, 그리스, 인도네시아, 수단 및 중국에서도 시도해 보았으나 실패했다.

소련의 영향력은 핀란드, 루마니아, 시리아, 탄자니아, 기니아, 북한같은 나

라에서 현저하게 감소했다.

소련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회에서의 생활실태가 어떠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은 쿠바, 베트남, 캄보디아, 동독, 그리고 소련자체에서부터 외부로의 대량 탈출사실이다. 소련체제의 매력은 분명히 수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지 못한다.

미국과 소련의 경제력은 비교할 수도 없다. 미국의 GNP는 2조 8천억달러로서 소련 GNP의 1.5배 내지 2배나 된다.

만일 미·소 두 나라의 동맹국들의 GNP를 포함하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경제력은 소련진영의 거의 4배나 되는 우위를 차지한다.

미국의 경제가 일시적인 퇴조를 보이고 있는데도 G.N.P소득은 80년대 중반에는 실질적으로 4조억달러에 달할 것이다. 한편 소련의 경제는 1950년대의 6% GNP 상승률이 1979년에 약 2%의 성장에 그쳤다. 두 경제체제간의 상대적인 경제발전추세와 정도는 분명히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유리하다.

농업부문이야 말로 소련의 가장 큰 경제적 난제 중의 하나이다. 소련의 농업체제는 대략 4,600여 집단농장과 국영농장

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들 농장에서 노동자들은 전체 파종지역의 5%에 해당하는 지역을 사유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적은 구역에서 소련의 고기, 밀, 콩, 채란과 채소류의 25%와 66%의 감자를 생산한다.

한편 식료품 생산에 있어서의 미국의 능력과 효력은 전세계적으로 월등하며 이는 인구의 5%도 못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분명히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소련 진영보다 우월하다.

그러나 국가안보수단의 세번째 지주인 군사력 균형에 있어서 어떤가?

강력한 정치적 및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서 있으면서도 미국과 동맹국들의 국가안보는 강력한 군사적 능력없이 심각한 위협에 놓여 있다.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 군대의 수, 탱크, 포, 함정, 항공기를 비교하는 대신 능력과 의도면에서 대조를 해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소련의 해군사령관인 고르쉬코프제독은 수년동안 소련의 군사력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증강되었나를 회상하면서 소련의 의도를 고찰해 볼 때 소련 해군은 분자 그대로 장거리 군대라고 했다.

소련에게 있어서 이 말의 뜻은 소련 자신의 영토의 방위 및 동맹국의 보호에 국한하지 않으며, 미국이 그러하듯이 경제적 생명선에 대한 안전을 의미한다.

소련에 있어서 해군은 군사력을 통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들의 직접적이고도 간접적인 노력의 증거이다.

소련은 수년동안에 그들의 전략적 및 재래식 군사력을 가속도적으로 증강시켜 왔다. 15년전엔 미국이 핵우위를 점유했었던데 반하여 오늘날에는 전략 핵군형상태가 되었다. 오늘날엔 미국의 재래식 군사력은 점차 대등하게 되었고 어떤 경우엔 소련군사력이 능가하고 있다.

질적인 차이면에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크게 안심할 정도는 아니다. 15년전엔 미국은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또 싸워 이길 수 있는 전방의 육·해·공군력을 유지하고 계획하는 능력면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향유했었다.

오늘날 소련은 위성국들의 국경을 훨씬 넘어서까지 군사력을 투입하는 능력을 급속도로 팽창시키고 있다.

소련은 지금 미국이 모든 부문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군용항공

○ 航空 · 軍事 · 科學 ○

기를 각 부문에서 생산하고 있다.

소련은 과거 10년동안 미국이 투자했던 것보다 27%나 더 많이 연구개발분야에 투자를 해 왔다.

소련의 국방예산은 15년전에는 미국보다 25%가 적었으나 지금은 40%가 더 많다. 소련은 현재 GNP의 14%를 군사 부문에 배당하고 있다.

미국은 내년부터 GNP의 5%를 국방 부문에 지출할 계획이다. 그 외에 소련은 국방비를 인건비보다 무기부문에 집중 사용하고 있다.

한 예로서 미육군사병은 월 448불을 받는데 심중판구가 징집병인 소련육군은 월 10불정도를 받고 있으며 결혼했을 경우는, 약간의 가족수당을 받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소련 국방비의 많은 몫을 개개인 병사들에게 쓸 비용을 희생하고 무기부문에 총당한다.

이처럼 계속적이며 착실히 성장해 온 결과 소련은 오늘날 힘의 신장면에서 보다 큰 역할을 가지게 되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소련의 국제사회에서의 태도가 소련의 국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가까운 장래에는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시사해 주는 증거가 없다는 사

실을 고려해서 군사력 균형에서의 이 추세를 들러놓지 않으면 안 된다.

불과 몇년전만 해도 태평양과 인도양은 소련 군사력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상황은 달라졌다. 동북아시아에서의 소련의 군사적 위협은 가공할 만큼 팽창되었다.

일본의 경제적 생명선은 소련군사력의 존재로 6,000마일 이상이나 떨어진 페르시아만에서는 물론이고, 일본 본토 주위의 해역에서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다. 오늘날 소련은 2차대전후 일본으로부터 획득하여 반환치 않고 있는 북방섬들과 북해도에서 멀지 않은 곳에 1만여명의 소련 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동남아에서 소련은 커다란 전략적 중요 지점인 베트남에 공군기지와 항구들을 확보해 나아가고 있다. 소련군은 비올빈에 있는 중요한 미공군 및 해군기지에 위협스러운 만큼 가까이 있다. 소련은 페르시아만에서부터 마라카해협을 통하여 동남아,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해역을 지배할 수 있는 군사력 능력을 크게 발전시켜 왔다. 이틀 항구 및 공군기지에 증가된 소련군의 진출은 분명히 일일 약 300만불에 달하는 베트남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의 대가

로 제공된 것이다.

소련의 이와같은 원조는 20만의 베트남 군대가 캄보디아를 점령하고 있는 동안 베트남의 약한 경제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20만의 피난민을 타이 국경근처로 추방했다. 캄보디아의 국경 피난민촌은 슬프고도,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을 연출한다.

분명히 베트남의 정부는 피있는 피난민들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전횡을 수행하는 도구 이외의 목적엔 사용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동남아에 있는 수천명의 굶주리는 피난민들, 인간들은 농사를 짓고 그들의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서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낼 필요가 절실하다.

소련은 이 지역에서 그들의 존재를 강화하고 확장하기 위한 방면으로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 더 오래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8만 5천명 이상의 중무장한 소련군들이 소련의 안전에 위협을 준 바도 없이 오직 자유스럽기만 바라는, 금지되고 독립된 나라를 복종시키려 하고 있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입은 동남아일대 국가들의 독립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동시에 많은 국가들의 경제적 생명선(중동의 석유)을 통제할 수 있는 길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현재 총 유티소모량의 15% 정도를 페르샤만 지역에 의존하고 있다. 서구 총 수요량의 3/4와 일본의 3/4의 석유가 페르샤만에서 공급되고 있으며, 그 외 동맹국들과 우방국들의 경제가 중동 석유통로의 자유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침공의 배후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 지역에서 불안 을 조성하고 선진자유세계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페르샤만 지역을 지배하려는 여하한 외부세력에의 한 기도라도 미국의 이익에 대한 중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우리는 무력을 포함한 어떠한 기도라도 필요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격퇴해야 된다. 미국은 소련의 더 이상의 그 어떤 모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도양에 병력을 증강시켰고, 필요하다면 우리의 국가 목적달

성을 지지하는데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미국과 동맹국들, 우방국들간의 상호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 빠르게 내년일 가능성도 있으나 분명 소련은 수년 내로 석유수입국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전략적으로 약간 중요한 것이다.

그들은 석유를 어디에서 수입할 것인가?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의 공급원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이미 시험해 보아서 잘 알려진 우세 내지 지배수단을 쓸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자주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는 『왜 미국은 소련이 앙골라, 에디오피아, 남예멘 같은 작은 나라들을 잠식하는 데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그들은 그래도 괜찮지 않은가? 이다.

사실 이들 나라들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그 대답은 아주 기본적이다.

미국은 200여년동안 국가의 독립을 지위해 왔다.

이들 국가들은 소련의 영향권 내에 있다는 것은 직접 간접으로 그 나라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에는 물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이익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가 80년대에 돌입하면서 인정해야 할 미국과 소련 사이의 경쟁은 서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분쟁지점을 이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소련은 이를 달성함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군사대리자를 이용하기도 하고 직접 군사력을 이용하는 수단을 파시해 왔다.

오늘날 소련의 공격에 대하여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세력은 단지 하나 미국이다.

이해 관계는 평화를 사랑하는 미국과 자유세계의 이익이 위협에 직면하여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 파괴되기 쉬운 태평양, 미·소의 상대적인 재래식 군사력의 추세가 만일 견제되지 않는다면 소련이 군사적 모험을 자행할지도 모를 태평양에서 특히 높다.

만일 하나의 국가로서 미국이 대항하지 않는 정책을 선택한다면 1980년대는 세계에서 미국이 꺼질 수 있는 영향력에 종말을 고할 것이며, 자유스럽고 민주적인 생활양식의 성장발전도 끝날 것이며, 소련이 바라는 세계 질서확립에로의 길이

개방되어질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힘이 크다면들 증대하는 위협들에 대처할 능력이 남아 있겠는가?

미국과 동맹국들은 자유와 인간성이 걸어되고 억압된 소련권 사회보다 더 엄청난 경제적 잠재능력과 훨씬 강력하고 더욱 융통성 있는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군사력이 오늘날 충분하다고는 하지만 소련의 급속한 군사력의 팽창에 그들의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소련의 의도를 주시하지 않으면 안 되며, 자유세계가 경쟁하며 승리하려면 이러한 군사력추세를 역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소련의 도전이 증대하다 하지만 극복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세계가 그러한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했던 것도 처음은 아니다.

어느 주간 뉴스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그것은 역사에 있어서 우울한 순간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로록 슬퍼하

고 깊은 우려를 해본 적이 없다. 국내상황은 혼란스럽다. 달리는 세계적으로 약세에 처해 있다. 물가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극도로 높다. 정치적 상황은 불확실하게 비등하고 소란스럽다. 소련은 늘 그렇듯이 수평선상에 걸린 검은 구름처럼 위압하며, 기회만 노리고 있다. 인간으로서 아무도 우리의 불안한 정래의 결과를 알 수 없는 엄숙하고 증대한 순간이다.』 고무적인 보도인가? 왜? 왜냐하면 그것은 120여년전인 1857년 10월에 출판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후, 자유세계는 전쟁, 외침, 경제적 변동, 국가 지도력의 극적인 변화 등 많은 도전에 봉착해 왔다.

그러나 강력한 민주사회는 계속 버티어 자유스럽게 지탱되어 왔다.

오늘날 우리는 다시 도전을 정면으로 받고 있으나 자유세계는 그러한 도전을 자유와 민주수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Asta-Pacific Defense Forum

1980년 FALL에서—

×

×

×

공군만상

鄭 雲 燮

<건군 33주년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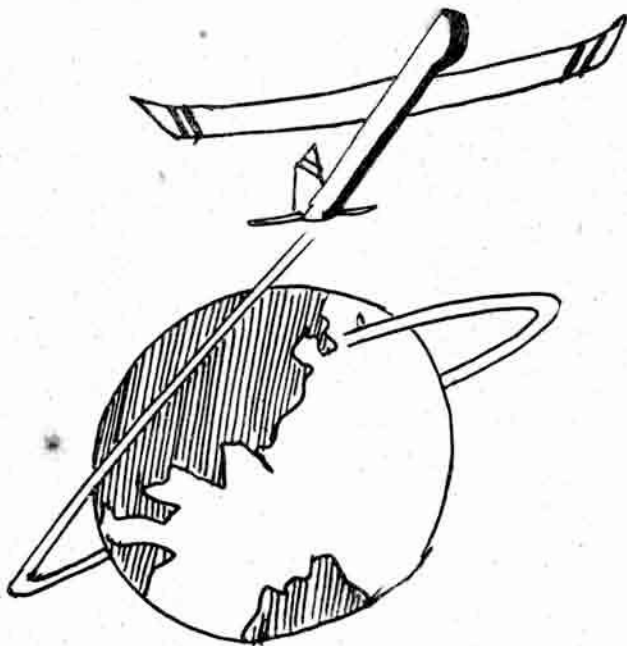
막강국군, 무엇이 두려우랴!



공·군·만·상

<제 3 회 공군참모총장 배
모형항공기 대회>

날로 번창, 이제는 세계로……



韓國戰에서의 空中作戰

본고는 한국전쟁당시 UN공군사령관이었던 오토 P. 웨일란드장군의 논문을 번역한 것이다.

Otto P. Weyland 장군 著
심 경 식 譯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북괴 공산주의자들은 한국을 공산지배하에 통일시키려는 정치적 야욕을 가지고 군사행동을 개시하였다. 그 군사목적은 남한을 점령·지배하려는 것이었다.

북괴의 목적이 점령이었기 때문에(지엠티부터 점령은 침공작전의 전통적인 목표였다.) 침공작전의 가장 주된 요소는 지상작전이였다. 또 그들의 군사력을 조직함에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은 남한에 있는 군사력만을 고려하였다.

1950년 4,5월 거대한 규모의 군사물자가 소련으로부터 북괴로 수송되었다. 북괴인민군을 위한 중고사포, 트럭, 탱크 및 자동소총들과 북괴공군을 위한 약간 구식의 비행기들 등이었고 북괴는 소총류 및 군수품, 식량을 자체 조달하였다.

북괴 인민군은 9개의 정예보병사단과 1개의 기갑사단을 전선에 배치하고 있었으며, 전쟁발발 후 두 달만에 거의 13개의 사단으로 증가시켰다. 전쟁 초기 북괴 공군력은 주로 YAK-7, YAK-11, IL-10으로 된 약 150대의 구식 소련기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와 비교하여 한국 지상군은 국경과 내부질서를 유지키 위한 6개의 보병사단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가장 화력이 센 무기라야 81mm 박격포였다. 비록 10대의 T-6훈련기로 구성된 공군조직이 있기는 했으나 실제적인 의미에서 한국공군은 존재하지 않았었다.

북괴 공산주의자와 소련은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반격을 전혀 예상치 않았었으며 게다가 공산주의자들은 비록 다른 나라의 개입이 있을지라도 그

들의 군사목적을 달성한 후에야 겨우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이 두가지 예상은 전부 그릇되었다. 미국국동사령부(FEC: Far East Command)의 공군 구성요소인 극동공군(FEAF: Far East Air Force)은 UN이 참전을 결정한 후 8시간 이내에 군사행동을 개시하였다. UN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는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곧 조직되었다. 그 임무는 한국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UN군사령부는 미지상군 외에 영국·캐나다·터키·그리스·룩셈부르크·이디오피아·프랑스·벨기에·필리핀·오스트레일리아·콜롬비아·타일랜드·뉴질랜드·네덜란드의 지상군으로 구성되었다. 또 극동공군 외에 미 해병·해군 항공대·영국·오스트레일리아·남아연방·그리스·한국·타일랜드 공군이 합세하였다. 덴마크·노르웨이·인도·스웨덴·이태리는 의무대를 보냈다.

공군의 활동 개시

UN공군이 한국전쟁에서 이룬 성과를 검토해 볼 때, 북괴공군이 근대 항공능

력을 개발하였다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겠는가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흥미 있을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개입을 예상치 않았던 것 같으며, 혹 예상하였더라도 공군력의 기동성·융통성 및 육군에 대한 저지력을 과소평가했음에 틀림없다.

북괴군이 침공하고 UN군사령부가 아직 조직되지 않았을 때의 극동공군을 잠깐 살펴보자. 점령군으로서의 극동공군의 임무는 국내안전과 방공에 있었다. 진술훈련계획은 실제요격임무, 훈련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극동공군의 전투부서는 8개의 비행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5개의 전투비행단, 2개의 폭격비행단, 1개의 수송비행단과 그 외의 지원부대로 되어 있어 총 1,172대의 항공기로 되어 있었다. 오키나와, 팜도, 필리핀에 있는 각 1개의 비행단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본에 있었다. 극동공군은 한국전에 투입되었어도 극동에서의 방공임무는 여전히 계속 수행해야 했다. 1개의 중폭격기, 1개의 경폭격기 비행단과 8개의 전투비행대가 한국전에 투입되었고 10개의 전투비행대는 일본·오키나와·필리핀의 방공을

말았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많은 수의 부대가 모기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여름 기동 훈련에 참가하고 있었다. 비상사태가 갑작스럽게 발생하였기 때문에 어떤 부대는 모기지로 귀환하지도 못한 채 전투에 투입되었고, 다른 부대는 이동명령과 함께 투입되었다. 이동하기 위해서 전투작전을 멈출 시간은 없었다.

이 지역 내에서도 이동이 있었지만, 전력증강계획은 미본토로부터도 이루어졌다. 결정이 난 후 10일 이내에 2개의 증폭적기전대가 극동으로 이동되어 한국에서의 전투임무를 수행하였다. 30일 이내에 해군 항공모함 복서(Boxer)호가 현 극동공군의 항공력을 보충하기 위해 145대의 F-51을 가지고 도착하였다.

이제는 공군력에 고유한 기동성의 측면보다 그 화력으로 논점을 옮기려 한다. 앞으로 상황전개의 과정을 추적해 가며, 중요한 사실에 대해 우리의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이를 검토해 보자.

북괴 인민군의 패퇴

북괴 인민군은 1950년 6월 25일 공격을

개시하여 6월 29일에 벌써 서울을 점령하였다. 한국 육군은 북괴 인민군의 거센 진격 앞에 남으로 후퇴하여 미국이 참전했을 때는 붕괴직전에 놓여 있었다.

처음 이틀동안(6월 25, 26일) 극동공군은 주로 미국인의 철수와 그 호위임무를 맡았다. 그 다음 이틀 동안은 38°선이 남의 지상목표물에 대한 공격과 약간의 공중교전에만 국한되었다. 7월 4일 미 제 24사단이 공수되어 참전하였으며, 한국 육군과 함께 지연작전을 개시하였다. 미 제 25사단도 후에 합세하였다. 그러나 북괴 인민군은 여전히 남쪽으로 진격해 왔으며, 8월 중순 부산 방어선이 구축되었을 때 겨우 저지되었다.

6월 29일 공군에게 압록강까지의 지역 내에서의 작전활동이 허가된 후 주로 북괴의 비행장에 대해 공격을 감행하였다. 7월 하순까지 극동공군은 주로 지상에 있었던 적기를 파괴하여 약 18대 정도의 비행기만을 남겨서 북괴 공군력을 단지 상징적인 존재로 만들고 말았다. 우리 측은 최소한의 노력과 희생만으로 한국 상공의 제공권을 확보하였으며, 그때 이후로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북괴공군의 공중공격은 다만 약간 귀찮은 정도

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다. 만일 북괴공군이 그렇게 격파되지 않았다면 한국육군에 대해 아주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었을 것이다. 그동안 나머지 UN공군력은 북괴 인민군의 진격을 저지하며 UN육군을 위한 근접지원작전을 수행하는 데 투입되었다. 비록 적의 후방지역에 있는 주 보급로를 차단했었다면 훨씬 유익했었을지도 모르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UN육군이 버틸 수 있었을지는 아주 의심스럽다. 공군력은 화해직전에 있던 지상군을 보강하는 데 투입되어야만 했다. 육군에는 조직적인 지원화력이 부족했으므로 공군의 근접지원작전이 이를 대신해주어야만 했고, 이렇게 해서 지상군은 시간을 얻을 수 있었다. UN공군의 전과를 보여주는 것으로는 7월 10일 평택 부근에서 목격에 의해 파괴된 다리에 집결해 있던 적의 부대를 공격, 117대의 트럭, 38대의 탱크 및 7대의 반트럭을 파괴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공격들로 해서 북괴 인민군 기갑사단은 부산지구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꺾배기만 남게 되었다.

7월말 최초의 후방차단계획이 시작되면서 UN공군의 공격대상은 후방지역의

주 보급로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적이 야음을 이용해 보급물자와 인원을 수송하였기 때문에 이 작전은 24시간 계속되는 것이어야 했다. 적은 그들은 군수활동만 야음에 수행한 것이 아니라 전투 자체도 야음을 이용해서 하였다. 야간목격은 주로 B-26기가 맡았다. 근접지원이 다른 작전보다 성과가 적어졌던 8, 9월에도 상급부서에서는 대부분의 공군력을 근접지원작전에 투입하였다. 그의 후방차단작전에 투입되었던 약간의 공군력은 7월초 평균 206톤에 달하던 적의 보급물자를 부산 방어시설에는 겨우 21.5톤에 그치게끔 하였다.

그러는 사이 8월 중순 이래 부산지역의 UN지상군은 4개의 미 보병사단, 7개의 한국사단, 1개의 영국여단으로 증강되었다. 이렇게 증강된 전력으로 9월 15일 지상군은 부산방어선을 넘어 진격을 개시하였다. 제1해병사단과 제7 미 보병사단은 같은 날, 인천에 상륙하였다. 이 시점에서 공군이 그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음이 명백해졌다. 부산지역을 둘러싸고 있던 북괴 인민군은 폭격에 의해 숫자가 감소되고 후방차단작전에 의해 거의 굶어 죽게 된 상태로 떠만 앙

상하게 남은 해골바가지에 지나지 않았다. 북으로 밀고 올라가는 UN군은 조직적인 저항을 거의 받지 않았다. 인천에 상륙한 부대도 마찬가지로 어떤 격심한 반격을 받지 않았으며 게다가 공군이 적의 보급로를 공격하여 적의 기동성을 약화시킴으로써 보호되었다. 실제로 UN공군의 후방차단 효과는 대단한 것이어서 우군의 인력 및 물자가 북으로 이동하는 데 상당히 힘이 들었다. 우군이 전진하는 도중에 후방차단에 의해 파괴되었던 철교를 신속히 수리한 만한 장비와 숙련된 기술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육군은 너무 빨리 진격했기 때문에 그 보급계통이 이를 따르지 못하였다. 공군은 군수물과 보급물자를 공수하였으며 이것은 C-119, C-47, C-54 수송기들이 대구에서 압록강까지 운반하였다. UN지상군은 도주하는 북괴 인민군의 바로 뒤를 쫓아 10월 하반기에 압록강에 도착하였다. 이 동안 공중공격으로 격파된 북괴 인민군 부대의 이따금씩의 약한 저항이 있었으나, 적은 철수기간동안 그 어느 때도 강력한 방어전선을 구축했던 적이 없었다. 적을 차단키 위해 10월 20일 원산에 상륙했던 미 X군단의 장병들

은 너무 늦게 도착한 게 되었다. 한국 육군이 이미 도착했던 것이다.

1950년 7월부터 10월까지 북괴 인민군의 잔존부대가 압록강까지 후퇴하기 전 4개월간 공군에 의한 파괴활동 때문에 적에게는 이 전쟁이 아주 값비싼 것이 되었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극동공군은 애초에 1개의 중폭격기 비행단을 가지고 참전했다. 8월 첫째 주까지 4개의 B-29기 비행단이 추가되었다. 북한의 경제사정으로는 중요한 목표가 될 만한 산업시설이 거의 없었다. 이 산업시설들은 10월 2일까지 거의 다 파괴되었고, 두 개의 중폭격기 비행단은 미 본토로 귀환하였다. 이 기간동안 적의 비행장들은 파괴되어 사용 불가능하게 되었고, 항구·조차장·통신소·보급소들은 계속적인 공격을 받아 전쟁물자를 쌓아 둘 수가 없었다. UN공군의 활동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불완전한 통계에 의할지라도 최소한 39,000명의 적군이 공중공격으로 사망하였다. UN육군이 진주해 가기 전에 후방으로 옮겨진 부상병들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 39,000이란 숫자는 공중이나 지상으로부터 직접 관찰된 숫자이며, 관찰이 불가

능한 공중폭격이나 야간공격에서의 피해 숫자를 포함치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숫자는 1950년 6월 25일 침공할 당시의 10개 사단병력의 1/3에 해당하는 것이다. 공중폭격은 또한 452대의 탱크-우군에 의해 파괴된 전 탱크의 76%에 해당함을 파괴한 것으로 믿어진다. 후방차단계획에서는 75개의 교량이 사용 불가능하게 되었고 5개가 계속되는 공중폭격에 의해 손상되었다. 적의 수송체계는 6,000대의 자동차, 1,300대 이상의 수하물차, 약 260대의 기관차가 파괴되는 피해를 입었다. 북괴 인민군을 완전히 궤멸시키기 위해 지상군은 수많은 적군을 살해하였으며 100,000명 이상을 포로로 잡았다. 최종적으로 투입된 13개 사단의 장비 이외에 약 사망자와 포로들 중의 많은 숫자는 지원군들이었다.

UN육군의 몇 개 부대들이 10월말 압록강까지 진출하고 있을 때 중공군은 예기치 못한 반격을 시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약간의 중공군부대는 이전에 참전하였었다. 어쨌든 원래의 전쟁은 끝났다. 북괴의 무력은 궤멸되었으며, 북한지역은 점령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적 이 참가한 전쟁은 바야흐로 시작하려 하

고 있었다.

중공군의 참전

11월말까지 중공의 육군은 2개의 포병사단에 의해 지원받는 9개의 군(Army)으로 증강되었다. 각 군은 6개 포병대 정도의 화력을 갖추고 있었다. 개략적인 총 전력은 250,000명 이상이었으며, 그 이상으로 증강될 가능성도 명백하였다. 이에 대해 UN군은 11개 사단이 있었다. 한국에 있는 UN군 부대는 모두 267,000명 이었고, 그 중 130,000명은 미군, 127,000명은 한국군, 10,000명은 그 외 UN군으로 구성되었었다.

11월 26일 중공군은 UN지상군을 38°선 이남으로 몰아내는 공격을 시작하였다. 중공군 부대가 10월에 최초로 참전한 이래 적의 증강에 대한 공중폭격은 폭격선이 대부분의 지역에 있어서 압록강과 일치하였기 때문에 불가능하였다. 그 사이의 조그만 지역들에 대해서만 공격이 가능하였다. 공중폭격이 불가능함에 따라 생길 위기를 느끼고 UN지상군은 압도적인 적의 군사력에 밀려 심각한 손실을 내며 후퇴하였다. 이 패퇴가 완전한

파멸로 이르지 않았던 것은 주로 UN공군의 덕분이었다. 미 8군이 최소한의 사상자를 내면서 조직적인 후퇴를 할 수 있게끔 적의 진격을 충분히 늦추었던 것이다. 공중공격 때문에 중공군은 밤에만 이동할 수 있었다. 우군은 후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얻었고 적의 후방이 늘어졌기 때문에 또 다시 공군의 활동은 아주 효과적인 것이 되었다.

중공의 육군이 한국전에 개입했을 때까지 극동공군은 UN공군에 3개의 중폭격기비행단, 2개의 경폭격기비행단, 13개의 전투비행대대, 4개의 공수비행전대와 그 외의 지원부대를 보냈다. 중폭격기들은 오키나와와 일본으로부터, 경폭격기들은 일본 남부의 기지로부터, 또 전투기들은 서울과 부산지역의 비행장에서 발진하였다. 한국 전체가 B-29, B-26, F-51, F-80기 등 모든 종류의 전투비행기들의 행동반경 내에 있었다.

중공군 참전 이후 2개월동안 공중활동은 지상군이 후퇴하면서 포위당하지 않게끔 하는 데 집중되어 전쟁 초기 그들이 수행하였던 임무로 되돌아갔다. 후방 차단과 집중된 근접지원 때문에 적은 스스로의 호신을 위해 밤중에만 이동하고

전투를 할 수 있었으며, UN지상군은 대낮에 숨을 돌릴 수 있었다. UN육군이 38°선 근처에서 안정되었을 때야 비로소 후방차단 계획은 다시 재개되었다. 이때까지는 장거리에 걸친 공격으로 중공군의 진격을 늦추었다.

12월 중순의 38°선상의 UN군 위치는 오래 가지 못했다. 비록 UN공군의 공중공격 때문에 밤에만 이동할 수 밖에 없었다 해도 적군은 1951년 1월 1일 공격을 재개하는 데 충분한 전력을 차츰 증강시킬 수 있었다. 이 공격을 당하자 UN지상군은 후퇴하였다. 서울은 1월 4일 함락되었고 아 지상군은 평택-원주 선으로 후퇴하였다. 이 주 저항선(MLR: Main Line of Resistance)이 우군이 남쪽으로 후퇴한 최대의 선이다.

적이 진격함에 따라 UN공군의 누적적인 공중공격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로 밤중에 2급도로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중공군의 군수체계는 결국 붕괴되었다. 집중된 공중공격으로 보급이 불가능하여 적군은 전면공세(General Offensive)를 지원할 수가 없었다. 전쟁포로의 심문기록에 의하면 적의 후속부대가 압록강으로부터

전선으로 이동하는 때에는 두 달반 내지
 녀달이 걸렸으며, 도착하였다더라도 전투
 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피로해 있었
 다. 적의 보급로는 너무 늘어선 데다가
 계속 공격당함으로써 적절한 물자의 지
 원이 불가능했다. UN군 주 저항선
 (MLR)의 서쪽 지역에서는 적군이 서울
 남쪽에 있는 UN육군의 저항선을 결코
 공격해오지 않았다. 우군의 수색조는 적
 을 만나지 못했으며, 수원 이남에서는
 한 명도 보지를 못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 UN지상군은 대
 용공격을 개시하여 4월 초까지는 지난
 12월에 구축되었던 전선 이북까지 나아
 갔다. 이 곳에서 적군은 그 위치를 고수
 할 수 있었다. 비교적 정제된 전선을 유
 지한 채 적은 보급물자를 충분히 확보하
 여 UN군을 한국에서 축출키 위해 두 번
 이나 재공격을 시도하였으나 UN공군의
 공중폭격으로 중공군의 군수체계가 제대
 로 운용되지 못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게다가 이 공격으로 적의 부대가 공중공
 격에 노출되고 말았으니 극심한 인명 및
 물자의 손실만 초래하였다. 그 위력적인
 공중활동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2개의 중
 공군 군(Armies)을 화천저수지에서 포

위하여 한 시도 쉬지 않는 공격을 해대
 었던 경우가 있다.

서울의 바로 북방으로 후퇴하여 미 8
 군은 적의 공격을 격파하고 5월 22일에
 는 공격을 시도, 북진하여 앞으로의 2년
 간 주 저항선(MLR)이 위치하게 될 지
 역까지 나아갔다. 적군은 패하여 도주하
 였다. UN군의 위협에 직면하자 적은 협
 상하러 하였다.

7월 10일 첫 휴전회담이 열렸다. 이때
 부터 UN군의 지상전력은 휴전협정이 체
 결 때까지 인명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
 방어적으로 되었다. 적의 보급로를 단축
 시킨과 동시에 전선 및 보급로를 확장시
 키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여겨졌
 다. 이제까지의 작전에 의해 획득된 지
 역 때문에 훌륭히 방어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이 지역에서 장거리 수색,
 습격 및 한정된 목적을 가진 공격을 행
 하였다. 이 제한된 공격의 목적은 적군
 의 균형을 파괴하여, 방어에 있어 결정
 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을 확보하려는 것
 이었다.

한국전의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 적은
 상당히 큰 손실을 입었다. 1950년 11월
 에서 1951년 6월 사이에 적은 주로 중공

군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UN공군은 이동중인 적에게 아주 큰 타격을 가하였다. 적의 전방지역 및 후방의 교통망을 주야로 계속 폭격함으로써 117,000명의 적군을 사망케 하였고, 1,315개소의 포진지, 296대의 탱크 또 군대막사와 보급창고로 쓰이는 8,000개 이상의 진물을 파괴하였다. 13,000대 이상의 차량, 2,600대 이상의 수하물차, 250대 이상의 기관차가 파괴당함으로써 적의 수송체계는 완전히 불구신세가 되었다. 군대와 보급물자물 야간에 수송해야 하는 제약이 더 심해짐에 따라, 제공권을 UN공군이 장악하고 있는 한 적이 미 8군을 한국으로부터 축출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지고 말았다.

야전군의 패배와 파괴

실지로 일어난 일들을 적절히 개관해 보기 위해 전쟁의 첫번째 및 두번째 단계를 검토해 보자. 공중작전은 합동작전을 하기에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통신 및 통제체계와 임무수행에 적당한 훈련을

받지 않은 약간의 인원만 가지고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임무수행은 성공적으로 되었으니, 그 이유는 UN공군의 능력 이외에 북괴 공군을 적절히 발전시키지 않은 공산주의자들의 통찰력 부족에도 있었다. 전쟁의 전 단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적의 공군이 완전히 파괴되어 우군의 공군 기지 및 지상군을 공중공격의 위협성에서 벗어나게 하여, 우군의 거대한 군수 및 통신체계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해 주고 우리의 공군이 마음 내키는 대로 진격해 오는 적을 공격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만일 상황이 반대였다면, 또는 UN공군이 대부분의 노력을 북괴 공군과의 계속된 전투에 소비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공군과 지상군의 일정한 장소에서 활동을 할 때에는 각자의 고유한 능력 범위 내에서 다음의 일들을 완수해야 한다. 작전지역 및 그 지리, 주민, 군사력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은 공군과 지상군의 책임이다. 공군은 적의 공군력을 파괴하여 공중을 방어함으로써 안전을 도모해 준다. 만일 상황이 허락하거나 전략이 적절히 세워졌다면 공군은 작

진지역의 전략적인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접근해 오는 육군이 작전지역에 채 도착하기 전에, 또는 우지상군이 위기에 처하기 전에 그 육군을 결정적으로 파괴하고 혼란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공중합동의 효과는 공중공격에 이용될 수 있는 시간, 공간 및 화력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이러한 종류의 공격에서는 그 효과가 신속하고도 굉장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한국에서의 공중작전의 시초는 적의 진격을 파괴하고 혼란시킨다는 경우를 보여주는 고전적인 예가 된다. 한국 육군은 혼란된 채로 성급하게 후퇴하여 압도적인 적 지상군을 공군이 공격해야만 할 수 밖에 없었다. 부산방어지역에서 미국과 영국의 지상군이 보강되자 한국 육군은 그들의 위치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우리는 부산지역의 적에게 연결되는 보급물자의 흐름을 차단키 위해 개시된 후방차단작전에 대해 토의하였다. 이러한 작전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적의 군수능력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절멸시킬 수 있을 정도의 장기간에 걸쳐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또 이 작전과 함

계 후방지역 및 전선에서 적의 인명과 장비를 계속적으로 파괴할 때 그 작전의 효과는 이와 같은 합동전술로 인해 훨씬 커질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작전은 지상군이 적군의 배후에 있는 것과 같은 정도로 확실하고도 결정적으로 적을 수직 포위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 육군의 전술은 지상군에 의한 측면포위와 같은 정도로 강력한 공중포위의 특유한 효과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수정되어져야 한다.

현대전에서는 이전에 항공력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보다 포위물파가 쉬우며, 측면 공격의 위험성도 마찬가지로 보다 적다. 왜냐하면 공중공격하의 적은 적절하게 기동성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차대전에서의 세인트 로(St. Lo)와 패튼(Patton)의 진격을 1차대전의 육군의 경우와 비교해 보라. 부산에서의 포위물파와 북괴 인민군을 격파해 나간 경우가 이와 흡사하다. 기동성이 없어지고 혼란에 빠진 북괴 인민군은 그들의 중화기물 모두 잃은 채로 격파당해 미 8군은 다수의 인민군을 포로로 잡았다. 실제로 서울 이남에서는 그들의 장비가 거의 모두 파괴되거나 노획되었다.

공중공격의 결과로 적군이 입은 피해에 대해 너무 주의를 하지 않는 듯하다. 실지로 아군의 지휘관들도 육군이 부산방어지역으로부터 돌파해 나오기 시작해서야 비로소 공중공격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인천상륙작전은 적군을 측면에서 포위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그러나 내생각으로는 북괴 인민군을 파괴하는 데 공중공격보다도 그 효과가 적었다. 물론 이 작전으로 해서 적의 지휘관들은 그들의 형세가 완전히 절망적으로 느끼게 되었다. 이 작전에 당해 그들은 틀림없이 퇴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공중공격의 효과를 완전히 인식했더라면, 증원군들은 부산에서 보다 유리하게 배치되었을 것이다. 증강된 미 8군이 적의 동·서양쪽에서 적을 주월할 정도로 빨리 진격하는 경우를 상상했다면 지상전술은 보다 더 낫게 만들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며, 이러한 사태는 실지로 일어났던 것이다.

인천상륙작전의 효과가 어떤 것이든간에 부분적으로는 공중공격의 효과를 감쇄시켰다. UN군사령부의 지휘관들은 인천상륙작전을 개시하면서, 공군력의 진

정한 역할에 대해 잠시라도 평가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다. 목표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작전사항을 검토했던 것이다.

우리는 UN육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하고 그 후 중공군이 압도적으로 공격해온 데 대해 얘기하였다. 이제 형세는 바뀌었다.

중공군의 개입이라는 돌발사태에 전혀 대비하지 않았던 것이다. 정치적인 제약과 지상군의 압록강까지의 진격 때문에 공군은 적 지상군에 대해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다. 공군은 결정적으로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나 압록강과 우리 육군 사이에 지상군을 위협하는 여러 요소를 감퇴시킬 만한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없었다.

압록강에서 막강했던 적 지상군이 미 8군을 포위·공격하는 데 실패했던 바로 그 군대라는 것, 우리의 최후 저지선을 돌파하는 데 실패했던 그 군대, 38°선이 북으로 밀려났던 그 군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는 약간 다를 뿐 역시 같은 군대였다는 것이다. 만일 시간적·공간적 여유만 있었다면 공군은 파괴, 후방차단작전을 되풀이

했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 지상군에 대한 공중작전을 단지 육군에 대한 지원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는 조직, 통제, 운영에 있어서 잘못된 관념을 만들어 내어 역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상과 공중의 전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전술을 세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 보다 더 명확한 견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육상·해상·공중의 전력이 모두 함께 전체작전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각 전력은 작자가 상대하기 가장 알맞는 분야를 맡아 대적(對敵)하고, 가장 공격효과가 큰 기회를 이용해야 하며, 그들의 전문적인 기술을 최대한로 사용해야 한다. 그들은 서로 서로를 지원해야 한다. 전장터에서 공군의 화력이 육군의 작전 및 화력에 통합되었을 때 이를 육군에 대한 지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런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전체적인 전술을 지상군의 기동 및 화력 개념 뿐 아니라 공중상황 및 공군력에도 알맞게끔 작성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상군의 전술을 공중전술의 효과를 충분히 이용하게끔 작성한다는 생각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게 될 것이다. 만일 목표와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성공하기 위해서 공중전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야 하고, 지상전력은 이 공중전력을 지원해야 한다.

전술군의 휴전: 공중작전

1951년 7월 이래 전쟁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양측 대표가 개성에서 만났을 때 그들은 정치적 목표, 군사적 목표 및 전술에 관해 이전에 결정했던 바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다. 실지로 이 회담은 급격한 변화였던 것이며, 새로운 전쟁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할 정도였다. 적과 우군은 양쪽 다 무력으로 한국을 통일시키겠다는 정치적 목표를 포기했으며, 또한 점령·지배하러던 군사적 목표를 단념했다. 양측의 정치적·군사적 목표는 이제 동일해졌다. 즉, 휴전협정을 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UN군사령부의 군사 전술도 변경되었다. UN공군의 임무는 적으로 하여금 더 이상의 결정적인 공격을 하지 못하게끔 만들고 북한의 적에게 최대의 압력을 가하여 유리한 휴전협정을 맺게끔 도우려는 것이다. 지상군은 강력한 방어선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그 임무였다. UN공군은 전체 전력 중의 공격요소였으며, 공중공격은 전체 합동전술 중의 공격요소가 되었다. 공중공격이 최종 목표 즉, 휴전을 위해 짜여졌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는 이것을 전략적 공격(Strategic Offensive)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며, 전쟁에 있어서의 이 단계를 공중작전(Air Campaign)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그리 명확하지 않은 듯 싶다. 이 변화를 이해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새로운 목표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양측은 이제까지의 전투에서 커다란 희생을 치루었다. 그러나 적의 희생은 훨씬 더 컸다. 그들이 회담을 개시했을 때는 우리들의 조건을 나름대로 추측하여 그 정도를 받아들여야 했었을 것이다. 허나 그 조건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불리한 것임을 알게 된 후에 자연히 협상은 걸어지게 된 것이다.

틀림없이 지난 2년 동안 UN군이 첫째 및 두번째 단계의 목표와 전술로 되돌아가려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으며 정치적인 제약을 바꿔 버리려는 군부 내부의, 또 민간사회의 압력이 많았다. 이마 공산주의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었을 터이지만 앞으로 내가 밝히듯이 그들의 상황은 달랐다. 양측의 이러한 의구나 유혹과는 무관하게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목표 및 전술이 끝내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휴전회담이 계속되는 동안 대부분의 공중활동은 적 군수체계에 대한 가장 중요한 후방차단작전을 수립, 운영하는 데 투입되었다. 상대적으로 정채된 전선에서는 적 부대와 장비를 파괴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으나 근접지원임무는 우군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대로 행해졌다. 그러나 전략적인 견지에서는 아지상군의 지상활동을 제압하였다. 근접지원은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 가능한 한 많은 인명을 구해내는 데 주력했다.

적은 곧 UN지상군이 예전과 똑 같은 방어전략을 택했음을 알았다. 그들은 수

색조를 보낸 다음 방어진지나 돌출부에 제한된 것이긴 하나 강력한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UN육군도 마찬가지로 수색과 대응공격을 하였으며, 공군은 전선위를 날아다니면서 눈에 띄는대로 공격을 해 대었다. 이러한 공격 아래 적은 견고한 병커, 지하 보급창고, 참호, 터널 및 대포와 박격포 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근접지원은 점점 그 효과가 없어져 갔다. 여기에 도착한 보급 물자 및 장비는 거의 파괴되지 않고 저장될 수 있었다. 그리고 아주 주의깊게 그 소비를 통제함으로써 중포부대의 지원을 받으며 제한된 범위의 것이긴 하나 강력한 공격을 할 수 있었다.

어둠이 덮이면 시작되었다가 아침 여명전에 끝나는 이 공격들로 인해 우군은 상당수의 사상자를 내었다. UN군의 장비는 손실되었고 탄약은 굉장히 소모되었다. 적은 지상공격만이 소모전에서 그들의 유일한 공격방법임을 깨달았다. 이럼으로써 그들은 공중공격에서 잃은 댓가를 찾으려 했고, 회담장소에서 이들 그들의 무기로 사용하였다. 게다가 적은 그들 생각에 가장 조달하기 쉬운 물자—인명—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하에 UN지상군이 근접지원을 보다 더 요청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근접지원은 벌써 효과감되는 것점에 달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적의 후방지역 공격에 훨씬 더 집중시킬 수 있었으며, 이랬더라면 전방에서 거두는 성과도 훨씬 컸었을 것이다. 물론 이런 것을 육군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었다. 이제는 적을 그들이 파고 숨어들어 간 지역에서 몰아내려는 공격도 없었고, 또 적의 부대가 대규모로 계속 진격해 오지도 않았다. 사실상 이전에 얻었던 성과 때문에 우리는 근접지원에 대단히 큰 기대를 했었다. 극동공군과 5공군은 지상군이 개입했을 때 적당한 정도의 근접지원 이상을 하였으며 평소에는 지상—공중간의 협조체제와 능숙한 기술을 유지시키기 위해 다대한 노력을 하였다.

나는 우리 모두 공군력은 능력은 물론 그 제약요소도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싶다. 정체된 전선에서의 지속적인 근접지원에서는 작은 목표물에 대한 분산되기도 지속적인 화력이 필요하다.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는 공군 특유의 기동성 및 화력을 이용할 수 없다.

정체된 상황에서는 근접지원이 값비싼 대포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적군이 후방차단 및 무장정찰에 의해 기동력을 잃고 보급물자가 파괴되며, 지행능력이 없어졌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낸다. 근접지원이 지상활동과 조정되어 결합되었을 때 결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1951년 가을 우리가 공중활동의 많은 부분을 적 후방지역 내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후방차단작전에 집중시키지 않았다면 완전히 어리석은 일이 되었었을 것이다. 전선에 있는 상대적으로 파괴하기 힘든 목표물에 효과없이 화력이 사용되었을 것이며, 적들은 전면공세를 취하고 유지시킬 만큼 그들의 자원을 보강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전면공세는 만일 적당한 보급만 계속 유지된다면, 결정적인 것으로 되었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육군에 대한 근접지원의 정도 — 특히 1951년 말부터 1952년 초까지 — 가 잘못되었다는 비난이 많았다.

× ×

공중공세; 압력과 결과

이제 휴전회담이 시작되면서 적의 후방지역에 대해 실지로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자. 적이 전면공세를 취할 수 없게 하려는 목표에 따라 후방차단작전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공격은 전쟁의 첫째에 신속히 움직여진 지상전에서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이 성과는 2차대전 때 유럽에서의 그것과 거의 맞먹는 것이었다. 이 성과를 생각하여 정력적인 공군의 계획담당자들은 적을 효과적으로 고립시켜 전선에서 적이 그들의 전력을 유지할 수 없게끔 하고자 하였다. 언제부터인가 — 언제, 어디서 그렇게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 공군의 장교들이나 언론인들은 1차단계의 후방차단작전을 질식작전(Operation Strangle)이라고 불렀다. 나는 이 말이 어느 만큼의 질식 정도를 나타내는지 모른다. 돌이켜 보건대, 나는 이 말의 선택이 영 불운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말은 후방차단계획의 진정한 목표를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작전이 실패하였다고 주장하게 할 근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누군가가 도로와 철로 차단작전의 목표가 적으로 하여금 장기간동안 제한된 목표공격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거나, 또는 더 나아가 완강한 방어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 작전은 그러한 일을 수행하지 못했다. 그 반면에 이전에 얘기했던 대로 적으로 하여금 전면공세를 취할 수 없게끔 한 것은 완전히 성공하였다. 게다가 후방차단작전의 소모효과는 적을 최대로 괴롭혔다. 적은 자동차수송, 철도, 교량, 화차 등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비행장, 보급창, 작은 공장 및 다른 시설물들과 다수의 복구 노동력들이 또한 손실을 입었으니, 이 공중공세가 적에게 얼마나 피해를 입혔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조만간에 공중공격으로 가하는 압력이 공중공세의 첫째 목표로 인식되게 되었다. 적의 물자 및 인력을 최대한 파괴하기 위해 공중활동의 주요점이 바뀌었다. 이렇게 적의 물자·인력을 소모시킴으로써 전면공세를 취하지 못하게끔 하는 목

표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 공중활동에 대해 적은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그리고 어떤 댓가를 치루었는가? 아마도 이 논문에서 전쟁의 최종단계 이래로는 적의 공중활동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MIG-15 전투기들은 1950년 11월에 전투에 투입되었으며, 중공공군이 증강되면서 그들은 훨씬 강해졌다. 공중전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하였다. UN공군은 10:1 이상의 비율로 840대 이상의 MIG기를 격추시켰다. 별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적은 한국 내에서 전방의 비행장에 그들의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단한 노력을 했었다. 그들은 만일 그들이 UN군 비행장 및 부대에 대해 중공과 만주로부터 온 공군력을 사용한다면 UN공군이 압록강 건너를 공격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계속되는 공중공격을 피해야만 한다고 느꼈다. 따라서 1951년 말 그들은 남한 쪽으로 상당히 내려온 곳에 광범위한 비행장 조직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거의 완공할 때쯤 UN공군이 이를 파괴하자 적은 강력히 대응해 왔다. 그들의 전투기들은 우군의 폭격기 및 전투기들에게 공격을 가해 왔고 그들의 대

○ 航空 · 軍事 · 科學 ○

공포는 비행장주변에 집중되었다. 비행장이 파괴되는 만큼 계속 그들은 복구하고 완공시키려 하였다.

1952년 초 적들은 그들의 적이 공중우세를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 그들의 공군을 다시 조직하거나 발전시킨다는게 불가능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남은 노력을 최북방의 비행장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려는 데 집중했다. 휴전협정이 맺어질 때 이 곳에 기본적인 공군력을 이동할 수 있게끔 유지하고 휴전기간동안 한국 내에 이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게끔 하여 그들의 재남침을 시도할 때 효과적인 작전을 할 수 있게 해 놓는 것이 그들의 희망이었다.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 비행장들은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못되었다. 그렇지만 활주로 주변에는 제한된 것이나마 주간에 착륙할 수 있는 잔디밭이 있었다.

적들은 후방차단작전으로 인한 피해로부터의 복구사업에 전력을 다했다. 그들은 철도 및 교량을 복구하는 데, 보급물자 및 장비물 분산·은폐시키는 데 놀랄만한 재주와 인내심을 계발하였다. 그들의 굉장한 노력 및 기술에도 불구하고 UN공군은 파괴 및 손상량을 다음과 같

이 보고 있다. (51년 7월~53년 6월)

차 량	75,000대 이상
기 관 차	1,000대 "
화 물 차	16,000대 "
교 량	2,000개 "
철도 차단	27,000진 "
침배와 보우트	600척 "
군 인	28,000명 "
탱 크	300대 "
포 건 지	12,000소 "
병 커	15,000소 "

위의 숫자는 단지 관찰된 것에 한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지적하고 싶다.

강력한 공중공격 밑에서 적은 보급물자 및 시설물들을 훨씬 더 분산시켰다. 그들은 그들의 수리시설을 조그만 공장에 설치하였으며, 그들의 병력, 보급물자 및 조그만 제조공장을 동굴 및 촌락이나 도시의 건물 속으로 이동시켰다. UN공군이 계속 그들을 추적함으로써 주 보급로를 따라 대도시 지역이나 작은 촌락에서 수만채에 달하는 건물이 파괴되었다.

모스크바까지도 공중작전의 효과를 느꼈다. 긴급필요장비들은 소련으로부터 계속 대체되어야 했다. 예를 들면, 우리

는 만주와 중국의 철도개발계획이 정제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적은 한국 내에서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그들의 일반 사회생활과 그 보다는 조금 덜하기 하지만 그들의 군대조직은 세 포조직화 했다. 군대의 보급로는 그 동맥이 끊기고 실릿줄과 같은 데 의존하였다. 소비를 통제하고 때때로 전 사단을 보급이 용이한 지역으로 후퇴시킴으로써 그들은 가장 필수적인 물자는 30일 내지 60일 정도의 재고를 유지시킬 수 있었다. 그 군대는 기계화되고 기동력 있는 군대가 아니라 땅 속에 숨어버린 보병과 수백 개의 야전포병대로 되어 있었다. 정치적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UN육군이 대규모 공격을 할 위험성은 없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은 크게 위험한 것은 되지 않았다. 적은 그 군대를 보다 보급이 용이한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징병된 복귀 노농적위대 대신 곡물을 수확하는 데 이용하기도 했다.

실지로 일어난 사실에 대해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공중작전의 여러 면을 검토해 봐야 한다. 공격목표와 사용가능 전력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복귀의 지

원자들은 군사장비와 훈련된 군대를 위협에 처하게 하였으나, 이것은 그들의 행동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은 가장 작은 제조업, 광업시설과 그 인구의 대부분까지 그 전체가 공격의 위험 아래 있는 것이다.

UN공군은 소규모였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깊게 목표를 선정해야 했다. 한국에서 운용된 공군력은 공중작전의 개념과는 불균형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한계목표(Marginal Targets)를 공격할 만큼 충분한 것이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전쟁에서의 복귀의 역할에 대한 고려와 함께, 직접적으로 군사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목표물에 대해서만 공격하는 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전혀 공격받지 않는 조그만 제조업, 광업공장이 수 없이 많았다. 전력의 부족으로, 확실히 군대와 보급물자를 보유하고 있긴 했어도 공격을 받지 않는 조그만 촌락도 많았다. 우리는 그 제조업, 광업공장이 전체적으로는 만주의 경제 및 야전군의 지원에 큰 공헌을 했다는 것을 안다. 이것들은 아군의 공군력에 비추어 볼 때 개별적으로는 모두 한계적(Marginal)이었던 것이다.

다른 상황하에서는 이처럼 군사구조 및 즉각적인 지원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표만 공격하는 정책이 완전히 효과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 만일 공격을 받는 국가가 침략의 최초 도발자 및 지원자였다면, 또는 지상군이 공중작전에 투입되지 않았다면, 또는 공군력이 적을 완전히 포위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공격체계는 아마도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다. 예를 들면, 철로와 군사물자를 휩쓸어 버리기 위해 파괴시킨 북괴의 두 개의 대규모 관개댐은 아마 다른 목적으로 공격되었을 것이다. 북괴를 쌀 수출국에서 쌀 수입국으로 만들기 위해 두 개가 아니라 30개 이상의 댐을 파괴하였을 지도 모른다.

UN육군과 UN공군간의 전력균형도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공군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면 지상군의 규모를 대폭 축소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각종 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어느 정도 축소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적 공군의 격파 정도와 우리의 공군이 어느 정도 완전하게 지상군의 조직, 군수물자, 시설물을 공격하였는가 하는 데 따라 결정된다. 공중작전에서 가장 나쁜 것은 어떤 임무를 완

전히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력이었을 때이다. 예를 들면 북괴 내에서는 철로교량이 전쟁전에 비해 4~5% 밖에 안 되었으나 이것만 가지고도 트럭과 지게를 사용, 충분히 정제된 보급로를 유지할 수 있었다. 무장정찰과 도로차단에 보다 많은 출격이 필요했다. 이 세 가지 임무를 모두에서 전력이 산술적으로 증가하면 그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후방차단과 무장정찰의 마지막 10%는 완전히 절정에 오른 것이었다.

근접지원을 해야 할 상황은 지나갔으며 게다가 그 효과는 위와 같지 않았다. 한국전에서는 근접지원이 때때로 포병역할을 대신했으며, 평시에는 한계목표(Marginal Targets)에 대해 광범위하게 운용되었다. 유럽전쟁에서 전 출격횟수의 약 10%가 근접지원에 할당되었던 것과는 반대로 지난 2년동안의 근접지원은 약 30%에 달하였다. 이는 후방지역 공격에 사용될 수 있는 전력을 줄여버린 격인데 후방지역 공격에서는 출격횟수당 적에게 입힌 피해가 훨씬 컸다. 적의 화력이 전선에 도착한 후 이를 파괴하려 하는 것보다 도착하기 전에 파괴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반면에 지상전의

상황이 정제되어 있지 않는 한, 나는 지상군에 대한 전면적인 근접지원이 결정적인 목표를 획득하는 데 그 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다고 밝혀두고 싶다.

휴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한국전쟁의 제 3단계는 종료되었다. 우리는 적이 아군의 인명과 물자를 소모시킴으로써 UN군을 지원하는 국가를 피폐케 하려 했다는 것을 안다. 그들이 지난 2년 사이에 이 전략을 포기해야 했던 것은 그 이유가 주로 공중작전 때문이었다. 그들의 전체적인 군사 체제는 분산되어 방어전에 알맞게 조정되었으며, 그들의 공군은 효과적으로 봉쇄되었고, 전쟁 발발 이후 그들의 누적된 피해는 참을 수 없을 정도였다. 전방의 기지에 공군을 다시 구축 하려 했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으며 성공적인 지상공세를 기대할 수 없었다.

이제, 공군이 한국에서 승리하였다고 하는 공공연한 발언이 생각난다. 이는 북괴공군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압록강 저편에 대규모의 중공군과 대치하여 공중우세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렇게 평한 사람들조차 한국에서 적의 군사체제에 대한 공중작전이 공군 본래 권리의 공중전 수행이었

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투어야 했던 개념이었다. 공중활동의 많은 부분은 육군의 지원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공중공격의 대부분은 전반적인 목표—유리한 조건의 휴전협정체결—를 위한 것이었다.

전략의 기원

소련 및 그 위성국가들과의 세계적인 투쟁 중의 하나인 최근의 한국전쟁을 돌이켜 보건대, 우리의 경험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준거기준(Frame of Reference)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중전에 있어서는 우리의 목표를 확실히 해 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현대 공군력의 기동성 및 화력이 공격에 있어 많은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이며, 동시에 적의 성질 및 아군에 가하는 급박한 위협으로 인해 우리의 목표를 수행하려는 노력이 흐트러지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회 대 취약성, 능력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운용전략을 결정해야 한다.

적군의 여러 요소에 대해 상대적인 취약성을 결정하는 것은 공격효과를 측정하는 과정이 된다. 만일 우리가 적의 공

군·육군·해군을 눈앞에 떠 올릴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공군이 이들의 인적·물적 장비를 공격하는 것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 중에는 2군(二軍) 또는 3군(三軍)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전쟁 보급품, 통신 및 통제체계가 있다. 공격해야 할 국가적인 산업·사회·정치적 통제체계가 있다. 결국 이 여러 목표물을 공격함으로써 생기는 누적적인 효과는 바람직한 심리적 효과를 얻는 데 쓰여질 수도 있다.

한국전의 후반기에는 어느 정도로든 간에 이 여러 요소들에 대해 평가를 하고 결정해야 했다. 이들은 특수한 정치·군사적 상황과의 관련하에 고려되어야 했다. 이들은 또 변화하는 목표와의 관련하에 고려되어야 했다. 일반적인 견해와는 반대로 한국전은 대단히 복잡한 것이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정치상황을 지원하는 제한된 군사행동으로서의 연구 대상이었다. 게다가 이로 인해 특히 공군은 2차대전의 진술·전략개념을 넘어 그것을 발전시켜야 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대다수의 초기 작전 중에는, 진술적인 의미에서 소위 전략폭격기(Strategic Bombers)의 사용에 대해 상당한 논쟁이 있었으며, 또 한국 내에 소위 전략적 목표물(Strategic Targets)이 있느냐에 대한 토론이 분분하였고 공군력 운용에 있어서 정치적인 제약과의 많은 마찰이

있었다. 나는 우리가 어떻게 제한전을 다루어 나갔는가 하는 것과 전쟁을 치루면서 우리가 처음에 보다 간명하게 알았어야 했던 여러 문제들이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보여주려고 노력하였다. 전쟁의 마지막 2년동안은 적대행위를 증식함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싸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목표 때문에 공군력을 운용함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가 생겨났다. 이 전쟁에서 공군력을 제한된 목표를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약간의 진전을 이루었다.

이제까지의 논의로 명확해진 것은 공군력이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한 국가체제의 모든 중요한 요소들을 위협할 수 있다. 이것을 기중, 작전종류 또는 목표의 종류로 구별하려 하면 혼란과 오해만 야기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것을 목표(Objectives), 위협(Threats), 기회(Opportunities)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위협 및 기회에 상응한, 우리가 알고자 예상하는 결과가 공중공격의 비중, 시간 및 국면을 결정한다. 이러한 고려요소를 공군력 운용의 형태에 성공적으로 융합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복잡한 일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주요한 목표이며 책임이다.

成功的인 指揮官의 길



이 기 관

1. 지휘관이란

군대조직에 있어서 지휘관이라 하면 일정 단위 이상의 부대를 지휘 통솔하는 자를 말하며 매우 폭넓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먼저 군인복무규율 시행세칙에 명시된 지휘관의 정의를 살펴보면 “부대의 핵심이며 부대의 성패에 대하여 전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고, 미공군 사전에 의하면 “지휘 통솔을 하는 위치에서 근무하는 관리자”라 규정하고 있고, 남광우 감수 이상사 발행 국어 사전에 의하면 “지휘권을 가지고 군대를 지휘 통솔하는 관직 또는 그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지휘관에 대한 정의는 실로 다양하며 매우 함축성 있는 개념이나, 일반적으로 군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로서 파악하고 있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는 것 같다.

현재 군대 조직은 국가 사회가 가진 가장 젊고 혈기 왕성한 청년층으로부터 인생의 경험을 충분히 쌓은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연령 구성이 다양하며, 동일 계층에서도 성장 배경, 성격, 학력 등이 실로 천차만별이어서 이들을 단일의 군 목표를 향해 배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하는 지휘관의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 본고에서는 필자가 각급 부대의 대대장, 기지전대장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보아온 조직사회의 제 현상을 횡·단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집단의 제 현상에 대처하는 지휘관의 역할과 성공적인 지휘관의 길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2. 조직 관리상 나타나는 제현상

여기서는 개개인의 관리과정에서 볼 수 있는 현상과 집단 전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현상, 그리고 집단 관리에서 볼 수 있는 순기능적 현상과 역기능적 현상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가. 개개인의 분석

먼저 군대조직의 인적 요소인 개개인을 지휘통솔하는데 있어서 지휘관으로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인 욕구(Needs)와 개인차(Individual Difference)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1) 욕 구(Needs)

인간의 욕구상태는 실로 무한대인바, 제반 욕구의 발생상태는 행동화에 큰 영

향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업무능률과 목표 지향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절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지휘관은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일찌기 “마슬로우”(A. H. 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 a.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
- b. 안전 욕구(Safety Needs)
- c. 소속과 애정 욕구(Belongingness and Love Needs)
- d. 자존 욕구(Esteem Needs)
- e. 자기실현 욕구(Self Actualization

Needs)의 5가지 욕구형태로 분류하고, 이것은 단층을 이루고 저차의 욕구에서 점차 고차의 욕구가 촉발되어 간다고 하였다.

한편 “에리히 프롬”(E. Fromm)은 그의 명저 “건전한 사회”(The Sane Society)에서 인간의 기본적 제 욕구를,

- a. 관련성에 대한 욕구(The Need for Relatedness)
- b. 초월의 욕구(The Need for Transcendence)
- c. 귀족의 욕구(The Need for Rootedness)
- d. 정체감에 대한 욕구(The Need for Identity)
- e. 정향과 헌신의 테두리에 대한 욕구(The Need for a Frame of Orientation and Devotion)의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욕구의 형태를 지휘관이 인식하여야 할 필요성은 욕구의 조건이 만족되지 아니 하였을 때 욕구불만(Frustration)이 발생하며, 이것은 조직의 건전한 발전을 해치고 특히 제반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2) 개인차(Individual Difference)

인간의 다양한 욕구상태와 더불어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개인적 속성으로서 개인차를 들 수 있다.

먼저 각 개인은 신체적, 성격적, 지능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한편 생활환경, 생활정도, 학습, 경험, 교육관계, 종교 및 사회적 활동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집단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차는 흔히 무시되어 "동일계급, 동일능력"의 원칙으로 일관하기 쉬우나 성공적인 지휘관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인차를 인식하여 이를 관리에 반영시켜야 한다. 개인차가 무시된 획일적 관리는 낮은 업무능률과 침체된 사기, 욕구불만으로 이어진다. 인사관리에 있어서 흔히 얘기하는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한다"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은 개인차를 인식하고 인사관리를 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나. 집단의 구조 분석

다음은 편제상에 나타나 있는 조직구조가 아닌 동일 또는 유사한 계급 집단

의 관리상 나타나는 각종 비공식 그룹의 형태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a) Circle 형

작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일정한 그룹을 형성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이다.

(b) Star 형

인기가 있거나 또는 주목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몇 사람이 모이는 관계이다.

(c) 반목형

중심 인물이 없이 서로 대립, 경계하는 관계이다. 여기에는 개인끼리 서로 반목하는 경우와 집단끼리 서로 반목하는 두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조직 내부에는 편제상 인가된 대대장, 실장, 과장, 계장 등의 직위만이 아닌 각종 비공식적 소집단(Informal Small Group)이 있는바 성공적인 지휘관은 이와 같은 Group의 동향을 잘 파악하여 이를 지휘관리에 이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집단의 형상에서 특히 유의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소외된 장병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집단 내부의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않은 외톨막이의 인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불평을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은 왕왕 문제 장병으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Team Work 형성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다. 집단의 순기능적 현상

(1) 집단 구성원의 개성적인 매력

함께 근무하는 장병—상관, 동료, 부하—들의 개성, 언행, 자질 등이 타부서의 장병들보다 뛰어나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때 구성원들 간에는 소속감이 생겨 집단 내에는 생기가 넘치고 모든 구성원이 열성적으로 임무에 임하는 계기가 형성된다. 특히 타 부대의 지휘관보다 훌륭한 지휘관 밑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하들의 소속감과 임무의욕, 높은 사기는 일기당치의 전투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2) 집단 자체의 활동

장병 각자가 자기의 활동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소화하고 이것이 고차적인 애국심으로 승화될 때 집단의 사기와 응집력(Group Cohesiveness)은 강해진다. 장병 각자가 국방에 있어서 자신의 존재가치의 중요성을 스스로 느끼는 분위기의 조성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3) 집단의 목표

개인의 목표와 집단의 목표가 일치하거나 개인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경우이다. 과거에 "군에 가면 한 3년 쪽 섹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는 군에 가서

하나도 배우는 것이 없고 자기 정체 배지 피보만을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여기에는 장병들에게 가슴에 스미는 지휘통솔을 하지 못하였고, 이상적인 지휘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집단생활에서만 느낄 수 있는 참다운 즐거움과 이를 만끽할 수 있는 병영 분위기 조성을 하지 못한 지휘관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4) 의식적 일시적 소집단의 형성

이는 지휘관이 특별한 경우 기존의 공식 조직을 그대로 두고 임시적으로 비공식 소집단을 형성시켜 동기유인(Incentive)을 주어 경쟁시키는 것으로서 잘 활용하면 집단의 사기양양에 큰 효과가 있다. 예컨대 일련의 집단구성원을 계급 구분없이 키 순으로 세우고 짝수 홀수로 Group을 지어 Group대항 축구경기를 갖도록 하는 것은 단체의 Team Work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라. 집단의 역기능적 현상

집단에는 순기능적 현상에 수반하는 역기능적 현상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집단의 발전을 방해하는 저해요인은 어느 집단에나 있다. 조그마한 병리, 병제는 그 집단의 발전을 위한 효모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직장 집단에서의 각종 병리현상은 효모 역할이 아니고 발전

을 저해하고 단결을 해치는 암적인 존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조직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역기능적인 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직장집단 내부의 경우

(a) Line과 Staff의 불화, 갈등 : 예컨대 Line 위에서 Staff이 왕국을 형성함으로써 양자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이다.

(b) 원리 원칙의 지나친 강조 : 각급 관리자가 지나치게 원리 원칙만을 강조하고 융통성을 무시하게 되면 갈등이 생기게 된다. 이는 관리자가 법규규칙의 강요를 하나의 권한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c) 전통주의 : 새로운 환경변화—새로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하게 옛것을 그리워하고 미련을 가지는 경향으로서 발전적인 조직형성을 위해서는 추방 배격해야 할 사고방식이다.

(d) “컴뮤니케이션 (Communication)의 단결 : 각급 관리자가 공식적인 권한 행사에만 집착하여 원활한 “컴뮤니케이션”을 등한시하는 경우로서 집단의 사기 침체와 불만에 이은 사고요인을 형성하게 된다. 지휘관은 상의하달(Downward Communication) 뿐만 아니라 특히 하의상달(Upward Communication)의 통로가 원활하게 되어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 모집단과 소집단의 경우

집단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집단 내부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Informal Group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공식 집단 내지 소집단은 모집단의 목표달성에 장애요인으로 등장하는 수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인부부규율에서도 각종 출신별, 성분별 동창회나 종친회, 연고지 모임 등은 해체시키거나 군인 참가를 불허하고 있으며 종교, 학술, 체육 활동 등 범국민적 모임도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3) 소집단 상호간의 경우

앞서의 “집단의 구조분석”에서 반복형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것은 외부적으로 명백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업무 수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실로 조직의 단결과 발전을 저해하는 암적 요소이다.

따라서 각급 지휘관은 소속 집단 내부에서의 공식적, 비공식적 그룹 상호간의 반목 대립이 있는가를 잘 살펴서 이를 단결과 화합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3. 집단의 제 현상에 대처하는 지휘관의 역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직사회의

각 구성원은 다양한 욕구와 개인차가 있고, 집단 내부에는 순기능적 현상과 역기능적 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에서 조직체의 계반 요소를 통합 조정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적 요소는 바로 지휘관임을 알 수 있다.

흔히 각급 지휘관은 자기 집단의 높은 사기와 일치된 단결력을 강조하는 나머지 집단 내부의 병리현상을 애써 무시하고 표면화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나 성공적인 지휘관으로서 이처럼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없다.

실로 지휘관은 자기 조직 내부는 물론 타 조직과의 관계에 있어서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군은 개인을 위주로 하는 일반사회와는 달리 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따라서 다양성의 원리가 아닌 획일성의 원리가 지배한다. 전체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나머지 각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관계로 장병들은 심리적 갈등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지휘관리에 있어서의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집단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의 조정에 있으며, 이를 여하히 조직의 기본목표와 조화시키느냐에 지휘통솔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본다.

여기에 대처하는 지휘관리의 요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 마디로 지휘관의 부하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대국적인 부

대 지휘가 아닌가 한다.

가. 참다운 부하사랑

말로만 떠드는 부하사랑 내지 지휘관의 마음 속에만 있는 부하사랑이 아니라 하루 하루의 지휘관리를 통해 부하 장병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부하사랑이 되어야만 한다.

옛날 명장이 전쟁할 때에 어떤 사람이 대(竹) 광주리에 탁주 단지를 담아서 장군에게 바치니, 장군은 그 술을 혼자 먹지 않고 냇물에 부어 놓고 자기도 병사들과 함께 냇물을 마셨다고 한다. 한 동이의 술로써 냇물에 술맛을 내지는 못할지라도 장군이 혼자 먹지 않는 그 의기에 감동되어 군사들은 장군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결심했다는 사제가 있다. 이것은 하나의 음식이라도 부하들과 나누어 먹으려는 장군의 후의에 감동되었기 때문이다.

나. 대국적인 지휘관리

흔히 “소아적 리더십”과 “부하에 대한 자상한 배려”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부하에 대한 지나치게 현미경적인 지휘관리는 부하에게 이상과 꿈을 심어주지 못하고 “저분은 비록 계급은 높으나 일반 실무자로서 적합하며 지휘관 스타일은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어 지휘통솔의 본질을 잃어버리

는 경우가 발생한다.

장병들의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은 바로 "지휘관의 지휘관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실로 지휘관의 대국적인 지휘관리아 말로 장병들의 사사로운 개인욕구를, 생사를 초월하는 애국심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요체인 것이다.

옛날 중국 초나라 장왕의 고사는 "대국적인 지휘관리"의 일례가 된다. 장왕의 왕비는 그 미모와 아릿다움으로 못사람들이 사모하는 바 되었는데, 어느 여름 밤 궁중의 연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무렵 일진광풍으로 연회서의 촛불이 모두 꺼져 버렸다. 이때 평소 왕비를 사모하던 어느 신하가 왕비에게 접근하여 추태를 부리자 왕비는 그 자의 갓끈을 풀어 쥐고 즉시 불을 켜서 무엄한 자를 찾도록 소리쳤다. 그러나 장왕은 불을 켜지 못하게 하고 신하들에게 모두 갓끈을 풀어 버리도록 명령함으로써 일시적 충동으로 실수를 저지른 부하를 용서하는 대왕의 풍모를 보여 주었던 것이다.

다. 끊임없는 자기향상 노력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조직사회 내부 구성원의 의식구조도 달라지고 있다. 끊임없는 변화에 대처할 수 없는 리더십은 성공적일 수 없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관리기법을 무단히 연구 습득하기 위하여 지휘관은 항상 끊임

없는 자기향상 지식과 덕성의 함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옛말에 "흐르는 물은 썩지 않지만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다"라는 말이 있다. 지휘관이 의식구조의 변화, 새로운 과학기술, 제반 지식의 혁명적 발달을 주시하지 않고 구태의연한 지식과 경험으로 부대를 운영하려고 할 때 그 부대는 고여서 썩은 물과 같이 신선한 맛을 잃고 침체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4. 성공적인 지휘관의 길

이상에서 성공적인 지휘관이 되기 위하여는 개인과 집단 내부의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 필요하며, 이를 통합, 조정하여 바람직한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 a. 참다운 부하사랑
- b. 대국적인 지휘관리
- c. 끊임없는 자기향상의 노력이 필요함을 논하였다.

성공적인 지휘관리의 비결은 수천년 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그리고 지금도 논의와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 본인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바는 "어떤 경우에 이것이 다른 것보다 더 나올 수 있으나 모든 경우에 늘 다른 것보다 훌륭한 것은 없다"는 점이다. 즉

만고불변의 지휘관리의 요체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고 오직 “지휘관—부하—상황”의 3위 1체에 의해서 이룩되는 조직관리에서, 지휘관다운 지휘관의 원칙과 임기응변의 조화의 묘가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는 필자가 감명깊게 읽은 “윌리엄 반더살” (William R. Van Dersal)의 “정부와 기업에 있어서의 성공적인 지도자” (The Successful Supervisor in Government and Business)의 요점을 적어보면서 결론에 대하고자 한다.

지도자는

-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부하를 나무라는 것을 삼가라.
- 정실에 흐르지 말라.
- 업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라.
- 불충분한 지시적 명령을 하지 말라.
- 감독자의 잘못을 그 부하에 뒤집어 씌우지 말라.
- 자기의 잘못을 자인하라.
- 부하를 옹호하고 부하의 이익을 위해 싸우라.

○ 부하가 하는 일에서 허물을 찾으려 하지 말라.

○ 부하의 사적문제에 간섭하지 말라.

○ 부하가 하는 일을 너무 세밀하게 감독치 말라.

○ 필요한 권한은 부하에게 위임하라.

○ 부하들을 일단 신뢰하라.

○ 어느 부하의 소문을 다른 부하와 뒷공론하지 말라.

○ 부하의 성적을 인정해주고 칭찬하라.

○ 부하들에게 적당한 자료 또는 편의를 제공하라.

○ 명확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파악하라.

○ 자기 부하를 늘 하급자로서만 취급치 말라.

○ 너무 상급자인체 하지 말고 부하들이 상관이라는 것을 너무 인식하지 않도록 하라.

○ 부하가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라.

<名將名言>

將軍에게 진정한 知慧란 決斷과 강한 實踐力 그것이다.

— 몽고메리 —

南北聯邦制論 批判 III

編輯室

VI. 聯邦主義 諸 命題 의 韓半島 適用妥 當性 檢討

本章에서는 第5章에서 整理하여 본 聯邦主義의 諸 命題가 南北韓關係에도 適用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편의상 우리의 南北韓關係의 特殊性을 먼저 살펴보고 聯邦主義의 諸 命題의 各各에 대하여 南北韓關係 適用妥當性을 하나씩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1. 南北韓關係의 基本性格

南北韓關係는 外部勢力에 의한 分斷이라는 歷史的 特殊性 때문에 두개의 獨立 國家도 아니고 하나의 國家도 아닌 特異한 關係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의 南北關係는 事實上에 있어서는

수 개의 獨立國처럼 되어 있다. 南部의 地域과 人口를 獨自으로 완전히 管掌하고 있는 大韓民國과 北部의 地域 및 人口를 管掌하고 있는 北韓政權은 對外的으로 모두 獨立國家로 行爲하며 또한 獨立國으로 承認받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南 北韓은 모두가 서로를 國家로 認定하지 않을 뿐더러 他方의 領域과 人口를 未收復의 領域 및 國民으로 認定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他國일 수도 없다. 이 경우는 一國內의 二地域間關係 또는 一國二政府關係의 性質을 갖는다고 밖에 보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南北韓關係가 法的 側面에서는 一國二政府關係이지만 事實上으로는 二國間關係의 性格을 갖는 特殊關係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가. 一國二地域의 性格

大韓民國은 憲法 第3條에서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附屬島嶼로 한다」고

規定하여 北韓政權의 存在을 法的으로 否認하고 있다. 이 憲法에 따라 다른 法에서도 北韓地域은 大韓民國의 未收復 領域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北韓의 憲法에서도 第1條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고 規定하여 역시 全韓國民을 國民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 마디로 法的으로는 大韓民國과 北韓은 같은 領土와 人口를 競爭的으로 代表하는 두개의 國家를 가진 하나의 實體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特殊關係에서 大韓民國과 北韓은 같은 領土와 人口를 競爭的으로 代表하는 두개의 國家를 가진 하나의 實體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特殊關係에서 大韓民國의 立場에서 보면 北韓政權은 하나의 國內反亂 團體로서 法的으로 存在을 認定못받으나 國土의 一部를 實效的으로 占有하고 있는 不法團體가 되고, 北韓側에서도 똑같은 立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法的의 性質보다 政治的인 認識은 조금 緩和된 셈이다. 우리 政府의 基本立場은 이미 1972년에 公式으로 認定한 바와 같이 「一民族 一國家 二政府」의 關係이다. 즉 最小限 北韓政權을 「地方的 事實上的 政府」로 認定하여 준 셈이다.

특히 1973年 6月 23日 故 朴正熙大統領이 發表한 「平和統一 外交政策特別宣

言」에서는 相互內政不干涉, 北韓의 國際機構加入 容認, 北韓의 유엔加入 容認 등을 宣言함으로써 事實상 平壤政權의 存在을 承認한 셈이다.

그러나 우리가 統一을 國家政策의 最高指針으로 하고 있는 限, 北韓을 國際法上的 國家로 認定하는 二國關係는 될 수 없다. 그리하여 韓國은 「6·23宣言」에서 北韓을 國家로 認定치 않는다고 闢고 있다. 역시 「一國內 二地域」의 特殊關係는 계속되고 있다.

나. 二國間 關係의 性格

韓半島의 分斷은 外部勢力에 의한 政治的 分斷으로 시작된 것이고 社會內的 異質性 때문에 分斷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南北의 分斷地域內에서는 지난 30年間 獨立된 政治共同體로 굳어져 있다.

여기서 社會共同體의 解體過程을 보면 첫째로 時間이 갈에 따라 나뉘인 各部分은 점차로 各各의 國際體制에 묶이게 되었으며, 둘째로 이에 따라서 各部分에서는 獨自的인 社會化가 進行되고 서로 間에는 커뮤니케이션의 斷切 때문에 서로 他方과 점차로 떨어져 나갔고 民族의 異質性이 深化되었으며, 세째로 위의 두 가지 變化에 따라 態度에서의 變化가 일어나서 各部分에 속하는 사람들은 過去 같은 國家에 속했던 다른 半部보다도 國際社會와의 連繫과 利益의 同質性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현재 大韓民國과 北韓은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領域에서 完全한 獨立社會를 形成하고 있다. 南北間에는 모든 次元에서 切斷되어 있으며 機能的 相互依存性은 全無한 상태에 놓여 있다. 韓國과 北韓은 각각 所屬된 陣營의 國家들과 緊密한 連繫를 맺고 있다.

이러한 點에서 볼 때 南과 北은 각각 獨立國家이고 그 關係는 完전한 二國關係와 같다. 뿐만 아니라 中立的인 二國間의 關係가 아닌 極限의 敵對關係에 놓인 二國間關係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2. 聯邦主義 諸 命題의 適用 妥當性

위에서 살펴본 現 南北韓關係의 性格을 前提로 하고 第5章에서 抽出해 놓은 聯邦主義 統合의 諸 命題의 韓半島 適用 妥當性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즉 第5章에서 抽出한 바 있는 聯邦主義의 動機 成立, 成長에 관한 細部命題 24個 가운데 主要命題인 15個 命題의 각각에 대하여 南北韓關係에 適用可能與否를 檢討해 보기로 한다.

가. 社會體制的 異質性

南北韓은 分斷된 1945年 以前에는 歷史, 血統, 文化的으로 同質性이 강한

社會였다. 그러나 分斷後 지난 30餘年間 獨自인 社會化過程을 통하여 同質性은 파괴되고 異質化 現象이 深化되고 있다.

北韓이 마르크스 레닌主義라는 外來思潮를 導入함으로써 生産된 南北의 異質化 現象은 言語歷史, 文化, 藝術 등의 傳統文化, 心理動向, 思考特性 등의 心理構造 그리고 生活樣式, 風習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分野에 걸쳐 進行되고 있어 統一을 沮害하는 重要要素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보면 우선 南北韓은 一元的 政治制度의 形成보다도 複合 國家形成이 適合하다고 볼 수 있다.

나. 國土의 廣濶

韓半島面積은 南韓의 10萬km²와 北韓의 12萬km²를 합하여 總面積 22萬km²로서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작은 규모이다.

그러나 人口는 南韓의 3,800萬名과 北韓의 1,700萬名을 합쳐 總 5,500萬 餘名에 이르고 있어 爲口密集도가 높은 편이다. 이처럼 國土가 협소하고 人口密度가 높은 상태에서는 聯邦制가 不適合하다.

다. 共同理念的 存在

韓國의 自由民主主義와 北韓의 共產主義라는 相互 不相容의 理念的 對立關係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國家建設을 위한 共同의 政治理念이 發見되지 않는

상태에서 聯邦의 統合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

특히 聯邦主義를 構成單位間的 共存과 共同目標 追求를 위한 機關統合으로 定義할 때, 北韓의 平和共存拒否態度는 聯邦制度 形成에 逆機能的 要素로 作用한다.

라. 共同防衛에 관한 認識 및 外部的 힘의 作用方向

韓半島周邊環境은 美國, 中共修交와 日本, 中共接近以後 既存南方三角關係와 北方三角關係間에 交叉現象이 나타남으로써 和解氣運이 감돌고 있으나 韓國의 對美·日 紐帶關係와 北韓의 對中·蘇 協力關係는 여전히 持續되는 冷戰狀況이 存置되고 있다.

이러한 東北亞政治構造下에서는 韓國이 中·蘇로부터 軍事的 威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北韓 역시 美·日로부터 不安感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즉 韓國의 敵은 北韓의 友邦이 되고 北韓의 敵은 韓國의 友邦이 되는 셈이다.

그러기 때문에 南北韓이 共同으로 느끼는 軍事的 不安感의 對象(共同的 敵)을 發見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聯邦形成에 適合한 條件이 되지 못한다.

또한 韓半島分斷이 外部勢力에 의해 強要된 것이고 따라서 韓半島統一도 周邊強大國에 의해 影響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現時點에서 韓半島周邊情勢가 南北韓의 聯邦의 統合에 肯定的이나 하는데 관해서는 疑問의 餘地가 있다. 왜냐하면 周邊強大國들의 對韓半島 政策은 現狀固定的 方向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現狀變更을 意味하는 聯邦統合은 願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 經濟的 統合에 대한 所望

韓國은 機能主義的 統合接近方式에 의거 經濟 社會 文化分野의 交流와 協力을 北韓側에 제의하여 왔다.

北韓은 聯邦制案을 제의한 初期에는 經濟交流를 주장하다가 南北對話初期부터 軍事 政治問題의 先決을 내세워 지금은 經濟統合에 관한 關心을 전혀 表示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南北韓의 經濟統合에 대한 意見不一致는 聯邦形成을 자극하지 못한다.

바. 相互間 知識과 作用

南北韓 國民은 아직도 강한 民族意識을 지니고 있다. 이 點은 南北韓統合에 有利한 條件이 된다.

그러나 지난 30年間 두 社會間에는 軍事的 對峙狀態外에 相互作用이 거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韓國은 72年の 7·4南北共同聲明과 73年の 6·23宣言 以後 北韓을 對話와 共存의 相對로 認定하는 措置를 취했으나 北韓은 그 反對의 立場을 취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南北對話期를 除外하고는 雙方間에 接觸交流과 같은 相互作用이 全無하고 오직 軍事的 對峙狀態로 인해 緊張되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現在로서는 聯邦形成을 위한 凝集程度가 낮다고 하겠다.

사. 統合經驗

南北韓은 單一民族國家로서 1,300餘年이나 되는 統一된 歷史와 傳統, 經驗을 保有하고 있다. 그리고 南北韓住民은 過去の 統合經驗에서 많은 利益을 느끼고 있다.

이것은 완전한 統一은 물론 聯邦의 統合에도 肯定的인 影響을 끼친다.

아. 聯邦憲法的 基盤

分斷 30餘年이 經過하면서 南北韓間에 合意한 유일한 文書는 7·4南北共同聲明 밖에 없으나 이것 역시 北韓側에 의해 이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聯邦憲法을 舉論할 與件이 전혀 具備되지 않고 있다.

北韓이 聯邦制案을 20餘年 가까이 주장해 오면서 그들의 聯邦中心機構로「最高民族委員會」構成에 관해서만 언급할 뿐, 餘他的 聯邦憲法 및 法的 基盤造成에 관해서는 一言半句 설명이 없다.

이처럼 南北間에 聯邦憲法學論 自體가 안 되는 상태에서 聯邦憲法의 內容이 되는 聯邦機構設置, 聯邦政府와 支分國間

의 權限配分, 支分國 相互間의 地位問題 등은 생각조차 하기 어렵다.

자. 聯邦體와 構成體

南北韓間에 聯邦憲法的 基盤構築이 어렵다고 前提할 때 이 命題에 대한 검토는 논의할 必要가 없다.

차. 聯邦體內的 代議性

金日成 唯一體制라는 北韓의 專制政治 構造로 보아 聯邦主義가 필요로 하는 政治的 代議性的 實現은 不可能하다.

특히 北韓이 韓國과의 平和共存을 拒否하는 排他的 吸收政策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政治的 協力, 自制, 地方民主主義와 같은 民主的 政治風土의 造成을 기대한다는 것은 現實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北韓經濟의 落後性과 社會的 閉鎖性은 聯邦主義 成長을 沮害하는 基本動因으로 作用할 가능성이 있다.

카. 支分國間的 均衡

南北韓이 人口, 經濟力, 軍事力 등 國力面에서 不均衡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人口面에서는 韓國 3,700萬, 北韓 1,697萬으로 韓國이 2倍가량 많고, 經濟面에서는 1978年末 現在の 國民總生産額에 있어 韓國 459億달러, 北韓 92億달러, 그리고 一人當 國民所得에 있어서는

韓國 1,242달러, 北韓 542달러로 韓國이 北韓을 크게 능가하고 있다.

또한 軍事力面에서는 韓國이 防禦의 軍事概念에 입각하고 있는 反面에 北韓은 攻勢的 性格을 강하게 띠고 있고 兵力도 韓國 60萬, 北韓 70萬 水準으로 差異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南北韓間의 國力の 不均衡現象은 실령 聯邦制가 成立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의 運營을 과피하는 要因으로 作用할 可能性이 크다.

타. 支分國間的 境界線

南北韓間에 休戰線이 있으나 北韓은 休戰線의 變更을 부단히 획책하여 왔다. 北韓은 休戰協定の 効力持續을 前提로 한 韓國의 不可侵協定提議를 拒否하고 對美平和協定 締結을 주장하고 있고 西海 5個島嶼 沿岸이 자기 領海라는 主張下에 同 海域에 대한 侵犯行爲를 자행한 바 있다.

이러한 北韓態度로 보아 休戰線의 安定性은 기대하기 어렵다.

파. 支分國間的 相異한 法體系

韓國은 自由民主主義의 理念에 입각한 法體系를 維持하고 있는 反面에 北韓은 社會主義 法體系를 維持하고 있다.

雙方的 法哲學이 根本的으로 相異하기 때문에 이것은 聯邦主義 成長의 肯定的인 面보다 否定的인 面이 더 많다고 하

겠다.

하. 非中央集權化된 政黨體系

北韓과 같은 社會主義國家에서의 政黨組織은 形式上 復數政黨이 있다고 하나 實際로는 프롤레타리아 前衛黨이라고 부르는 共產黨外的 他 政黨活動은 排除되고 있다.

또한 共產黨 組織體系는 民主集中制原理에 입각하여 中央集權化되어 있다. 이러한 政黨組織體系에서는 蘇聯式 聯邦運營은 可能할지 모르지만 西方式 聯邦運營과 成長은 不可能하다.

3. 綜合 評價

위에서 검토한 聯邦의 統合命題 14個에 대한 綜合評價를 한다면 大體로 다음과 같은 判定이 可能해 진다.

첫째로, 總 14個 條件 중에서 適合한 것은 2個이고 不適合한 것이 12個인데 適合條件은 社會體制的 異質性과 統合經驗 뿐이다.

不適合條件 중 聯邦主義 成立動機에 관련된 것이 5個이고 聯邦主義 成立要件과 聯邦主義 成長에 관한 것이 7個이다.

다시 말해 聯邦의 憲法基盤과 聯合主義 成長에 관한 命題는 南北韓間에 하나도 適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不適合條件 12個 중 그 事由가 北韓의 基本立場, 政策에 基因한 것이

2國, 南北韓의 相互性에 基因한 것이 3個로 나타나는 바 北韓態度 중에서도 그들의 敎條主義의 敎條主義의인 體制와 政策에 주로 緣由되고 있다. 이것은 現在와 같은 北韓態度로 보아 聯邦主義가 成立되기도 어려운 뿐만 아니라 설령 聯邦制度가 形成되었다고 假定하더라도 北韓이 態度를 修正하지 않는 限 그 聯邦制度는 곧 破壞될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둘째로, 北韓의 高麗聯邦制案은 上記 14個 命題 중 다음 5個命題에 관해서만 그들의 立場을 막연히 밝히고 있을 뿐 나머지 命題에 대해서는 一切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① 社會體制의 異質性—「南北韓의 現存 政治制度 存續」

② 共同防衛에 관한 認識—「聯邦制에 의해 國防의 單一化 實現」

③ 經濟統合에 대한 所望—「聯邦制에 의한 經濟交流, 合作 實現」

④ 相互間 知識과 作用—「聯邦制 實施는 南北의 接觸과 協商을 保障함으로써 相互理解와 協調가 可能」

⑤ 統合經驗—「오랜 歷史를 거쳐 같은 말과 風習과 文化를 이루은 民族의 一時的으로 갈라진 두 部門을 다시 聯合」

특히 北韓은 南北共同理念 문제에 관해 「聯邦이 서로 다른 制度와 思想理念에 기초해서 실시되지만 나중에는 統一政府로 單一한 政治制度와 思想理念으로

된다」고 애매모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北韓이 聯邦形成의 共同理念에 관해 멧멧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것은 「高麗聯邦制案」의 致命的인 缺陷이라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北韓이 聯邦主義 成立要件(聯邦憲法の 基盤)과 聯邦主義 成長에 관한 命題에 대해서는 一切 말조차 꺼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高麗聯邦制案」이 聯邦이 아닌 國家聯合에 가깝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이 主張하는 意圖가 宣傳의인데 있기 때문이다.

以上の 說明을 圖式化 하면 <表 2>와 같다.

VII. 結 言

一般的으로 分斷 또는 分裂國家를 하나로 統一(統合)하는 데는 單一的 統合 모델과 複合의 統合모델로 區分할 수 있다. 單一的 統合모델에는 併合과 合併의 類型이 있고 複合의 統合모델에는 國家聯合과 聯邦 등의 類型이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北韓의 「高麗聯邦制案」은 外形上으로는 聯邦을 假裝한 國家聯合에 가까운 것이나 實際로는 共產主義의 併合概念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北韓의 聯邦制案은 共產主義의 平和共存論을 그 理論的 背景으로 하고 있으며 合作과 統一戰線戰術을 實踐指針으로 삼고 있다.

<表 2>

南·北韓 關係에 投影해 본 聯邦主義 諸 命題

(+는 適合, -는 不適合)

區分	命題番號	命題內容	北韓의 現實條件	北韓의 言及 命題	備考 (不適合한 事由)
聯邦主義 成立動機命題	1	社會體制的 異質性	+	○	相互性
	2	國土의 廣闊	-		地理的 條件
	3	共同理念의 存在	-		相互性
	4	共同防衛에 관한 認識 (外部的 힘에 作用)	-	○	〃
	5	經濟的 統合에 대한 所望	-	○	北韓態度上的 問題點
	6	相互間 知識의 作用	-	○	〃
	7	統合經驗	+	○	相互性
聯邦主義 成立要件	8	聯邦憲法的 基盤	-		北韓態度上的 問題點
聯邦主義 成長命題	9	聯邦體와 構成體間의 意思疏通	-		〃
	10	聯邦體內의 代議性	-		〃
	11	支分國間의 均衡	-		相互性
	12	支分國間의 境界線	-		北韓態度上的 問題點
	13	支分國間의 法體系	-		相互性
	14	非中央集權화된 政黨體系	-		北韓態度上的 問題點
			+ 2 - 12	5	北韓態度上的 問題點 7 相互性 6 歷史, 地理的 條件 1

이러한 理論과 戰略의 背景에서 出發한 北韓의 聯邦制案은 60年代와 70年代初에 이르기까지는 積極的이고 戰略的 次元에서 主張되었으나 그 후로는 消極的이고 戰術的 次元(주로 宣傳의 目的)에서 主張되고 있다.

한편 北韓聯邦制案을 소련의 聯邦制度와 中共의 聯合政府論, 東獨의 國家聯合

論, 베트남의 印支聯邦論과 比較해 볼 때 이들이 표방한 統合概念의 形態나 名稱이 어떻게든 다음과 같은 特徵的 樣相이 나타난다.

政策의 特性으로, 이들 5個 共產國家 모두가 統一에의 過渡的 措置, 즉 統一된 強力한 社會主義 國家建設을 위한 中間段階로 聯邦, 聯合을 主張하였으며 그

것이 形成된 後에는 共產黨 中心의 中央 集權의 指導를 行함으로써 民族自決이나 構成國間의 平等關係를 形式化 하였다.

環境의 特性으로는 北韓을 除外하고 모두가 多數民族이 共存하거나 支分國의 傳統性이 강한 社會體制의 異質性과 廣闊한 領土의 背景을 가지고 聯邦, 聯合을 試圖, 形成하였으며 外勢排擊 및 外勢威脅으로부터의 自己保護라는 自覺이 聯邦이나 聯合을 자극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北韓의 聯邦制案이 環境의 인面에서는 他 共產國家의 聯邦, 聯合과는 相異하나 政策의 人面에서는 同一한 脈絡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西歐의 概念의 聯邦의 統合命題를 聯邦主義의 成立動機, 要件, 成長이라는 時間性을 中心으로 導出할 때 14個 主要變數가 抽出된다. 그리하여 이 14個 主要變數를 現 南·北韓關係에 代示켜 그 適合性 與否를 檢討해본 結果 다음과 같았다.

總 14個 條件 중에서 適合한 것은 2個 이고 不適合한 것이 12個로 分類되었다. 適合條件은 南·北韓 社會體制의 異質性과 統合經驗 分으로서 이것은 聯邦制가 南北韓의 異質化 現象을 包括하는 政治制度로서는 價値가 있고 그러할 경우 歷史的 統合經驗이 肯定的으로 作用하리라 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不適合條件 12個 중 聯邦主義 成立動機不適合 5, 成立要件不適合 1, 成長不

適合 6으로 나타난 것은 南北韓關係에서 聯邦主義가 그 成立動機부터 시작하여 運營에 이르기까지 適用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表示해 주는 것이다.

또한 不適合條件 12個 중 不適合事由가 北韓의 教條主義의이고 極左冒險主義의인 理念, 體制, 政策에 基因한 것이 7, 南北韓의 相互性에 緣由한 것이 3으로 나타나는 바, 이것은 聯邦主義의 否定的 要因이 北韓側 態度에 주로 달려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사실은 北韓側이 上記 14個 變數 중 5個 變數에 관해서만 그들의 立場을 막연히 밝히고 있고 그 중에서도 聯邦主義 成立要件(聯邦憲法의 基盤)과 聯邦主義 成長에 관해서는 一切 言及을 하지 않고 있는 데에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특히 聯邦不適合條件 중 南北間 共同의 政治理念의 不在는 聯邦制 形成에 原初的인 否定要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聯邦主義를 그 構成單位間의 平和共存과 國家共同目標追求를 위한 機關統合으로 定義할 때 共同目標의 基礎가 되는 共同의 政治理念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南北韓처럼 이데올로기적으로 첨예하게 對決하고 있는 分斷國에 있어서의 統一問題는 사실상 最高形態의 政治問題인만큼 分斷雙方間에 政治理念의 收斂化가 되지 않고서는 聯邦統合 같은 것은

아에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檢證으로 보아 現在와 같은 南北韓關係 與件下에서 聯邦形成을 위한 凝集程度는 거의 없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따라서 오늘날처럼 南北間에 理念 體制가 相異하고 敵對의 不信感이 尙存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當장 聯邦統合을 겨냥하기보다는 오히려 戰爭抑制와 相互間에 平和共存關係를 設定하는 것이 當面한 課題로 제기된다.

그리하여 平和共存關係를 바탕으로 相當期間 동안 交流와 協力을 통해 信賴와 同質性을 회복함으로써 分斷으로 인한

不便과 苦痛이 없는 準統一狀態를 만든 다음, 單一政治體制를 形成하는 것이 合理的이고 現實的인 方途라고 생각된다.

이것이 우리가 제시한 平和統一 三大 基本原則의 精神이며 論理인 것이다. 이것은 곧 南北關係의 存在樣式을 初期 段階에서는 民族共同體와 같은 一種의 國家聯合과 類似한 形態로 출발시킨 뒤, 어느 時期에 가서 北韓의 對南姿勢가 軍事主義, 革命主義를 포기하고 互惠的 平和共存方向으로 轉換되는 條件에서 보아진 統合으로 發展시켜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名將名言>

先見力없는 勇氣는 불필요한 結果를 내기 쉽고 勇氣있는 先見力은 迫力이 없어 任務를 수행하기 어렵다.

— 나폴레옹 —

將校團은 어떠한 編制에서도 그 部隊의 心藏이요 精神이다. 따라서 全軍의 士氣와 人和의 온상이며 軍事專門知識의 근원이야 한다.

— 릿지웨이 —

北韓『主體哲學』의 官學的 性格

소련『哲學教程』과의 比較分析

申

— 高麗大教授 —
澈

(지난호 차례)

1. 머리말
2. 북한관용철학의 성립과정
3. 『主體哲學』과 소련『哲學教程』의 關係
4. 소련의 哲學論爭이 북한에 미친 영향
5. 북한『철학사전』의 『主體思想的』 성격

(이번호 차례)

6. 『主體哲學』의 基本的 性格
7. 結 論

6. 「主體哲學」의 基本的 性格

가. 김일성 1인철학의 구성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1973년에 시작되어 2년간 계속된 「哲學講座」(김일성방송대학 강의록)는 放送大學用일 뿐만 아니라, 북한 전체의 획일적인 철학교정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강의록이 보다 더 주목되는 점은 여기서 처음으로 「主體哲學」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이 講論全體가 소위 「김일성 주체철학」의 내용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해 준 점이다.

全編에 걸쳐 김일성어록의 인용으로 가득찬 이 철학강좌는 북한이 철학의 이름으로 독자적인 철학교정을 내놓은 첫

작업인 동시에 김일성 一人哲學의 공식적 교과서라는 점에서도 가장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 강좌의 첫머리에서 「主體哲學」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김일성의 주체철학은 우리 혁명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革命哲學이며,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킨 우리 시대의 勞動階級の 不滅의 철학이며, 人類의 철학발전에서 일대 혁명적 전환을 일으킨 철학이다」

이 인용에서 소위 「주체철학」이 마르크스·레닌 등 「古典家」들을 뛰어넘어 그 최고봉으로 偶像化했고, 「인류철학의 발전에서 일대 혁명적 전환을 일으킨 철학」이라고까지 과장해서 極言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그 서술형식도 마르크스·엔겔스 등에서의 直接引用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정식으로 인용하여 脚註를 단 것은 이른바 김일성의 저작이나 「敎示」들 뿐이다. 물론 스탈린이나 모택동思想에 대해서는 전혀 言及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講座에는 저자도 없고 체제상 철학교수들의 집단적 저작의 형태를 취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진정한 철학자로는 金日成一人만이 존재하게 된다. 소위 「주체철학」이란 김일성 1인의 어록 또는 「교시」를 골라내어 배열한 북한 특유의 철학교정이며, 그 基本性格은

1966년 정치적 슬로건으로 선언된 「自主宣言」을 근간으로 해서 그 선언의 철학적 합리화·체계화를 통해 官制의 이데올로기로 造作한데 불과하다. 이 점에서도 흐루시초프 이전의 소련 특히 스탈린 시대의 哲學統制의 方法과 유사하다. 또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해석권·발표권에 대한 철저한 일인독점도 스탈린主義的 철학정책을 그대로 蹈襲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체철학」을 북한이 조작할 때 活用 「創造的適用」의 명분에서 북한 독자의 철학이데올로기를 구성할 수 있는 그 成立理由를 이 「철학강좌」는 「主體哲學」은 우리시대의 요구를 反映한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철학」이라는데 두고 있다.

여기서 「우리시대의 요구를 반영한」이라는 것은 마르크스·레닌은 그 當時代의 요구에는 부응했으나 우리시대의 요구까지는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온연 중에 김일성의 「주체철학」만이 우리시대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시대의 요구」에 대해 「강좌」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오늘 우리시대는 국제적 규모에서 격렬한 계급투쟁이 벌어지며 세계의 모든 피착취 人民들과 피압박 人民들이 해방을 위하여 떨쳐 나가고 있는 위대한 투쟁의 時代이며, 혁명적 폭풍우의 時代입니다. 제국주의는 멸망하고 있으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온 세계적 범위에서

승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투적인 「金日成의 敎示」는 1960년대 이래의 平和共存路線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資本主義陣營과의 敵對的 階級鬭爭論에 입각한 일종의 「전쟁 불가피론」을 전제하면서 아시아·아프리카지역에서의 「民族解放鬭爭」의 시기로 규정하고 이 두 가지를 우리시대의 요구로 요약하고 있다.

북한독자의 철학이데올로기 개발의 필요성에 관해서 이 「講座」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의 소련 中心主義에 대해서 뚜렷한 반대를 표명하면서 「국제공산주의의 현 정세는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자주성과 독자성을 더욱 확고히 견지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다. 이와 같은 혁명운동에서의 自主性和 獨自性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이 「講座」는 운동의 단위가 「나라와 民族」이라고 해서 民族國家單位의 共產化運動이 아직도 우리시대의 요구라는 것이다.

「이러한 條件에서 매개나라 혁명에 대한 그 어떤 국제적인 이른바 中央的 指導가 있을 수 없고 실지 오늘 그러한 것이 없다.」

「철학강좌」의 이 인용부문의 서술에서는 명백히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있어서 소련 공산당에 의한 「中央的 指導」를 부정하고 있다. 「自主宣言」이래 북한당국은 「노동계급의 정치적 임무와 국제적 임무」의 두 가지를 구분하고 그 民族的

任務에 역점을 두어 강조한다. 이 구분은 철학이데올로기에 있어서 마르크스·레닌의 「一般理論」을 자기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조정 발전시킬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나라마다 실정이 다르고 혁명과정에서도 다른 조건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와 다른나라의 경험 원리를 그대로 옮겨나와 가지고는 혁명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 중략— 이것은 매개나라 黨과 人民의 자주적 입장과 함께 창조적 입장을 견지하고, 教條主義·事大主義의 마르크스·레닌주의 思想경향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여기서 「각국간의 실정이 다르다」는 特殊環境論이 「자주선언」의 기본적 논리로 이용되었고 또한 「주체철학」의 형성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8·15 이래 북한 내의 스탈린哲學追從을 포함해서 김일성의 政敵들, 즉 親蘇派·親中共派에 대해 이들을 교조주의·사대주의로 규정하면서 「反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경향」이라고 못박고 있다. 이러한 特殊環境論은 북한독창의 것이 아니요, 이미 1920년대 우리나라 社會主義運動者들 특히 呂運亨이나 新幹會運動者들이 거론한 바 있고 가까이는 이탈리아의 트리아치 構造改革論을 제시하면서 각 나라마다의 獨自인 사회주의의 길을 제창한데서도 이미 제기되었다. 특히 그

이론적 근거로는 1960년대 소련 아카데미 哲學研究所가 제시한 「사회주의적 내용에 있어서의 普遍性和 民族的 形式에 있어서의 特殊性」 테제를 지적할 수 있다.

1962년 소련 제22차 黨大會에서 채택된 소련 共產黨綱領에서 「形式은 民族的的, 內容은 社會主義的 文化」의 원칙을 제시하고 소극적이거나 「민족적 형식의 특수성」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모든 소비에트 민족공화국은 형제처럼 相互援助, 무엇보다 먼저 위대한 러시아 민족의 원조의 도움으로 自國의 近代의 공업을 이룩하고 自民族의 노동계급의 인텔리겐차의 기간요원을 양성하고 형식은 民族的이고 內容은 社會主義的인 文化를 발전시켰다.」

이 문제에 대해 1962년의 소련 「철학교과정」은 多民族으로 구성된 소련 연방내의 민족문제해결에 관해서, 社會主義的 改造는 과거의 文化를 모두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형식면에서 민족적 특수성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라고 쓰고 있다. 즉 「사회주의 제도는 온갖 종류와 형태의 민족적 억압을 소멸시키고 각 민족이 자기의 국가와 자기의 민족어와 민족문화 및 민족적 전통을 가질 권리로 인정하고」 그것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풀이하고 있다. 소련의 官遷哲學誌 「철학의 제문제」에서도 쵸아 메리안의 논문을 통해서 「민족적특성」이

란 심리적 구조로서 관찰자에게는 파악하기 힘들 정도의 情緒의 形式에 불과하고 그것은 文化的 獨自性을 통해서 표현된다고 규정했다. 이는 모든 「社會主義 民族的 심리적 구조의 공통성을 표현하는 각 민족의 문화에 있어서의 민족적 특수성은 국제주의적 내용을 가진다.」라고 해서 번증법적인 修辭로 민족적 특수성, 국제주의에 귀속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주체철학」은 소련철학의 이론적 배경에서 그 成立根據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1인의 독창적 철학의 발상인듯이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金日成은 우리시대, 즉 혁명의시대의 수령이며 마르크스·레닌주의자이며 주체철학은 바로 그 이께서 창시하신 철학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철학을 김일성의 「創始」로까지 강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높은 단계의 철학」으로까지 추켜 올리고 있으나 기실 이 철학의 조작으로 공산독재와 그 강제 이데올로기 유지를 위해 철학의 通俗化가 여지없이 감행된 것을 본다.

나. 「哲學講座」의 기본구조

放送大學講座인 「哲學講座」는 2년간 放送分의 방대한 것이다. 이 방송강의는 김일성대학 철학교수가 담당해서 강의했으나 그 기본 이데올로기적 구조는 김일성의 思想擔當이거나 黨사상 통제간부에

의해 꾸며졌을 것이고, 그것은 여러 집필자를 철학연구소의 研究士나 研究員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分擔執筆되었을 것이다.

이 강좌는 6章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련 철학교정의 구성을 간추린 형태로 ① 哲學 ② 政治論 ③ 人間論으로 되어 있다. 물론 이 강좌는 소련의 철학교정처럼 짜임새있는 것도 아니고, 순서나 編章의 편성도 서로 다르다.

우선 이 「철학강좌」와 5編으로 된 소련의 철학교정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초」의 목차 구성과를 대조해보면 쉽게 그 차이점에 착안하게 된다.

(a) 소련 철학교정의 목차

제 1 편 마르크스·레닌주의 세계관의 철학적 원리

제 1 장 철학적 유물론

제 2 장 유물론적 변증법

제 3 장 인식론

제 2 편 유물사관

제 3 편 자본주의의 경제학

제 4 편 국제공산주의의 이론과 건설

제 5 편 社會主義와 共產主義

(b) 북한 「철학강좌」의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主體哲學概要

제 1 절 주체철학의 근본문제

제 2 절 주체철학의 요구

제 3 절 主體哲學의 基本立揚과 方法

제 3 장 주체철학의 기본내용

제 1 절 주체철학은 客觀世界와 人間改造의 武器

제 2 절 物質世界의 全般的 關聯과 發展

제 3 절 世界事物現象들의 發展過程과 形態에 관한 唯物辯證法의 基本法則

제 4 절 全體와 部分의 互相關係

제 5 절 主體的 認識의 辯證法的 過程

제 4 장 革命과 鬭爭에 관한 理論

제 1 절 사회의 본질과 사회발전의 合法則性

제 2 절 계급적, 민족적, 사회적 해방을 위한 투쟁에 관한 이론과 방법

제 3 절 革命的 過程

제 4 절 프롤레타리아 獨裁

제 5 절 自由民主主義의 反動的 本質

제 6 절 黨에 관한 理論

제 7 절 國家에 관한 이론

제 8 절 人民大衆 動員에 관한 이론

제 5 장 思想意識의 本質과 人間改造

제 1 절 人間改造의 이론과 그 기본 방침

제 2 절 사회적 의식의 各異한 형태들

제 3 절 사회적 의식발전의 合法則性

제 4 절 사회발전에서 「思想意識」의 역할

제 5 절 혁명적세계관에 관한 이론

제 6 절 공산주의 人間育成을 위한 기본원칙

제 7 절 온 사회의 革命化, 노동계급화

제 8 절 革命的 人生觀의 本質

제 9 절 金日成은 우리 人民의 首領

제 6 장 金日成의 主體哲學을 깊이 體得하여 이를 혁명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자.

양자를 그 形式的 構成面에서 대조해보면 그 본 뼈대는 同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산권의 철학 이데올로기의 기본원리는 변증법적 유물론과 史的唯物論이며, 소련 철학에서는 戰後에 와서 唯物論的 認識論으로 反映論을 또 한 部門 추가했다. 이 점에서는 북한의 「철학강좌」는 제3장 「주체철학의 기본내용」에 이 3가지 분야를 배당하고 있다. 소련의 「철학교정」에서 제3절 「자본주의의 경제학」은 북한의 그것에는 缺如되어 있고 그 제4편 12장 「공산주의 이론과 전술」은 「自主宣言」에 입각해서 「철학강좌」 제4장에서 다루고 있는 셈이 된다. 북한의 주체철학은 공공연히 오늘의 국제공산주의의 이론과 전술을 김일성주의인 듯이 내세우고 있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이란 소항목이 눈에 띈 정도이다. 소련 「철학교정」의 結編인 「사회주의와 공

산주의」문제도 북한의 「철학강좌」에서 제4장의 제3절 「혁명의 과정」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북한의 그것에는 「人民大衆의 動員에 관한 이론」이란 節을 마련하고 여기서 「靑山里精神, 靑山里方法, 人民的事業作風, 千里馬運動」을 풀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철학강좌」의 기본구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테마는 제5장 「思想意識의 本質과 人間改造」이며, 소련 「철학교정」에서 제시된 「문화혁명의」테제를 借用하여 이를 확대 강조하면서 이른바 「人間改造理論」까지 제시하고 있다. 소련 「철학교정」에서는 그 제24장 「사회주의의 사회적 諸法則과 그 文化」에서 「文化革命은 社會主義的 改造의 주된 구성부분이다.」라고 전제하고 있다. 여기서 소련의 「문화혁명의」개념은 傳統文化的의 계승문제, 文化的 惠澤의 보편화, 인텔리겐자문제 등을 지칭하는데 반하여, 북한의 철학강좌에서는 이와 같은 소련의 「文化革命」이나 「社會主義改造」개념을 확대하여 大衆의 意識動員問題로 轉化시키고 있다. 아울러서 「주체철학」의 기본적 지점을 오히려 유물론보다는 의식중원의 적극적 역할, 上部構造로부터의 土臺에 대한 反作用 등을 강조하여 일종의 전체주의적 精神主義 내지는 파시즘의 觀念論으로 그 철학적 입장을 바꾼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강좌 전반에 걸쳐 기본 테제로 내세우는 것은

人間이 주체이고 민족이 主體라는 人間決定論, 民族決定論인데 이와 같은 人間決定論은 自主宣言에서 내세운 「思想에 있어서의 主體」 즉, 주체사상을 通俗化된 철학적 논리로 분장한 데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철학체계에는 김일성의 政治 슬로건이나 重要政策 提제가 고무 삼입되어 있다.

① 主體哲學, 自主路線

② 反帝 反封建 民主主義革命

= 「南朝鮮革命」

③ 「민족경제건설」

④ 「남조선 군사궤소 독재정권의 반동적 본질」

⑤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⑥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⑦ 「千里馬운동」

⑧ 「김일성은 인민의 벗」 등,

이상과 같이 김일성정책 提제의 철학적 문장은 「혁명적 인생관의 본질」 章에 와서는 그 極에 달한다. 원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있어서는 「人間的 문제」, 「人生觀의 문제」는 일단 관념론적이라 해서 부정하고 그것을 정치 경제적 실천, 당적 실천의 문제로 환원시켜 버렸다. 이 강좌가 여기서 인생관을 거론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인생관의 문제를 전적으로 外面하고 혁명적 실천으로 깨끗이 환원시키고 더우기 金日成에 대한 개인숭배주의로 변질시키고 있다. 그 「혁명적 인생관의 본질」 章의 내용은 다

음과 같다.

① 定義

② 首領에 忠誠다한 觀點

③ 政治的生命을 제1로 삼는 觀點

④ 혁명에 몸바침을 행복으로 여기는 觀點

⑤ 집단 앞에 개인의 이익을 복종시키는 觀點

⑥ 혁명의 前途를 낙관하는 觀點

이 절에서 소위 「혁명적 인생관」의 기본은 김일성 개인숭배에 두고 있고, 「정치적생명」 제1주의로 인생관의 문제를 모조리 黨의 實踐을 위한 自動人形으로 過剩同調하도록 강요하는 順應主義의 태도를 권장하는 全體主義的 人間觀을 드러냈다.

그리고 幸福論도 黨의 利益을 위한 희생의 강요로 환원되고 혁명적 낙관주의 등을 원용해서 人生觀의 내용으로 채우고 있다.

다. 意識의 能動性 問題

요컨대 「金日成 主體哲學」의 구성에 있어서 지렛대가 되는 철학적 據點은 유물론적 철학원리보다는 「의식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게 된 1960년대 소련 「철학교정」의 수정부분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가 기왕의 철학원리로 고집해오던 物質決定論이나 經濟至上主義만으로는 인간의 의식적 행위인 계급적 실천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계급의식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정하게 되는 이론적 딜레마에서 탈피하기 위해 소련 철학계는 전후에 철학 논쟁 중 가장 큰 두 가지 논쟁 즉, 土臺와 상부구조의 관계와 사회주의하의 모순문제를 전개했는데 소련철학이 의식과 더불어 상부구조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는 데로 크게 전환된 것은 토대와 상부 구조논쟁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북한 총감」은 6·25동란 후 북한 철학계가 주로 토대와 상부구조에 관한 논쟁으로 일관했다고 전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이 논쟁은 우선 소련에서의 토대와 상부구조 논쟁의 과급입에 틀림없다. 이 점에 대해서 소련의 「철학교정」은 다음과 같은 철학적 논점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① 실천이 진리의 기준이다.

② (토대와 상부구조에 관하여) 「역사 발전과 인간의식의 능동성」 「사회발전에 있어서의 사상의 역할」 「사회발전에 있어서의 自發性和意識」

특히 소련 「철학교정」은 1962년 수정철학과 1971년 제3판에 와서는 대륙 인간 결정론으로 기우고 인간의식의 능동성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교정」은 「사회발전에 있어서의 사상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역사 합법칙성이 인간의 능동적 활동 가운데에서 나타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은 사회사상이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것의 승인이다」라고 전제하고 토

대결정론도 아울러 대륙 수정하기에 이른다. 여기서 토대결정론은 유물사관의 공식이 제시되었다는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 서문에서 토대와 상부구조의 관계를 규정했는데 거기서 상부구조에 대한 토대의 규정적 역할과 상부구조의 구성, 상부구조의 변혁 등을 서술했다. 특히 토대결정론의 실마리를 준 것은 물질적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관계에 대응되는 생산관계의 총체가 「사회의 통치구조를 형성한다. 이것이 현실적 토대이며 그 위에 법률적 정치적 상부구조가 서로 또한 이 토대에 대응해서 사회의식의 일정한 형태가 있게 된다. 이 서문에서는 명백히 사회적 존재가 그 사회적 의식을 결정한다는 마르크스 자신의 유명한 「존재」 결정론적 명제를 역사면에 적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명제는 Gustav A. Wetter가 그의 *Soviet Ideology Today* (1966)에서 적절히 분석한 것처럼, 「역사적 유물론의 기초명제라고 하나 그 유물론적 성격이 애매하고 다만 역사관에 있어서 세계를 人間の 의식과 독립되어 있다」는 주장을 뜻하는 데 불과하고 따라서 철학적 유물론과는 일단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Wetter는 위의 마르크스의 명제가 歷史決定論에 빠져있고 이와 같은 역사발전을 지배하는 「자연적 필연성」이나 必然法則에 대한 신념은 사회발전법칙에 대한 人間の 의식이 역사를 발전시킨다는 실천의

대제와 자가당착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럽의 계몽사상에 뿌리를 둔 마르크스의 진보사관은 일종의 역사적 낙관론을 내포하고 있고 또한 그 토대규정성에 대한 신념은 「역사적 경제이상주의」(Historical Economism)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급에게 혁명적 정치의식을 주입하여 혁명에 동원할 수 있는 직업적 혁명가 前衛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레닌주의에 와서는 그 主意主義的 엘리트즘으로 인해 유물론과 상극되는 등 이론적 혼란을 가져왔다. 그러나 김일성 「主體哲學」의 기간을 이루는 人間決定論이란 레닌주의의 主意主義的 엘리트즘의 變種 이의의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그러나 人間意識이나 上部構造의 적극적 역할에 관한 修正理論은 1950년 스탈린의 언어학 논문 「언어학에 있어서의 마르크스主義」에서 비롯한 토대-상부구조 논쟁의 귀결이며 이를 “Voprosy Filosofii”誌의 M. D. 감마리의 논문 「토대와 상부구조 이론의 몇 가지 문제」에서는 이 논쟁이 스탈린의 上揭論文에 나타난 상부구조의 상호적 독립성에 관한 시사에서 연유되었다고 주장했다.

「上部構造는 자신의 토대를 능동적으로 수호한다는 이·브·스탈린의 定式을 한층 더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상부구조가 토대에 의존하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전체로서의 상부구조와 그 각각의 요소가 발

전하는 경우의 일정한 상대적 독립성을 부정함을 뜻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했다. 감마리는 「경제가 토대를 자동적으로 産出하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인간의식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한다. 이 감마리는 논문 속에서의 「상부구조의 능동적 역할과 그 계요소의 발전에 있어서의 계속성」의 서술은 소련 철학계의 토대-상부구조 논쟁의 결론을 요약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소련 「철학교정」도 유물사관에 대한 혁명적 약점을 비판한 서방측 비판자의 견해에 언급하고 있다. 즉 「그들(부르주아적 마르크스주의의 비판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마르크스주의자가 사회의 정신생활은 물질적 존재의 반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라고.

그러나, 「教程」은 「사회사상발생의 기원을 지적하는 것은 결코 그것이 사회사상의 의식을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하지는 않는다」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교정」은 다음과 같이 오히려 상부구조가 토대에 반작용해서 영향을 준다는 이른바 토대에 대한 상부구조의 반작용적 결정론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성숙한 물질적 요구를 기반으로 발생한 사상은 이번에는 그것이 사회발전의 진전에 영향을 준다」

여기서도 사회의 사상이나 상부구조의 발생면에서도 土臺決定論을 인정하면서도 일단 발생한 사상이나 상부구조는 토

대에 능동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教程의 상부구조설이나 인간의 실천적 행위가 지닌 능동적 역할을 강조한 DIAMAT의 修正論이 기실 「主體哲學」의 이론적 거점이 된 것은 거의 의심할 바가 없다.

북한의 「철학강좌」는 물질과 의식의 상호관계에 관한 소련 철학계의 修正說을 거의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철학강좌」는 물질이 의식을 결정한다는 마르크스의 物質決定論은 一面의이 되고 「물질의 1차성을 인정하는 것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라 해서 이 주장이 단지 세계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經驗論의 態度를 뜻하는 것으로 그 語義를 낮추고 우리의 意識은 「現實을 정확히 反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의식의 능동적 역할에 관한 소련 철학의 수정설에 대해서 「철학강좌」는 그것이 마치 金日成 개인이 심화, 발전시킨 독창적 주장인 듯이 변조하고 있다.

「김일성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물질과 의식의 호상관계, 특히 의식의 능동적 역할을 전면적으로 밝히심으로써 변증법적 유물론을 더욱 발전시켰다.」

그리고 소련 철학에서의 物質과 意識, 토대와 상부구조의 상대적 독립성의 이론은 「주체철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옮겨지고 있다.

「의식은 물질에서 규정되고 물질의 변

영이라는 것, 물질이 1차적이고 정신이 2차적이라는 것은 결코 의식의 능동적 역할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의식은 물질에 그 원칙을 두고 물질에 의해서 형성되고 물질에 의해서 규정되지만, 그것이 일단 발생한 다음에는 相對的 差異點을 가지고 물질세계에 대해서 실천을 통해 큰 힘으로 적극적으로 반작용한다」

이와 같은 「철학강좌」의 입장은 전후 소련 철학의 수정에 따라서 물질의 1차성을 유지하면서도 인간의 의식적 능동성과 실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실천적 唯物論으로 그 입장을 바꾸고 있다. 아마도 상부구조가 토대에 反作用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이 「강좌」에서 처음일 것이다. 이로써 「철학강좌」는 전통적인 유물사관의 공식울 스스로 뒤엎은 것이 된다. 이에 대해 「강좌」는 古典家들의 약점으로서 「의식의 물질에 대한 반작용의 측면에 대해 전면적이고도 완전한 해명을 주지 못했다」라고 쓰면서도 그 수정이 이미 소련學界와 그 「철학교정」에서 이루어졌음을 一言半句도 지적하고 있지 않다.

라. 「사람」決定論의 문제

이상의 비교분석에서 명백해진 바와 같이 소위 「주체철학」의 독창적 중심원리로서 내세우는 「사람」決定論은 김일성의 독창이 아니라, 소련철학의 수정주

의를 정치적으로는 반대하면서도 철학이 메테올로지 면에서는 전적으로 수용하는 兩面性을 드러내고 있다.

「철학강좌」는 「세계와 사람과의 互相關係」에 대해서 이 문제가 철학의 근본문제라고 전제하면서 「철학의 근본문제는 세계를 개조하는 문제, 세계는 사람간의 호상관계문제이다.」라고 단정하면서 「주체철학」에서의 「主體」가 마치 「사람」을 뜻하는 것처럼 서술하여 어느덧 유물론을 휴머니즘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특히 북한정치현실에서의 「사람」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박제된 사상의 로보트이며 順應主義의 人間型인 동시에 金日成 個人崇拜의 狂信分子에 불과하다. 이 점에서 「주체철학」은 Adam Shaff의 「人間的 문제」에서 제시된 사회주의적 휴머니즘과도 인연이 멀고 정치경제적 黨의 實踐의 영역 이외의 人間問題의 영역을 인정한 것은 결코 아니므로 오히려 북한사회에는 金日成支配에 의한 혹심한 人間疎外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그 근거로 북한에서는 사상·언론의 자유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주체철학」은 「사람」을 定義하여 「物價와 思想과의 통일적 체험자인 동시에 실천의 경험자이고 개조자이다」라고 했다. 이 人間主義는 재래 마르크스주의적인 「工作人」(Homo-faber)의 人間觀을 수식하여 실천적 행위의 관점에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주체철학」은 그것이 애매하게 「사람」 위주의 철학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철학의 通俗化를 감행했다.

「우리 철학은 사람을 위주로 한다.」 이와 같은 추상적인 정치적 슬로건類의 引用句로 가득찬 이 「강좌」는 결국 1966년의 정치적 「자주선언」을 놓고 그것에 다 철학적 外皮를 씌워 놓았다. 「自主宣言」에서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의 독자노선을 추구한데 불과하지만, 그 宣言에 대한 철학적 合理化인 「주체철학」에 와서는 「사람의 本能」까지 「自主性」이라고 논리적 비약을 일삼는다. 여기서 「철학강좌」가 「自主宣言」에 대한 後繼의 북한형 철학교정 조정작업이었음이 드러난다. 「사람에 있어서 自主性은 生命이다. 「人間尊重의 철학이다」 등 슬로건을 나열하면서도 이 강좌는 그런 命題들을 哲學的 原理와 論理的 論證의 과정을 통해서 논술한 흔적은 전혀 없다. 따라서 이 文書는 진정한 의미에서 철학이 아니라 政治口號 體系化이며 김일성우상화, 1인독재의 강제사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이며 이 강좌의 제2장 「주체철학개요」의 제3절 「주체철학의 근본입장과 방법」이 주로 「자주선언」의 풀이를 장황스럽게 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 「강좌」의 성립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강좌가 1920년대 우리나라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비판을 통해 소련 「철학교정」에서 借用한 슬어인 「민족하

무주의」(National Nihilism)와 「事大主義」의 과오로 낙인찍고 대내적으로 김일성의 정객들에 대한 이데올로기 투쟁의 무기로도 사용하고 있다.

「사대주의는 1920년대 우리나라 공산주의운동 안에서 흑심하게 나타났고 사대주의자였던 종파분자들에 의해 더욱 조장되었다」

여기서 「사대주의」는 1920년대 조선공산당의 코민테른 추방을 지칭한다고 하나 기실은 북한 내의 친소파 숙청의 명분이었고 종파분자란 6·25동란 이후 숙청된 南勞波一派를 지칭하고 있다. 무엇 보다는 북한의 反事大主義 이데올로기는 소련 「철학교정」에서의 「사회주의적 애국심」(Socialistic Patriotism) 태제에서도 역시 借用하고 그것에 의거해 있다. 소련 내에도 대외투쟁에서 계급의식 보다는 민족적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이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마르크스주의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애국주의」를 再導入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적 개인의 고도의 사상적 자질은 사회주의적 애국심이라는 감정에 나타난다. 이 새로운 사회주의적 애국심은 단지 조국의 토지나 주민, 습관, 언어, 그밖의 것에 대한, 人間으로서의 자연적 애착심일 뿐만 아니다. 그것은 우선 첫째로……사회주의제도에의 복종이다」

소련이나 공산권의 이데올로기 형성에서는 민족주의(Nationalism)를 부르조아적이고 또한 국제주의와 배치된다고 해서 否定하면서 새로이 애국주의를 도입했고 그것을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절대적 복종심으로 개조했다. 모든 애국심은 제도 이전의 민족에 대한 자연적인 사랑의 감정이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복종심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소련의 「철학교정」도 이 애국심이 적극적 능동적 감정인 것은 「조국전쟁시기에 소련인이 보여준 위대한 헌신적 행위이다」라고 서술한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1960년대 이래 「자주선언」의 철학 이데올로기 합리화 작업 속에 소련의 「사회주의적 애국심」 체계를 차용하고 민족적 감정을 김일성체제에의 복종심 동원에 결합시켰다.

요컨대 「주체철학」에서의 중심적 태제인 「사람決定論」은 비철학적인 虛辭인 동시에 자주선언의 철학적 장식품이며 이 이데올로기 체계화 작업에도 소련의 「철학교정」이 전적으로 원용된 것은 의심할 바 없다.

7. 결 론

이상에서 1970년대 초에 북한에서 官用 哲學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김일성 주체철학」의 구조와 성

적을 주로 소련 「철학교정」과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구명해 보았다. 이 論題는 그 資料的 制約과 哲學論述의 通俗化된 이론적 雜居性 때문에 별로 연구되지 않은 분야이다. 더구나 북한에는 思想의 자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철학연구의 자유도 全無이고 철학은 거의가 소련 「철학교정」의 直輸入에 머물렀고 입수가 가능한 자료가 보여주듯이 북한학계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철학적 연구논문은 거의 없고 철학 이데올로기에 관한 限, 소련 철학의 테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논쟁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북한철학이 존재하는가라고 누가 묻는다면 그것은 소련의 철학교정과 완전히 同一하고 철학의 發言權者는 金日成 1인 뿐이라고 대답해도 무방할 것이다. 1970년대에 와서 비로소 소련의 「철학교정」에서 상대적 독립을 추구하면서 1966年 「自主宣言」의 정치노선에 대한 철학적 합리화 작업으로 본 論題의 연구 대상인 「主體哲學」으로서의 敎程이 발표된 것이다. 요컨대 이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주체철학」은 1970년대 초 김일성 방송대학 강의록 「철학강과」(1973~4년)로 발표되고 이 文書가 북한의 유일한 公式的인 철학교정이요, 그밖의 소련 修正主義哲學은 부정하면서 철학 이데올로기의 해석·발표의 김일성 1인독점이 완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철학정책은 1930년대 스탈린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의 해석권 독점을 그대로 추종한 小 스탈린주의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

② 1966年 「자주선언」에서 나타난 「主體思想」과 1970년대 초의 이 「金日成 主體哲學」과는 일단 구별되어야 한다. 1960년대말까지 더구나 이 「철학강과」 발표 이전까지는 「주체철학」이란 用語가 사용되지 않았고 1970년대 초의 「철학사전」은 자주선언에서의 4自노선의 슬로건중 「思想에 있어서의 主體」에 대한 思想敎養事業을 위해, 黨中央으로부터 哲學研究所에 내려진 研究論題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③ 그러나, 이 「철학강과」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에서도 감히 金日成을 제 1인자로 서술하고 그 「創造的 適用」의 최고의 權威者로 추켜 올리면서 마르크스·레닌 등을 「古典家」라 해석 낚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한 낚은 철학자로 格下시키고 그 서술형식에서도 직접 마르크스나 레닌을 引用한 곳은 한 대목도 없다.

④ 이 「철학강과」를 소련의 「철학교정」과 비교 분석한 결과, 이 철학 이데올로기 造作에서는 전적으로 소련철학을 이용하면서도 북한체제와 김일성체제에 적합하게 선택, 변모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 「철학강과」에서는 소련의 철학논쟁

중 토대와 상부구조에 대한 소련의 修正理論에서 많은 借用을 볼 수 있다.

戰前 소련이나 공산주의 운동자에게는 唯物史觀의 공식으로 固定化되어 있던 토대결정론에 대한 전후 소련에서의 수정인 「土臺와 상부구조의 상대적 독립성」 「상부구조의 토대에 대한 반작용적 영향」說 등을 이 「주체철학」은 전적으로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론을 빌려 유물론을 主意主義의 정신주의로 變造하고 있다. 북한체제하에서 주민을 정치에 동원하는 意識動員의 현실을 「상부구조의 적극적 능동적 역할」 체계로 合理化하고 있다. 이 點에서 「주체철학」은 그것이 유물론인지 관념론인지 그 철학적 입장이 모호하고 오히려 政治的 觀念論 내지는 의식동원을 위한 全體主義의 패시즘 철학의 性格을 띠게 되었다.

⑤ 「주체철학」은 「사람을 위주르 하는 철학」이라 해서, 「사람」 決定論을 기본적인 입장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미 소련 「철학교정」에서도 제2판(수정판) 이래

물질결정론의 수정, 思想의 능동적 역할 등 인간 결정론으로 변질된 修正主義哲學에 기초해 있다.

그러나 「주체철학」은 1966년의 「자주선언」의 정치적 슬로건을 事後에 철학적으로 正當化한 이데올로기 造作作業이었고 「주체사상」의 철학적 扮裝에 불과했다.

요컨대 김일성 「주체철학」은 북한에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의 直輸入 30년 만에 처음으로 독자적인 북한형 철학교정을 조직·생산해내었으나 그 내용은 결국 소련 철학교정의 借用·變造의 産物에 불과하고 북한에서는 철학에서마져 완전히 1인독점이 결행된 證佐를 보게한다. 다시말해서 이 「주체철학」의 실질은 북한에는 자유로운 철학적 사색도 연구도 불가능하고 완전한 사상통제하에 剝製된 유일한 북한형 「共產經典」이 있을 뿐이고 철저한 철학不在, 철학적 연구의 不毛性을 폭로해 준 것이 된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이다.

<名將名言>

部下에게 必勝의 信念을 심는 方法은 간단하다. 그것은 勝利의 기회를 만들어 스스로 체험케 하는 일이다.

— 룬 엘 —

하늘의 행진곡

정훈감실 작사
현중건 작곡

생기있게



하늘은 우리들 남 아 - 의 무 대
하늘은 신 - 세 - 기 탐 구 - 의 무 대



은 - 익 - 을 솟 - 구 - 쳐 삼 - 만 - 오 - 천 - 천
오 - 대 - 양 육 - 대 - 주 비 - 줌 - 은 - 이 - 때



비 바람 몽계구름 해 치고 또 해 쳐 오 랑 캐 잠 자리 때
신 비 의 별나라로 은 하 수 - 건 너 대 - 한 그 이름 도



물 리 치 - 고 자 삼 천 만 삼 - 천 -
길 이 빛 - 내 여



리 의 하 날 - 날 으 자

숫아라 보라매

무게있게

성훈갑실 작사
윤성모 작곡



환 구름 뚫고 높 이 날 으 는 우 리 들 은 보 라 매
어 둠 을 헤 쳐 높 이 날 으 는 우 리 들 은 보 라 매



꿈 는 피 속 에 다 저 진 심 음 하 늘 높 이 뿌 리 리
이 기 고 말 자 한 뜻 을 모 은 높 은 기 상 별 시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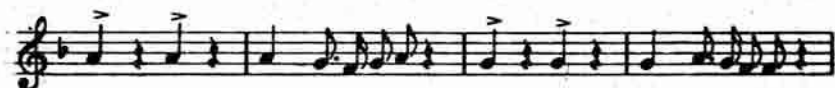


은 - 누 리 이 름 떨 친 - 배 - 달 - 의 아 들
내 - 하 늘 내 겨 레 는 - 내 - 가 - 지 킨 다

(후렴)



하 늘 침 명 우 리 무 쇠 날 개 - 숫 - 아 라 보 라 매



공 군 우 리 는 공 군 공 군 성 예 외 공 군



필 승 필 승 의 공 군 삼 천 만 의 불 집 번

멋쟁이 용사

김종런 작사
조광재 작곡



여 기 는 피 가 끊 는 점 음 - 외 도 - 장
보 아 라 힘 찬 결 음 멋쟁 - 이 용 - 사



용 맹 한 사 나 이 가 한 께 문 쳤 다
승 리 의 태 극 기 를 눈 이 날 리 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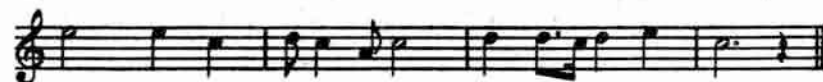
사 우 - 면 초 전 박 실 노 도 - 와 같 이
새 역 - 사 기 수 되 어 노 도 - 와 같 이



영 화 의 꽃 을 심 는 멋쟁 이 용 사
우 리 는 달 려 간 다 통 일 의 길 을



(후렴)
안 저 라 축 복 이 여 이 넓 은 가 슴 에



너 와 나 새 역 사 의 주 인 - 공 이 다

용사의 충정

씩씩하고 웅장하게

유지만 작사
김학송 작곡



1. 새 파란 하늘아래 꽃피는 강산
2. 조상에 물려받은 빛나는 유산



번영의 새터전에 먼동이 텅 다
우리의 힘 다하여서 지켜가리다



너와나 조국앞에 바친 젊음이
너와나 부름받은 용사의 충정



자유와 평화위한 길이라면은
겨레와 나라위한 길이라면은



<후렴>이 젊음 바치리라 이 목숨바치리라

丙子胡亂과 金尙憲

1. 出生과 背景

金尙憲은 宣祖 3年(1570年)에 태어나 孝宗 3年(1652年)에 죽은 李朝中期 대의 學者이다.

그의 字는 叔度요, 號는 淸陰이다.

그는 楊根의 書齋를 石室山人이라고 불렀으며 兄이 되는 仙源과 함께 安東 金氏 門中에서 중추적인 人物이다.

金尙憲의 家系를 잠깐 소개하여 보면 高祖는 司憲府掌令이었으며, 그의 曾祖 되는 분은 平壤尹이었고, 祖父되는 분은 海州郡守였으며, 父親되는 분은 敦寧府都正 克孝였으므로 역시 仙源과 淸陰 이후에야 비로소 名公과 宰相이 나왔다 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그가 태어나기는 外家에서 태어나서 伯父가 되는 大孝에게 入養을 하였으나 부친의 任地를 따라 전전하여 다녔으므로 겨우 아홉살 때부터 入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를 지도하였던 스승들은 모두가 당대에서는 大文章家이며 名士流였기 때문에 그는 곧 바로 학문적으로 쉽게 成長할 수 있었다.

그에게 가르침을 준 가정적 배경을 살펴 보건데 그의 外祖되는 분은 林塘 鄭惟吉이었고 큰 兄은 仙源 金尙容과 堂兄인 休菴, 金尙준 등으로부터 일찌기 배움

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가 열여섯살되던 해부터는 月汀, 尹根壽와 같은 大文章家로부터 학문을 배웠으며, 또 이어서 象村 申欽과 月沙 李廷龜, 西桐, 柳根 等の 門下에서 학문을 배웠다.

그런데 이들 학자는 모두가 당시 宣祖의 文化政策으로 古文復興을 담당하였던 大文章家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스승의 門下에서 공부를 하였다는 것은 그에게는 영광일 뿐 아니라 학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기회가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또 그와 같이 學友로서 같이 道學과 文章을 익힌 사람으로는 鶴谷 洪瑞鳳과 東岳 李安訥과 竹陰 趙希逸과 谷谿 張維 등과 같이 학문을 연마하기도 하였는데 이들은 당시 모두 뛰어난 才士들이었던 것이다.

宣祖 29年(1596年)에 그의 나이 27歲 때에 처음으로 文科에 급제하여 곧 承文院에 들어가서 副正자가 되었다. 이어 奉禮郞·시강원·이조좌랑·홍문관시강원 등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당시 政界는 매우 어지러웠던 시대여서 중앙의 관서에 있다가 北方으로 나가 있어야만 되었는데 그 후 겨우 발탁되어 선조 4년에 成均館 直講이 되어 다시 중앙으로 올 수 있었다.

그가 연이은 父母喪을 당하여 효성을 다하는 동안에 政界는 매우 어지러워서

仁祖反政이 일어났고 「李适의 亂」이 일어났다.

光海君 7年에는 「恭聖玉候册封誥謝思箋文」이 王의 뜻을 거슬리게 되어 곧 파직되었다가 仁祖 2年에 다시 등용이 되어 대사간, 대제학, 이조판서를 역임하게 되었다.

2. 丙子胡亂과 斥和論

金尙憲이 丙子胡亂이 일어나기 전 3年 동안에 大司憲을 다섯번이나 역임하였는데 정의와 正論은 마치 그의 직분처럼 되기도 한 것이다.

丙子胡亂은 이조시대에 우리나라의 큰 戰亂이었던 壬辰倭亂과 함께 2大國亂이었던 것인데 淸太宗이 침입함으로써 일어난 우리나라와 淸나라와의 싸움이었다.

그 原因은 1927年(仁祖 5年) 정묘호란으로 우리나라와 後金(뒤에 淸國)은 兄弟之國을 맹약하였으나 그 후 後金은 明나라를 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군량을 강요하여 왔고, 兵船을 요구하여 오는 등 압력을 가하여 왔다.

한편으로 1632年(仁祖 10年)에는 형제 관계를 고쳐서 君臣관계를 맺고, 歲幣를 올려 달라고 요청하여 왔다. 이와같은 후금의 태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排淸 감정은 더 한층 높게 되었다.

마침 後金の 太宗은 내몽고를 평정한

뒤에 汗(왕호)의 칭호를 버리고 皇帝와 같은 尊號를 사용하기 위하여 1636年(仁祖 14年) 2月에는 龍骨大夫 馬太夫 등을 보내와서 滿洲와 蒙古와 같은 部族長들이 淸의 太宗에게 올려 바친 존호의 글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도 이와같이 하라고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仁祖는 단호하게 斤和論의 主張에 따라서 淸나라의 使臣도 만나보지 않고 國書도 받지 않았으며 朝鮮八道에 命을 내려 國防에 힘을 쓰도록 하고 싸울 뜻을 표하였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강력한 태도에 대하여 淸나라는 같은 해 12月에 11萬大軍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침입을 하여 왔다. 이에 우리나라의 林慶業 장군은 白馬山城을 굳게 방비하고 임진태세를 갖추었으나 적들은 이 길을 피하고 서울로 직행하여 근교에까지 머물게 되었다. 조정에서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강구하였는데 主戰派와 主和派의 主張이 엇갈렸다.

그러나 당시 禮曹判書 金尙憲은 和議를 하는 것은 잘못이며 온당치 못하다고 극언까지 하였다. 이때에 王은 모든 大臣들과 堂上들을 불러 놓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라꼴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은가, 내 한민이 죽는 것은 애석하지 않으나 父兄·百官 및 軍民들이 모두나 때문에 모두 淪陷되게 되었다. 古今 天地에 이와같은 망극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

하였다. 王은 또 말하기를,

「나이 어린자들이 생각이 얇고, 논리만 일삼다가 이러한 禍를 초래하였다.」고 하면서 이제와서 척화·배청을 후회하면서 이제나마 淸군의 요청을 들어주려고 하였다.

이 때에 金尙憲을 中心으로 鄭蘊, 그리고 三學士인 洪翼漢·尹集·吳達濟 등은 결사적으로 항전을 하자고 주장하여 조급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반면에 김류·홍성봉·최명길 등의 주화파는 적극적으로 淸군과 화의를 모색하고 있었으나 마침 飢寒이 밀어 닥치고 城은 2층 3층으로 포위되어 더 이상 버티어 나아갈 수도 없고 해서 王은 主和를 하는 方向을 취하고 말았다.

3. 淸太宗의 要求條件

전쟁이 일어난 그 이듬해 정월 10일 이후 최명길 등이 누처에 걸쳐 淸軍과 화평교섭을 벌여오다가 결국은 淸太宗의 요구조건이 나왔는데 그 內容은 조선왕이 직접 城門밖에 나와서 항복을 하고 主戰派 2~3名을 인도하면 화의에 응하겠다는 것이다.

王은 처음에 주저하였으나 事勢不得而라 하는 수 없이 응하고 말았다.

仁祖는 결국 1月 27日 城에서 나와 淸

복하겠다는 글을 淸軍의 진영으로 보내고는 30일에는 마침내 시종 50여명을 거느리고 三田渡(麻田浦)로 나아가서 淸의 太宗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하고야 말았다.

이 때에 淸太宗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조선은 淸에 대하여 臣의 예를 다할 것.

② 조선은 明나라와의 관계를 절교할 것.

③ 기일을 어기지 않고, 조선은 王의 長者와 第二子 그리고 大臣의 子女를 인질로 보낼 것.

④ 淸國이 明나라를 칠 때는 援軍을 파견할 것.

⑤ 內外 諸臣과 婚姻관계를 맺고 和好를 굳게 할 것.

⑥ 황금 100량과 白銀 일천량을 비롯해서 20餘種의 物品을 歲幣로 바칠 것.

⑦ 聖節, 正朔, 冬至, 慶弔의 사신은 明나라의 舊例를 따를 것 등이다.

이와 같은 치욕적인 조건으로 조약을 맺고,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두 王子가 인질로 가고, 척화파의 강경론자인 洪翼漢·尹集·吳達濟 등의 三學士를 데리고 갔는데, 이 三學士는 청나라에 데리고 간 후 극형에 처하여 버렸다.

淸陰 金尙憲은 主戰派의 대표로 이와 같은 치욕적인 항복이 결정되었을 때 목매어 자살을 기도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서 결국은 미수에 그치고 말았지만 그의 主體的인 意識은 변함이 없었다.

강화조약이 맺어진 후 金尙憲도 淸軍에게 끌리어가게 되었는데 그 곳에 가서 구금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淸나라의 潘陽에서 金尙憲과 崔鳴吉이 서로간에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간에 한 사람은 主戰을 主張하였고, 또 한 사람은 和議를 主張하여 相反된 主張을 하였지만 국가를 위하는 忠議는 서로간에 변함이 없었다.

4. 金尙憲과 崔鳴吉

金尙憲과 崔鳴吉 두 사람이 서로간에 심양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에 다음과 같은 詩로 서로 화답하였다고 전해진다.

먼저 淸陰 金尙憲의 詩를 소개하면 성공과 실패는 天運에 달린 것이니 모름지기 義가 돌아가는 곳을 불지어다.

비록 아침 저녁으로 생각하여 보아도 치마와 저고리는 서로 풀러 입지는 못할 지로다.

權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은 사람이라도 오히려 잘못되기 쉬운 것이요,

상도(經)는 모든 사람이 어기지 못하는 것이라

이치에 밝은 선비에게 붙여 말하느니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저울질을 삼가하여 할지로다.

成敗關天運 須看義與歸
雖然反夙舊 未可倣叢衣
權或賢獨誤 經應衆莫違
寄言明理士 造次慎衡權

이에 應答한 暹川 崔鳴吉의 詩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고요한 가운데 못 음지임을 보니,
아무런 꾸밈없이 그대로 나타남이로다
끓는 물과 얼음은 모두가 물이요,
갓옷(裘)과 갈포(葛)는 모두 옷은 옷

일세

일은 흑 때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더라도
마음은 오히려 道에 달하는 것
그대 능히 이 이치를 깨달겠거니
말을 하거나 않거나 각기 천기가 있는
것을

靜處觀群動 眞成爛漫歸
湯水俱是水 裘葛莫非衣
事或隨時別 心寧道與歸
君能悟斯理 語默各天機

이와 같이 金尙憲과 崔鳴吉은 서로가 立場은 다르지만 국가를 위한 일편단심의 忠義는 변함이 없었다.

李朝는 임진왜란과 같은 치참한 전란을 겪고도 정신 못차리고 사색당파들이 갑론을박만을 일삼다가 또 다시 丙子胡亂을 맞게 된 것이다.

이 丙子胡亂이야말로 國王이 항복을 하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영원히 잊지 못할 치욕적인 전란이었다.

그 후 淸나라에 잡혀갔던 淸陰 金尙

憲은 옥 중에서 오랜동안을 분하고 억울하게 고생하다가 돌아왔다.

그리하여 다시 관직에 올라서 오직 主體的인 思想을 갖고 북벌계획에 主力하였음은 변함이 없었다.

마침 林慶業 장군은 明나라와 긴밀히 연락하여 淸을 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仁祖의 뒤를 이어 등극한 孝宗(鳳林大君)은 淸나라의 瀋陽에서 겪은 인질로서의 고초와 굴욕을 씻고자 비밀리에 군비를 갖추어 북벌할 계획을 세웠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淸陰 金尙憲과 같은 의리가 있고 主體性이 확고한 선비들 中心으로써 精神的인 무장을 굳게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道學者이며, 性理學者이기도한 宋時烈과 같은 學者들도 증용하여 북벌사상으로 굳히려 하였다.

우암 송시열도 청음 김상헌과 같은 의리 있고 主體性이 있는 선비들 항시 흠모하였으며, 또한 三學士정신을 높이 평가하여 몸소 <三學士傳>을 저술하는 등 은근히 북벌사상을 고취시켰다.

그러나 2차에 걸쳐 淸나라로부터 강제적으로 兵力을 동원당하였으며 쇠약일로에 이른 국가가 되고 말았으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金尙憲은 652年(孝宗 3年)에 북벌계획을 이루지 못한채 世上을 떠나고 말았다. 그는 명필로 이름이 높았고 董其昌體를 잘 썼으며, 孝宗廟庭에 배향되고 그의 유적이 있는 곳마다 서원을 세워 그를 제향하였다.

著書로는 野人談錄·豊岳問答·南漢紀略·讀禮隨抄 淸陰集이 있고 유필로 秀泉君 貞恩墓碣이 있다. 시호는 文貞公이다.

불고기 냄새

安
壽
吉



양철동이에 차곡차곡 책을 넣고 그 위에 날옥수수를 수북이 덮어 놓았다. 동이 안의 것을 죄다 옥수수로 보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금주는 그 위를 현 보자기로 가렸다. 보자기 밑에서 옥수수의 마른 수염이 엮보인다. 금주는 마음놓고 또아리를 머리 위에 얹었다. 그리고 양철동이를 엮다.

언덕 밑으로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갔다. 책의 무게가 동이 밑바닥을 통해 정수리에 전해 왔다.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러나 참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으로 마지막이었으므로 금주는 여느 때보다 책을 지나치게 담은 것이다.

책은 남편이 해방 전에 모아가지고 있던 것이었다. 천 권 가량 될까? 잡지까지 합하면 그만한 숫자가 될 것이었다. 남편은 해방 전후 4년 동안 아버지의 과수원에서 긴 병을 요양했다. 일제 말엽에도 그랬으나 해방 후에도 불치의 병자로 지목을 받아, 비교적 시달림을 당하지

않고 은근히 몸을 회복할 수 있었다. 38 선을 넘을 기력을 얻자 남편은 큰 아이를 데리고 월남했던 것이다. 이미 금주의 시부모는 남편보다 먼저 서울에 가 있었다. 벌써 1년이 넘는다. 거기서 집도 조그만 것을 마련했다는 등짐장사꾼들이 전하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남편도 무사히 부모가 기다리고 있는 서울 집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지도 두 달이나 되었다. 금주는 남편이 떠난 뒤 집안을 정리하고 나머지 남매를 데리고 떠나기로 걱정했었다. 정리라야 별 것이 없었다. 과수원은 시누이에게 맡기기로 하고 시부모가 떠나기 전부터 걱정했던 일이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그 집 식구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러므로 준비 중 책을 간수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과수원은 시아버지의 명의로 있었다. 그러나 금주까지 없게 되면 물수될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 그것은 금주는 물론 금주 시아버지나 남편이나, 시누이네도 작오하고 있는 일이었다. 그럴 경우 남편이 모아 두었던 책까지 물수당하는게 애석하다고 금주는 생각했다.

그분이 아니었다. 그 무렵엔 포구인 이고장에서 목선에 이삿짐까지 꾸러 싣고 몰래 월남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다. 책을 바닷가인 삼촌덕에 갖다 놓으면 혹

그런 편을 만나 아이들을 데리고 책도 쉽게 가지고 갈 수 있을까 하는 희망에 서였다.

한탄강으로 어린것들을 데리고 고생이 막심하고 위험하다. 될 수 있으면 배편이 있으면 그걸 이용하라. 정 없으면 강원도를 돌아 속초, 양양코오스를 취하는 게 좋겠다. -한탄강 넘어간 남편이 등짐 장수편에 전한 것은 이런 주의였다.

책같은 것은 남편은 거들지도 않았다. 그러나 금주는 남편이 오랜 세월을 한 권 두권, 이것은 중요한 문헌이라고 말하면서 사 두었던 것, 그것을 읽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혀 38선 산악지대의 심산협곡(深山險谷)을 통과하도록 긴 병에서 건강을 회복한 책이었으므로 애착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금주는 벌써 보름 가까이, 때로는 양철물동이에, 때로는 합지에 책을 담고 그 위의 옥수수 혹은 포도, 사과 같은 것을 덮어, 강으로 팔러가는 체 꾸미고 바닷가의 삼촌 집에 날랐던 것이다.

그 운반이 오늘,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었다.

「아주망이 무슨거 이고 어드메 가요? 금주가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무물가에 왔을 때였다. 반장인 인봉 아버지가 딱 쇠베 수수깡 바자를 돌아 나오면서 물었다.

금주는 뜨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봉이 아버지가 반장이래서만이 아니었

다. 사팔뜨기일사한 떠돌떠돌한 눈이 심술궂게 생겨먹었다. 처음 금주비가 앓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동네가 어떻게 되느냐고, 마치 무서운 전염병이나 되는듯이 루던던 일이 있었다. 그리고 훨씬 뒤의 일이었으나 과수원 경계선 때문에 인봉 아버지는 금주와 되게 말다툼을 한 일이 있었다.

사팔뜨기일사한 떠돌떠돌한 눈을 부라리고 욱지거릴 해가며 대들 땐, 마음이 약한 금주는 까닭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곤 했다. 그러던 인봉 아버지가 해방 후에 반장이 되었다. 해방 후에는 인봉이 아버지도 금주네 내력과 금주 남편의 신분은 알았으므로 처음 왔을 때와는 달리 우락부락하게 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시부모와 남편을 서울로 보낸 금주는 반장인 인봉 아버지가 은근히 감시하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다. 금주와는 서로 통하고 있고, 서울 갈 것을 비밀리에 계획하고 있는 연숙 엄마와 인봉아버지는 내외종이라고 했다.

그 연숙 엄마 말이, 인봉 아버지는 검은 붉으나 속은 흰, 이를테면 홍옥(紅玉)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랴? 더구나 인봉 아버지는 이 후치골에서 오랜 세월을 근능(勤農)으로 내려왔던 사람이 아닌가? 반장의 책임까지 메고 있으니 안심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그런 인봉 아버지가 공교롭게도 마지

막 책을 이고가는 현장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그 심술궂은 눈으로 의심스럽게 묻는다.

뜨끔한 가슴을 가누면서 금주는,

「장으로 가는 길ियो.」

겨우 대답했다.

「장에?」

「예.」

「그건 무시진테?」

인봉 아버지의 시선이 양철동이에 쏠렸다. 옥수수 수염이 눈에 띄었을 것임에도 무언가가 묻는 태도가 또 수상했다. 금주는,

「강양이지 뭐겠소?」

「강양이?」

옥수수인 것을 확인한 모양인지 인봉 아버지는 거기 대해선 더 캐묻지 않았다.

그러나 인봉 아버지는 물러나지 않았다.

「요즘 아주망이 장에 자주 가오다 예. 어제는 포도를 한 합지 이구 가덩이....」

어제 포도를 더어가지고 간 건 어떻게 알았을까. 금주는 더욱 긴장해지면서,

「푸성거리를 팔아서 아이들에게 생선 마리나 사다 맥일가 해서 그러잖소.」

이렇게 사투리로 말했다.

「요즘 무슨 생선이 있음데까?」

「가재미가 좀 쟁히는 모애엠편다마는 비싸서.....」

「비싸겠지비.」

하더니 인봉아버지는,

「그런데 요즘 정 선생생 소식은 들
소?」

금주 남편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
이었다. 금주는 또 뜨끔했다. 그러나 금
주는

「소식을 어떻게 들겠소.」

잡아떼는 듯한 어조로 대답했다.

「어째서 못들소? 등집장수들이 요즘
에두 갔다왔다 한다는데…….」

「그래두.」

그러나 인봉 아버지는 그 이상 금주를
괴롭히지 않고 언덕에 있는 밭으로 올라
가 버렸다.

금주는 후유 숨을 돌리고 휘청거리는
다리를 가누어 걸음을 다구쳤다.

삼촌네 집엔 원채가 있달아 응접실 겸
한 넓직한 다다미방이 있었다. 책을 그
다다미 밑에 몇개의 큰 독을 파묻고 그
속에 넣어 두기로 했다. 대수롭지 않은
책은 3분지 1쯤 정리해 버렸으므로 독
속에 들어간 것은 6, 7백권 될까?

「형수 오세요?」

금주가 시삼촌 댁 대문 안에 들어서자
마당에 있던 사촌 시동생이 반겨 맞이했
다. 창섭인 열 일곱살이었다. 금주가 책
을 나르는 걸 누구보다도 환영했다. 그
털밖에 없는 일이었다. 해방 전에 이곳
공업학교에 입학해 그대로면 4학년이 되
었을 창섭이는, 해방 후에 학교의 개편
으로 지금은 화학전문학교 1학년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도 뜻이 이남에 있는 소
년이었다. 그가 이남에 뜻을 두게 된 것
도 금주 남편이 과수원에서 요양하는 동
안에 오르내리면서 받은 영향이라고 할
까? 어떻든 창섭은 종형울 몹시 존경했
고 따라서 종형수도 받들었다. 존경하는
종형의 책을 몰수당하지 않고 서울로 옮
겨갈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은 없다
고 생각했다. 옮겨갈 수 없더라도 통일
될 때까지 간직한다면 얼마나 좋으랴 생
각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창섭의 즐거움
은 그 책을 한 권 꺼내 볼때 입을 수 있
다는 점이었다. 거기에 금주가 책 위를
덮어가지고 오는 포도며 옥수수며 사과
며 호박은 그대로 창섭이네 차지가 되었
다. 식량부족으로 한창 식욕이 왕성한
낫세인 창섭이로선 금주가 갖다 주는 과
수원의 생산물이 대견하지 않을 수 없
었다.

오늘도 창섭은 여느날보다 무거워하는
금주의 양철물동이를 열른 받아 내리
면서,

「옥봤소.」

그리고 싱긋이 웃었다. 금주는 정수리
를 손바닥으로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마지막이라 남은 걸 다 가지고 오너
라고…….」

「마지막인가요? 어떻든 옥봤소다.」

창섭은 어른스럽게 종형수를 위로했
다. 이윽고 창섭이의 조력으로 다다미
밑의 독 속에 마지막 책을 간직했다. 다

다미를 덮고 물러서니 금주는 눈물이 핑 돌았다. 무슨 까닭에 도는 눈물일까? 남편이 4년 동안의 요양으로 38선을 넘을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케 만든 건 오로지 금주의 정성 때문이었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남편은 마음내키는 책이 있으면 병이 도저리만큼 그것을 입수하려고 애를 썼다. '요양에는 안정이 제일이었다. 몸은 안락의자에 눕힘으로 해서 요양의 법칙을 지킬 수 있었으나, 일정 말엽과 해방후의 어시럽고 피로운 시기에 정신적으로 안정을 얻기 위해선 무엇이냐 하나에 고요한 애착을 가지지 않아서는 안 되었다. 금주는 남편의 독서에 대한 애착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지나친 독서는 피로를 가져온다. 금주는 남편이 지나치게 독서를 하지 않을 정도로 그가 읽고 싶어하는 책을 구매 주었다.

그의 전공은 철학이었다. 그러나 책은 철학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다. 역사나 문학에 관한 것 외에도 다 배운 과학에 대한 것도 있었다. 금주는 남편이 원하는 책이면 서점에(물론 일제 말엽에) 부탁했고, 때로는 발행소에 주문해 보도록 했다. 소중하게 간직했던 결혼반지를 팔아 책값에 충당한 일도 있었다. 그러던 책을 남편은 한 권도 가지고 가지 못했다. 그리고 그런 책을 지금 금주는 망속에 파묻은 것이었다. 금주는 이것이 마치 그 애정과 정성과 믿음이 얽힌 은혜스러운 책과의 영원한 이별이나 되는 듯

했다. 눈물은 그래서 눈시울을 뜨겁게 한 것인가?

금주는 책을 간직한 뒤 삼촌댁 부엌에 내려가 책을 덮어가지고 온 옥수수를 삼았다. 옥수수는 알이 굵고 송치가 컸다. 굵은 알엔 풀기가 있었다. 씹으면 잇사이에 느껴지는 풀기, 찹떡과 공롱되는 풀기였다.

창섭이는 좋아했다. 한 송치를 너댓입으로 먹어치우는 창섭이의 왕성한 식욕에 금주는 호뭇한 걸 느끼면서 병후에 서울에서 무얼하고 있는지 모를 남편과,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용감하게 한탄장을 넘었을 열살 난 아들 석의, 지금은 어머니를 기다리노라고 북쪽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모습을 그려 보았다.

「얼른 떠나야 된다.」

금주는 가슴이 아려나는 걸 깨달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녀 후에 금주는 연숙 엄마를 찾아갔다. 연숙이네 집은 개울 건너에 있었다. 역시 언덕 위에 있는 집이었으므로 마당에 나서면 서로 건너다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서로 집으로 가고 오려면 배리막길을 걸어 우물을 돌고 개울을 건너야 되는 것이었다.

금주는 오늘 마지막으로 책을 나른 이야기들 연숙 엄마에게 들려주었다.

「그럼, 형님은 마음 놓고 떠날 수 있겠군요.」

연숙이네는 목선을 이용하려고 계획하

고 있다기보다도 벌써 한 번은 배에다가 짐을 실을 직전에 돌키고 말았다. 다행히 사공의 임기응변으로 일은 번지지 않고 말았으나, 그 후에는 감시가 심해 좀처럼 배를 얻을 수 없었다. 그 때에 꾸러 놓은 짐을 연속이네도 바닷가 친척 집에 간직하고 있었다. 연속 엄마는 금주와는 달라 남편이 이곳 중학 교원이었다. 해방 전부터 있던 직장에 그대로 붙어 있으나, 이미 반동분자의 낙인이 찍힌 것은 물론이었다. 그런데다가 배에 짐을 실으려다가 돌킨 사건이 있었던 것이다. 그 사건으로 연속 아버지는 내무서에 불려 다녔으나 무슨 까닭인지 오래 구금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게 더 불안했다. 보이지 않는 눈이 노리고 있다고 생각했고 사실이 그랬기 때문이었다.

이 불안 상태에서 해방되려면 38선을 넘는 일밖에 없었다. 금주가 책 처리를 마쳤다는 말을 듣자 연속 엄마는 금주가 부러운 생각이 들었다.

「글쎄, 그런데 마음이 놓이지 않는군요.」

금주가 어두운 얼굴로 말했다.

「왜요?」

연속 엄마가 물었다.

「어린 것 셋을 데리고 한탄강 넘을 것도 걱정이지마는…….」

「그거야 작오해야 되지 않아요.」

「작오야 하고 있지마는…….」

「형님, 요즘은 연천까지는 괜찮답니다.」

「어떻게?」

「장사꾼 차림을 한답디다. 미역, 고기 말린 것, 오징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져드요. 도중에 취체를 당하면 장사꾼이라고 버티시구려.」

「그런 작정이지마는……」

「그런데?」

「떠나기 전에 들킬 것 같아서…….」

「처음부터 연천 표를 사지 말고 원산 표를 산답니다. 어차피 원산서 하루 목게 되니까…….」

「그것도 그렇게 하겠지마는…….」

「그런데?」

금주는 연속 엄마의 얼굴에 진지한 표정이 서리는 걸 보고—

「연속 엄마.」

「예.」

「아무리 생각해도 인봉 아버지가 수상쩍어서…….」

「인봉 아버지?」

「아까 우물 옆에서 책을 이고 가는 걸 들키었는데, 옥수수를 장에 팔러 간다고 했으나 서울 소식도 묻고……, 연속 엄마 괜찮을까요?」

연속 엄마가 성긋이 웃었다.

「형님두, 인봉 아버지는 흥육이 아니라. 그러네.」

「그때두.」

「괜찮아요, 형님두. 눈 생긴 것처럼

성질이 좀 심술궂을 뿐이지, 속은 새하얗다니까요. 진짜 흥육이예요。」

「그런데 왜 나를 아니꼽다는 듯이 흘어볼까요?」

「아이유 형님두, 어지간히 신경이 약해졌는가보구려. 아마 인봉 아버지도 형님이 서울 갈 것은 짐작하고 있는데, 왜 실트를 하지 않고 쉬쉬 하느냐 그게 아마 못마땅하게 생각된 게 아닐까요.」

「글쎄, 그랬으면 좋겠으나…….」

형님, 그러지 말고, 인봉 아버지질 찾아가 실트를 하고 잘 부탁한다고 하세요. 치켜주면 좋아할 테니까…….」

「그래 볼까?」

신경이 날카로워진 금주, 모든 사람이 적인 것 같이 느껴지는 금주, 감시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금주는 연속 엄마마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금주는 이내 연속 엄마를 의심하는 자신을 야속스럽다고 뉘우쳤다. 주변이 모두 금주를 감시의 눈으로 보는 듯하고, 금주를 싸고 도는 분위기마저 그런 것이라 해도, 연속 엄마는 해방 전부터 이웃에 살아오는 동안 오직 하나인 뜻맞는 친구였다. 그런 친구를 의심하다니……. 금주는 연속이네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인봉 아버지를 찾았다.

「아주망이 오시오.」

마당에서 낮을 깔고 있던 인봉 아버지는 금주를 힐끔 쳐다보면서 툭툭스럽게 말했다.

「저낙은 잡셨소?」

금주는 사투리로 인사말을 했다.

「……」

대답이 없이 인봉 아버지는 낮 깔기에 여념이 없었다.

마침 집안은 아이들도 이미 잠이 든 모양인지 조용했다. 금주는,

「아주마이한테 얘기할기 있어 왔는데…….」

허두를 끄집어냈다.

「무슨 말이요?」

「내 피양 오래비네 집에 갔다 와서 서울로 가겠는데, 아주마이 좀 잘 봐주오.」

인봉 아버지는 잘던 낮을 놓더니 금주를 그 사팔뜨기일사한 눈으로 보면서

「그리는 줄 알았소.」

말하는 입가에 소박한 웃음이 떠올랐다. 그 웃음에 금주는 마음이 놓이면서, 연속 엄마의 말이 생각났다. 그래서

「벌써 이야기하자등기, 준비르 하느라고……, 나뻘 생각 마오.」

이렇게 말했다.

「나뻘 생각할기 있소?」

하더니 인봉 아버지는,

「우리 같은 기야 할 수 없지만은 아주망이야 벌써 가야지 여기서 무실 하겠소 우리두 후에 인봉이르 보내겠소. 먼저 넘어가서 가가 뒤에 가문 잘 돌봐주오.」

이런 인봉 아버지를 의심했다니 금주

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별로 잔말을 하지 않았다. 인봉 아버지도 잔소리가 없었다. 다만 한 마디,

「요즘이 고비인 모애엠티다. 연천까지만 가문 된다니까, 얼핏 서둘러 떠나오。」

평양역에 내리니 왜 이렇게 킁킁한지 몰랐다. 금주가 평양에서 여학교를 다닐 때 평양은 금수강산 그대로인 깨끗하고 부드러운 고장이었다. 결혼 후 금주는 남북만에서 산 일이 있었다. 만주는 하늘도 흐린편이 많았으나 건물도 연기에 그을은 것 같이 어둡고 칙칙했다고 인상되어져 있다. 평양역에 내렸을 때의 인상이 바로 그 만주의 거리에서 받은 인상과 흡사하다고 금주는 생각했다.

그런 인상은 금주가 처녀 시절에 책보를 끼고 학교를 다니던 길에서도 느꼈고 소풍을 가던 고장에서 느꼈다. 건물이 그을었고 아이들의 얼굴도 거무튀튀 그을어 보였다.

금주가 평양에 온 것은 북한을 떠나는 마지막으로 친정 식구를 보기 위해서였으나, 졸업 후 15년이 되어가는 평양을 보고 실은 착각도 없지 않았다. 그렇던 평양이 이처럼 어두워 보이는 것이다. 스탈린과 김일성의 초상화는 금주네 고장보다도 더 많고 더 큰 것을 달고 있었다.

금주는 오빠네 집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학생시절의 거리, 찬양대로 다니

던 곳에 있다. 그 동안 여기도 알아볼 수 없도록 변했다.

남편과 처음 알게 된 것도 여기 교회에서였다. 남편은 찬양대원은 아니었으나 독실한 신자 학생이었다. 후에 그의 아내가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으나, 그 청년에게 호감이 간 것만은 사실이었다. 결혼 후 남편도 그 때의 일을 회고하면서 결혼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으나 금주에게 호감을 가졌노라고 말했다. 그리고 한 번 함께 추억의 평양거리를 찾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럴 겨를이 없이 남편은 병석에 눕게 되었고, 지금은 38선으로 가로막힌 서울에 가 있는 것이다.

금주는 잠깐 회고의 감회에 젖었다. 그러나 아내 등에 업은 젓먹이의 무게를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오빠네 집으로 들어갔다.

오빠네 집은 단층 일본식이었다. 두 세대가 들어 있었다. 각각 두 방씩을 차지하고 있었다. 오빠는 상공성(商工省) 방면에 나가고 있었다. 당원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그러나 금주와 호휴이 통하지 않는 것만은 어김없는 사실이었다. 해방 전에 좌익 지하운동으로 3년간 감옥생활을 한 경력이 있으므로, 고향에서 평양으로 불리워가게 된 것만 보아도 알 일이었다. 거기에 올케는 여맹에 나간다고 했다. 올케의 열성의 정도도 금주로는 모른다.

그러나 나이로 보나 교양으로 보나, 해방 직전까지의 인생 경험이나 생활 정도로 보나, 풋내기 열성분자와는 다를 것이라는 믿음이 금주에게 있었다. 더구나 금주가 이번 친정 식구를 보러간 것은 순전히 금주의 착한 마음이 시킨 바였다. 인간으로서의 오빠와 율케와 친정 조카들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월남하기 전에 보자는 것이었다. 그러지 않고는 차마 떠날 수 없는 애련함이 금주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금주는 월남한다는 말은 입밖에 내지 않았다. 그저 오빠가 평양에 온 것도 오래 됐으므로 한 번 찾아뵈러 왔노라고 했다. 오빠도 율케도 아무 말이 없었다. 조카아이들 3남매는 고모가 왔다고 짱충짱충 뛰면서 좋아했다.

'금주의 말아들과 동갑인 열살짜리를 비롯해서 세살 터울인 3남매였다. 끝의 것이 제집애다. 고모에게 친정 조카가 제자식 못지 않게 귀여운 법이다. 금주는 고모가 왔다고 날뛰는 조카들을 보니 또 콧마루가 찡해왔다. 이제 서울로 가면 이 애들의 모습을 볼 수 없다. 금주는 가슴이 아려짐을 막을 길이 없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금주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그 조카아이들이 입은 옷과 안색이었다.

해방 전은 물론, 고향에 있을 때만 해도 말쑥하고 토실토실했던 아이들의 얼

굴빛이 어찌면 이렇게 거무튀튀해졌을까? 입성도 마찬가지였다. 꼭 평양덕에 내려서 느꼈던 연기에 그늘은 것 같은 칙칙한 인상을 조카아이들도 풍기고 있었다.

아이들의 모습에서 뿐만이 아니었다. 오빠 내외의 얼굴도 몹시 피로해 있었다. 저녁에 금주는 오빠네 식구와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았다. 금주가 가지고 간 생선 말린 것과 미역으로 반찬을 했으므로 제법 식탁이 풍성했다. 아이들은 더욱 좋아하면서 고모가 갖고 온 것으로 만든 국과 반찬을 맛있게 먹었다(애들에게 늘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먹이고, 그래서 전처럼 말쑥하고 토실토실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그러나 금주는 오빠 앞에서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아이들이 잔 뒤였다. 매부에 대해서 일언 반구 거들지도 않던 오빠가,

「아이 아버지 병이 어떻다더냐?」

무겁게 물었다.

「뭐, 남편을 따라 행동을 해야만 되겠느냐? 여기도 아이가 셋이나 있고 과수원도 있으니, 병약한 남편을 따라가 고생을 하느니보다 눌러 있는게 나을 게다.」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금주는 머리를 숙였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풋내기 열성분자의 투위는 달랐으나 역시 오빠도 은근히 금주의 월남을 막고

있음에 틀림이 없었다. 이런 오빠에게 무어라고 말하랴? 더구나 금주를 슬프게 만든 것은 병약한 남편을 따라가 무엇하겠느냐는 말이었다. 남편을 4년간의 긴 병에서 회복시킨 건 오로지 금주의 성의 때문이었다. 금주는 남편을 회복시키는 일을 그 무렵의 염원으로 삼고 있었다. 일제 말엽과 해방 직후의 북한의 정치적인 파동 속에서 금주가 정열을 부른 일은 이것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일은 성공했다. 이제 건강한 남편과 서울에서 새 기분, 새 신념으로 해방 후의 새 살림을 이룩하게 되는 것이다. 이질 끝없는 즐거움으로 살고 있는 금주에게 오빠는 남편을 따라가 뭘 하겠느냐는 것이 아닌가? 마치 자식들을 나눠가지고 각각 살라는 투였다. 해방 전의 오빠는 그렇지 않았다. 금주가 남편의 건강 회복에 정력을 기울일 때, 못내 갑박해 물질로나 정신면으로나 뒤를 밀어 주었다.

「금주의 정성이 꼭 성공을 이룰 거야.」

「초년 고생은 금을 주고도 사지 못한 됐으니, 이제 아이 아버지가 회복되면 알날이 피울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격려해 주던 오빠였다.

그런 오빠가 남편을 따라가 뭘 하겠느냐는 것이었다.

해방 1년 반이 이렇게 오빠를 변하게 만들었나 싶어, 금주는 새삼스럽게 압담

한 생각이 들었다.

금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원체 월남에 대해선 내색도 내지 않기로 마음 먹고 갔던 일이지마는, 오빠의 말을 듣고는 더욱 심증을 털어놓지 않았다. 이 틀만에 여학교 때의 친구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오늘, 더구가 정세가 바뀐 오늘, 여학교 때의 친구가 고스란히 옛집에 살고 있을 까닭이 없었다. 혹 그 때 살던 집이 남아 있어 반값에 문을 두드렸으나 친구는 결혼한 지가 오랜 뒤였고, 금주의 학생시절에 기쁨이 흐르던 친구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백발이 성성한 초췌한 모습으로 금주를 맞아 줄 뿐이었다.

금주는 친구네 집을 찾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길에서 우연히 몇 명 동창을 만났다. 학생 시절엔 양말공장집 딸이요, 고무공장을 경영하는 아버지의 고명 딸이었던 멋장이 아이들이 어찌면 이렇게도 촌 아주머니가 되었을까 실개 피려 피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금주는 반가웠다. 덩석 손을 잡고

「너 해숙이 아니냐?」

「이게 누구냐, 금주지?」

「너 왜 그렇게 늙었니?」

「너는 늙지 않은 줄 아는가베.」

학생 시절의 정이 새삼스럽게 복받쳐,

둘은 전차 정류장에서 손을 마주 잡고 소녀 같은 대화를 주고 받았으나 그것 뿐이었다. 친구도 금주를 경계하는 것 같고, 금주도 해숙이 지금 어떤 사상의 범주 속에서 생활하는지를 알 수 없어 고스란히 마음을 허할 수 없었다.

해숙이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 애는 해숙이보다는 좀 말쑥한 편이었으나 그리고 반감계 손을 쥐어 주었으나 해숙이 때와 마찬가지로 서로 마음을 허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금주는 마침내 선배 탄실 언니네 집을 찾아갔다. 탄실은 학교 선배이면서 또 금주네 고향 학원에서 해방 전에 3년간 교편을 잡은 일이 있었다.

금주도 잠깐 그 학원에서 탄실 언니와 함께 일을 보았으므로 둘 사이에는 간격이 없었다.

「너 어떻게 왔니?」

다정다감한 성격인 탄실은 금주를 껴안고, 불을 비비면서 반가와했다. 역시 금주가 웃을 뿐, 대답이 없으니까,

「이 바보야, 넌 벌써 서울 간 줄 알았더니 아직 두 남아 있어. 평양바닥에 그 주제로 나타난단 말이나?」

나무라는 투로 말했다. 금주는 속이 후련함을 깨달았다. 그래도 우물쭈물하고 있으려니 금주의 등에서 아기를 내려안고 탄실은 아기를 등실등실 어르면서,

「애, 너야 정선생님이 넘어갔겠다. 또 만상계도 갔다면서, 정회한테서 소식을

들어 다 알고 있다.」

하더니,

「나야, 자식이 있니? 그런데다가 어머니가 노쇠하셔서 움푹달작할 수 없구나. 자식두 없는 바에야 아무데서 살면 어머니 싶어 아지는 놀러 있다마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나두 어찌 될지 모른다. 그런데 너야 이러구 있을 처지냐? 첫째 정선생의 몸은 네가 얼른 넘어가야 그대로 지탱할게 아니냐? 지금까지 그렇게 정성을 써 기껏 회복시켜 놓은 몸을 그대로 팽개쳐 두어선 안 된다. 해주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게 마련해 줄 터이니 지체 말고 떠나도록 해라.」

사뭇 명령이었다.

탄실 언니의 마음이 고마와 금주는 또 콧마루가 찡했다. 무엇보다 고마운 것은 정선생의 몸을 그대로 팽개쳐 두지 말라는 말이었다. 서로 잘라져 살라는 오빠의 말이 새삼스럽게 되살아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솟은 것인가?

「너 왜 우니?」

탄실 언니는 금주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 금주의 두 볼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눈물이 흐르는 대로 금주는 말했다.

「사실은 서울 가기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오빠네 식구가 보고 싶어 온 거예요. 그러나 오빠에게 서울 간다는 얘긴 차마 못했어요.」

「금주두 참.」

탄실도 눈물이 글썽해지더니,

「얌전한 마음이 그게 변하지 않았구나. 금주 오빠야 새빨간 사람인데 나 같으면 찾아보긴…….」

남자처럼 말했다. 그리고 탄실은,

「잘 했다. 절대로 오빠한테 간다는 내색을 내지 말고 얼른 떠나기로 해라.」

격려 겸 다시금 재근했다.

금주는 이제 돌아가면 곧 떠나겠다고 말하고, 연천 한탄강 코오스를 취할 작정이나 만일 그게 여의치 않으면 탄실 언니가 마련해 주는대로 평양에 다시 와서 해주를 거쳐 가겠노라고 어렴풋이 약속했다.

평양에서는 전후 사흘밖에 묵지 않았다.

「땡겨 왔소?」

과수원에 돌아오니 인봉 아버지가 반겨 맞아 준다. 왜 그러냐 싶었더니 인봉 아버지는,

「그 동안 배우서에서 아주망이 어스베 갔느냐구 조사르 나왔댔소. 그래 피양에 오빠를 찾아보라 갔다구 증두룩 얘기했는데 얼른 잘 왔소.」

이렇게 그 동안의 일을 이야기했다.

「잘 하셨군요. 고맙소다.」

금주는 진심으로 인봉 아버지에게 치하를 했다. 눈이 풍기는 인상과는 판이하게 순박한 인봉 아버지는,

「개들이 점점 취척르 심하게 할 것 같

웅이, 어차피 가야 될 아저망이 양이오. 얼핏 떠나도록 하오.」

「고맙소다.」

금주는 이제 마음이 쓰일 일이라곤 없었다.

마침 남편과 함께 떠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기회만 엿보던 남편의 친구가 떠난다는 것이었다. 금주는 우선 그 사람에게 일곱살짜리 둘째놈을 맡려 보내도록 했다.

남편의 친구가 떠난 이튿날이 금주가 떠나는 날이었다.

옷가지를 뜯어 몇 점으로 치마를 만들었다. 아기를 싸 업고 포대기도 여러 점으로 누웠다.

그리고 허름한 몇 가지 옷으로 보따리를 만들고 그 위에 미역, 오징어를 덮었다. 연천 방면을 내왕하는 장사꾼으로 보이게 하자는 것이었다. 길잡이는 38선을 넘나드는 등짐장수들에게 부탁했다. 그 무렵엔 주로 사기(砂器)를 지고 넘어갔다. 이 장사꾼에게도 안내료를 주어야 되는 것이었다. 금주는 그들이 달라는대로 한 푼 에누리없이 주겠다고 했다. 떠나는 전날 밤 금주는 시할머니를 찾아보러 거리로 내려갔다. 시할머니는 팔순이 가까운 노인이었다.

「내일 새벽에 떠나기로 했습니다.」

금주는 할머니에게 하직 인사를 했다. 정정하다고는 하나 팔순이 가까운 할머니였다. 38선이 쉬 터질 것이지만은 그

결 참지 못하고 돌아가실지 모른다. 평양의 오빠보다는 오히려 시할머니를 뵈는게 마지막일지 모를 일이었다.

말아들과 장손을 서울로 보내고 있는 시할머니이기도 했다. 말아들에 식구로는 오직 금주와 아이들 셋이 남아 있었는데, 그들마저 넘어가게 된 것이 앞이 얼마 남지 않은 시할머니로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금주에 눈물을 흘렸다.

「이런 더러운 세상이 어디 있는가? 서울 간 식구들이 보구 실을 땀 자네나 자네 어린것들을 보구 위로를 받았더니, 자네마저 가면 나는 어쩌면 종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하던 시할머니는 명주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으나,

「10년만 젊었어두 자네를 따라 나서겠네마는…….」

하고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금주도 눈물이 핑 돌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쪼록 가서 아이 아버지 잘 봉양하고 아이들두 잘 키우게.」

시할머니와 금주와의 석별의 정으로 방안에 슬픈 것이 떠돌고 있을 때 시삼촌이 들어왔다.

시할머니가 말했다.

「아이 예미가 내일 아침에 떠난담메.」

「그래요?」

시삼촌도 형언할 수 없는 감회가 가슴 속에 서리는 듯 길게 말을 하지 않더니,

「갈 사람은 가야 되겠지만, 가고 난 뒤에 남아 있는 친척들의 일이 걱정이오.」

그리고 금주의 얼굴을 보았다. 금주는 무어라고 [대꾸할 말을 찾아낼 수 없었다. 머리를 수그리고 있으려니 시삼촌은 인사하러 와 주니 그건 좋지마는 옆에 좋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 친척 몰래 떠나는 편이 남아 있는 친척을 위해 좋지 않으나는 뜻을 증졌다.

그럴 것이라고 금주는 생각했다. 떠난 뒤 문제가 생기는 경우 남아 있는 친척은 우리도 몰래 떠난 걸 어쩍히느냐고 우겨댈 구실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삼촌의 말대로 열 가게방에 해방 전부터 새들어 있는 생명보험 외교원은 처음엔 알쏭달쏭하더니, 요즘 와서는 뚜렷하게 인민위원회에 붙어 지내고 있는 것이었다. 그가 알면 떠날 수도 없는 일이다.

금주는 슬그머니 일어났다. 밖으로 나왔다. 변변히 잘 있소, 잘 가거라, 인사의 말도 마지막으로 주고 받을 수 없었다.

금주는 어둠 속을 파수원을 향해 넓은 사람처럼 걸음을 옮겨 놓았다.

이튿날 이른 아침, 금주는 젓먹이는 등에 업고 다섯살짜리 계집애의 손목을 잡고, 오징어, 미역으로 덮은 보파리를 이고 S역으로 향했다.

동구에서 눈으로 나가는 인봉 아버지
를 만났다. 인봉 아버지는,

「떠나시오?」

먼저 나직하게 말했으나,

「예.」

금주가 대답하자,

「또 평양에 가시오? 이 아무망이 평
양에 재미를 붙인 게로군.」

동네 사람이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다. 금주는 인봉 아버지의 마음을
또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번엔 아이들도 데리고 가는 걸음이
라 한 땀새 걸릴 것 같소.」

역시 큰 소리로 대답했다.

원산까지의 표는 사촌 시동생·창섭이
용케 얻어 주었다. 등짐장수들과 함께
탔으나 같은 바구니에 앉은 것은 아니었
다. 차는 떠났다. 잘 있거라 S역!

무난한 출발이었고, 기차 안에서도 아
무 사고가 없었다.

원산에 내려서는 등짐장수 안내인이
지정해 주는대로 여관에 들었다. 연천까
지 저녁 차를 타고 갈 수도 있었으나,
안전한 방법으로 원산에서 하루를 묵고
이튿날 새벽 차로 가자는 것이었다.

원산에서의 만나질을 금주는 여관에서
낮잠을 자고 깨고 하면서 그동안 긴장했
던 신경과 피로를 쉼 셈이었다. 그리고
이튿날— 연천행을 무난히 탈 수 있었
다. 차 안에는 철원, 연천 방면으로 드
내기장사로 내왕하는 아낙네들이 많은

듯했다. 그 중에는 장사꾼 차림을 한 금
주 같은 여인도 있었는지 모르나…….

어떻든 금주도 남의 눈에 띄이지 않고
구석진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차가 삼
밤을 지나고 철원에 가까와왔다. 다섯살
짜리 순은 신경질적인 아이였다. 트침을
잘 부리고 울길 잘 한다. 지루한 여행이
순에게는 개운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트침
을 쓰고 울기도 했다. 금주가 애틀 먹고
있는데 장사꾼 차림의 어떤 아낙네가 있
는 자리에 가서 주는 걸 먹으면서 울음
도 그치고 트침도 쓰지 않았다. 그만쯤
그 아낙네는 아이를 달래는 수완이 있다
고 할까? 너스레와 수다를 부리면서 순
을 즐겁게 해 주었다. 고맙다고 금주는
생각했다.

그리는 동안에 차는 연천역에 닿았다.
38선의 첫 관문이었다. 금주는 가슴이
두근거림을 깨달았다. 몇먹이를 업고,
보따리를 머리 위에 올려 놓았다.
순을 찾았다.

「여기 있어요.」

그 아낙네가 순을 안고, 제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말했다.

「아주머니 짐도 있고 애기도 업었는데
이 애는 내가 데리고 내려 드리지요.」

「그래 주었으면 고맙겠군요.」

그 아낙네는 순을 안고 먼저 내렸다.
금주는 그 뒤에서 흙을 내렸다. 그러나
흙에 내리니 그 아낙네도 순도 보이지
않았다.

「순아, 순아!」

흙을 찾아 돌아다녔으나 순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흙에는 남아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어쩌면 좋아?)

내무서원에게 들켜 고초를 받거나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될 걱정은 다음 문제였다. 우선 순을 찾아야 된다.

「순아, 순아!」

순의 이름을 부르면서 역 구내에서 나왔다. 역 밖에서도 순은 보이지 않았다.

「순아, 순아!」

역전에 있던 사람이 사정을 묻는다. 금주는 차 안에서 만난 아낙네의 이야기를 했다.

「하하, 아주머니 그게 오징어 장수요. 오징어를 몸에도 지니고 보파리에도 꾸러가지고 오면 걸음인데, 차에서 내려 개찰구로 나오려면 걸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애기를 데리고 여행하는 체 꾸미자는 게였을 겁니다.

어디 찾아 보시오. 목적을 달렸으면 아이를 뺄게했을 거니까…….」

금주는 더욱 두근거려지는 가슴으로 역 주변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길로 달음질했다.

「순아, 순아!」

「엄마.」

길가 가게 옆에 순이 울지도 않고 서 있는게 아닌가. 금주는 순을 꼭 껴안았다. 그제야 순은 아양 울음을 터뜨렸다.

「우지 마, 우지 마.」

금주도 눈물이 나는 걸 깨달으면서 정신을 차리니 흙에 내려놓은 채 뛰어나왔던 보파리 생각이 났다.

(아차?)

순을 안은 채, 금주는 역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보파리는 눈에 띄지 않았다.

「보파리를 못보았어요?」

이 말이 무슨 소용이랴?

금주는 마침내 단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연천에는 월남하는 사람과 등짐장수를 상대로하는 여관이 있었다. 그 여관에서 금주는 안내자 사기 등짐장수들과 함께 만나질을 보냈다. 그리고 어두워진 뒤에 우선 한탄강을 향해 걸음을 옮겨놓기로 했다.

등짐장수들은 연천에서 여럿이 모여 일단(一團)을 만들었다. 그 일단이 금주와 같은 여러 월남자들과 함께 떠난 것이다. 일행은 15명이나 되었다. 등짐장수는 5,6명밖에 되지 않았으나, 금주같이 그 등짐장수를 안내자로 따라온 사람이 10명 가까이 되는 셈이었다.

시월 하순의 밤 공기는 벌써 싸늘한 것을 지나 차가웠다. 그런 밤 공기 속에 일행은 말 없는 행진, 숨 죽인 행진을 해야만 했다.

금주도 일행에 끼어 걸음을 옮겨 놓았다. 밤일 뿐 아니라 사람의 내왕이 없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 무시무시했다. 이 무시무시한 분위기에 전될 수 없었던가?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 등이 아니고 등짐장수에게 업힌 것이 싫었던가? 순이 울음을 터뜨렸다. 처음엔 젖먹이와 손을 바꿔 업었다. 그러나 이번엔 젖먹이가 등짐장수 등에서 사정없이 우는 것이었다.

「이거 안되겠소」

금주는 마침내 아이들과 함께 연천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안내자인 등짐장수는 연천에 가서 여관에서 자고 내일 낮에 여자 안내자를 앞세우고 떠나라는 것이었다. 여자 안내자와 함께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는 것 같이 꾸밀 수 있다고 등짐장수는 말하고, 알던 정보던 정 없이 일행과 함께 어둠 속으로 내뱉버리고 말았다.

금주는 여관에 돌아와 하룻밤을 지냈다. 이튿날 여관 주인의 주선으로 여자 안내자를 앞세우고 떠난 것은 정오가 채 못되었을 무렵이었을까?

관문은 우선 한탄강이었다. 한탄강은 여울이 세고 수심이 깊은 곳이 많다. 그 중에서 제일 열은 곳이 옹기골이었다. 연천 한탄강 코스 하면, 이 옹기골도 하점으로 한탄강을 넘는 길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런 도하점이 있으므로 내무서에서 여기를 엄중 경계할 밖에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오후 5시면 경비원이 저녁

식사로 교대를 한다는 것이었다. 교대라야 낮에 지키던 패가 저녁 먹으러 마을로 들어가고, 마을에 있던 패가 나오게 되는 것이었으나, 그 사이 3,40분 동안 경비가 허술하다는 것이었다. 그 시각에 도하점에 도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순을 안내자 아낙이 업었다. 역시 등이 설어 순은 울었으나 지난밤과는 달라남에게 폐를 끼칠 일은 없었다. 안내자 여인은 한 마장을 채 못 가서 배가 고프다고 양탈을 했다. 먹고 싶다는대로 마을에 들어 밤을 사먹었다. 그리고 마침내 옹기골 도하점에 도착했다.

물에 들어섰다. 차가운 감촉! 그러나 그걸 뼈저리게 느낄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물은 완만한 흐름이라고 했으나, 역시 세게 흐르고 있었다. 깊이는 젖가슴에까지였다. 순도 울지 못했다. 순한 젖먹이는 물론이었다. 금주는 안내자 여인의 팔을 끼고 꼭 붙어, 그대로 셀 물살을 저항하면서 대안을 향해 걸음을 옮겨 놓았다.

금시 총알이 날아오는 듯했다. 귀를 돌아볼 여지도 없었다. 꽤 오래 걸렸을 것이었다. 그리고 전신의 힘을 모조리 동원했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것 같지 않았다. 무의식 중의 행동 같았다. 마침내 대안에 올라섰을 때 금주는 신발이 없어진 것을 비로소 알 수 있었다. 안내자 여인의 등에 업힌 순의 신발과 양말도 물결에 벗겨져 없어졌다. 그러나

그런 걸 천천히 살필 여유가 없었다. 신발이 벗겨진대로 걷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에는 절벽 같은 낭떠러지를 기어 올라가야 했다.

울랐다. 물에 함박 젖은 옷이 몸에 감긴다. 축축하니 습기가 몸에 뻐다. 그러나 그런 것을 의식할 여유가 없었다. 숨이 막히고 눈에서 불동이 튀어나오는 것 같았다.

문득 남편의 일이 생각났다. 4년 동안이나 안정의자에만 누워 있던 남편이 이 불과 이 낭떠러지를 건너고 기어 오를 수 있었다니……,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러자 또 생각나는 것은 남편이 회복된 뒤 월남할 준비로 나날을 보낸 때의 일이었다.

남편은 매일 일과로 정하고 과수원 뒷산으로 오르내리고 했다. 이걸 본 울케네 계집애가 저희 동무에게, 우리 큰 아버지가 왜 산에 오르내리는지 알아? 38선 넘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걸 만 눈이 알고 금주에게 일러바친 일이 있었다.

금주는 그 계집애의 말을 변명하느라고 동네에 다니면서 그럴듯이 말했다. 금주는 이 일이 생각났다. 그 낭떠러지도 마침내 정복하고야 말았다.

역기서부터 능선이었다. 비교적 평탄한 길이었다. 길을 걸으면서 금주는 또 남편의 일을 생각했다.

(한탄강과 낭떠러지를 정복하고 서울까지 갈 수 있었으니 그이의 건강은 열려 없는 거야.)

금주는 힘이 솟구치는 걸 깨달았다. 능선이 계속된다고 하면 깊은 계곡으로 내려가지 않아서는 안 되었다. 깊은 계곡을 지루하리만큼 걷다가는 또 절벽을 기어 올라야 했다. 그랬다가는 능선이 얼마만큼 계속되는 길에서 약간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또 계곡이요, 경사 급한 봉우리요……, 밤중까지 이런 고난을 겪었으나, 아직도 38이북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었다.

순은 단속적으로 울고 있었다.

「아버지 있는 데 가.」

금주는 순이 따르던 아버지 있는데 간다고 달려면서 휘청거리는 다리를 가누어 걸음을 옮겨놓았다.

마침내, 지금까지 올라한 봉우리 중에서 가장 험한 봉우리를 정복했다. 봉우리 위에 올라서 머리맡 북으로 돌리니, 멀리 어둠 속에 전등불이 반짝반짝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쪽에 불이 보이지 않았다. 그 능선을 타고 얼마쯤 걸었다. 그리고 또 골짜기로 내려섰다.

백 미터는 걸었을 것이었다. 골짜기 저편에 등불이 희미하게 비치는 오막살이가 눈에 띄었다. 그러자, 코를 자극하는 냄새가 그 집에서 새어 왔다. 그것은 불고기 냄새였다.

「여기가 이남이 아니오?」

금주는 불었다.

「예, 38선을 넘었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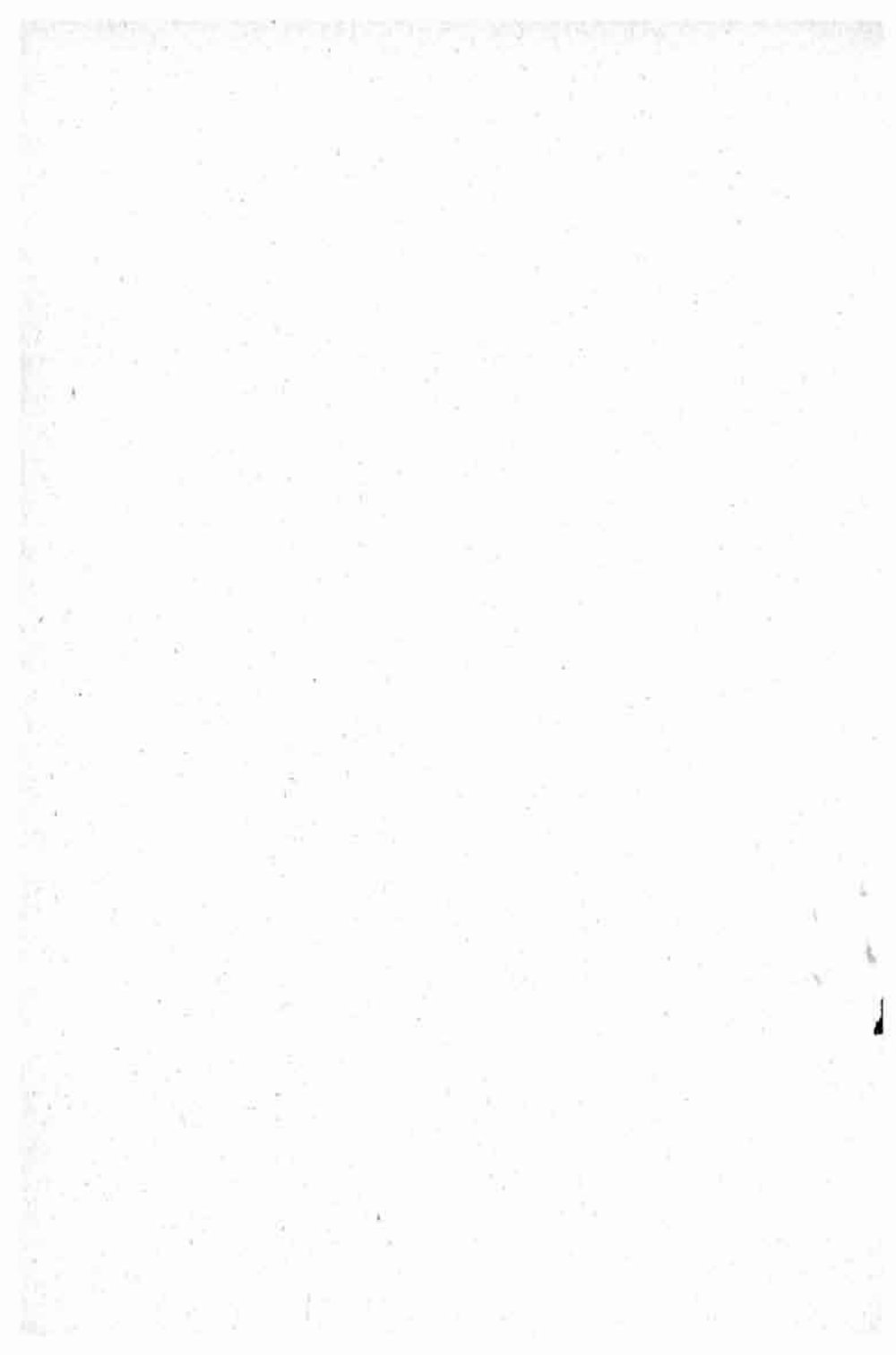
안내자 여인이 대답했다.

독자에게 알립니다.

이 책자에는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적의 전략 정보로 오용될 수도 있습니다. 독자 제위는 부지중 이 책자가 오용이 되지 않도록 취급과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본부 정훈감실

발행처	: 공군본부 정훈감실
인쇄처	: 공군교재창
편집실전화	: 829-3511, 호-5141
인쇄	쇄: 1981년 10월 26일
발행	행: 1981년 10월 30일



군 인 의 길

나는 영광스런 대한민국 군인이다.

하나 : 나의 길은 충성에 있다. 조국에 몸과 마음을 바친다.

하나 : 나의 길은 승리에 있다. 불굴의 투지와 전기를 뒀는다.

하나 : 나의 길은 통일에 있다. 기필코 공산적을 쳐부순다.

하나 : 나의 길은 군율에 있다. 엄숙히 예절과 책임을 다한다.

하나 : 나의 길은 단결에 있다. 지휘관을 핵심으로 생사를 같이한다.



필승의 공군 외무
자조정신 · 자립경제 · 자주국방



공군의 결의

우리는 자랑스러운 필승의 공군이다.

엄정한 군기 아래 깨끗하고 씩씩하며
서로 도와 단결하여 책임을 완수하고
나아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